자기를 바로 봅시다

금주의 법구

물 위에 바람 불고
연못에 달은 잠기네
이 맑은 맛을
아아, 즐기는 사람이 없네
-법주스님-

현대불교

佛事 전념 30年
불교미술전시관
석탑불서의 모든 것
책임 성업에 투합니다.
02)733-4800 -http://www.Buddha.co.kr
신흥사 범종대불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7월 26일 수요일(주간) 제 280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서울 목동에 사는 봉자주부 임옥희(30)씨는 사찰에 가기 힘든 평일에는 아파트 인터넷 전용선을 통해 주로 불교를 공부한다. 임 보살이 주로 찾는 홈페이지는 '서재영의 불교기초교리 강좌'(www.buruna.org). 이곳에서 임씨는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 테마 불경, 계율, 선어록, 기초교리 강좌, 라다크

인터넷시대 막차라도 타자

사이버 불국토 만들자

취재기, 지대방 한담 등 다양한 읽을 거리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불교를 접한다.

현재 국내 인터넷 검색사이트에는 '홍순지의 범상음악 불교음악', '박신영의 한국불교미술', '지산스님의 선서화', '황갑수의 불교경전, 진언모음' 등 20여개의 크고 작은 불자 홈페이지들이 있다. 홈페이지의 내용물이 천차만별이지만 불자 개인의 소박한 초발심의 눈으로 불교를 보고 이를 네티즌들에게 쉽게 전한다는 점에서 모두다 '1인 1포교사'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검색 사이트의 목록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개인 홈페이지 공간을 제공해 주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수백여명의 불자들이 개인 홈페이지를 마련, 보이지 않게 전법과 불교 외호에 앞장서고 있다.

개인 홈페이지 제작
'1인 1포교사' 역할

수많은 교육용 사이트 중에서 학부모와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곳이 현직 교사들이 운영하는 개인 사이트라고 한다. 이처럼 불자들이 만든 개인 홈페이지는 불교를 처음 접하는 네티즌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친밀성이 높아 단체 홈피이지에 뒤지지 않는 포교 효과를 얻고 있다.

수년 전부터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한 개인 홈페이지. 누구나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다. 하이홈(www.hihome.com) 하나넷(www.hanainet.net) 네띠앙(www.netian.com) 슈퍼보드(www.superboard.com) 신비로(www.shinbiro.com) 채널아이(www.channeli.com) 등 무료홈페이지 구축 인터넷서비스에 들어가 클릭만 하면 홈페이지가 저절로 구축된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대한불교예술원
■달집·탁자 법당내부 시공·수리 전문
■목탱화·영단·대웅전·단청·탱화 불사
☎ 02)930-1681 / 011)336-5200

"지도자 자격증제 도입"
"단계별 교재발간 필요"

조계종 '신도교육 체계화' 공청회서 제기

내실있는 신도교육을 위해서는 지도자 교육과 양성이 선결과제로, 지도자들의 자격을 검증하고 강화하기 위해 '지도자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신도교육 체계화를 위한 종단차원의 단계별 교육 교재 발간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과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회(위원장 지홍)는 20일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중앙종회 포교분과 위원, 불교대학 관계자, 각 사찰 포교국장, 신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도교육 체계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포교원이 지난해 9월 신도법을 통해 신도교육의 틀을 마련한 이후 교육체계 수립을 위한 첫 대중공사로, 신도들의 고학력 추세와 맞물려 신도교육이 종단 유지와 발전을 위한 명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 신도법 제10조에 규정된 기본교육, 전문교육, 지도자 교육을 통해 신도교육을 종단적으로 체도화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신도교육의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한 지현스님(종회 포교분과위원)은 "현행 신도교육이 강의실 중심의 교학에 치우치다보니 이(理)와 행(行) 앞에서 불교신도들이 갈등해야 하는 괴단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교원 포교부장 상운스님은 '신도교육 체도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신도법 교육체계를 중심으로 각 단계별 교육목적과 내용, 교육교재, 교육기간, 교육대상, 교육기관, 방법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조계종 교육원 계성스님(교육부장)은 "출가자 교육과 재가자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며 지도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어사 포교국장 지종스님은 "본사의 경우 포교국장이 당연직처럼 신도교육을 담당하게 되는데 질높은 신도교육을 위해서는 검증절차를 거친 지도자들이 신도교육을 맡는 게 옳다"며 "전문교사 양성을 위한 '지도자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또 "신도교육의 주체가 스님인지, 신도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신도교육 지도자 재교육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종단차원의 단계별 교육 교재를 발간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포교원과 포교분과위원회는 8월 하순 신도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제2차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3면>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스리랑카에 직업훈련센터 개관
진각종 해외복지사업 본격화

진각종(통리원장 성초)은 19일 오후(한국시간) 스리랑카 네곰보 카타나 지역에서 사회직업훈련센터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해외복지활동에 들어갔다. 직업훈련센터 명칭은 '진하로 하나되는 즐거움'으로 지어졌다.

이날 개관식에는 진각종 성초대정사와 송영오 주스리랑카 대사 등 한국측 인사들과 도단고다 직업훈련장관, 자야세나 사회부장관 등 스리랑카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양국의 우의를 다지고 사회직업훈련센터 개관을 축하했다.

성초 통리원장은 개관 기념사를 통해 "사회직업훈련센터 개관은 부처님의 정신을 세계 곳곳에 전하기 위한 진각종의 국제포교협력사업 가운데 하나"라며 "한국과 스리랑카 양국의 다양한 인적·물적 교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진각종과 스리랑카 정부측이 장기임대 계약을 맺어 진각복지재단의 해외지부로 운영되는 사회직업훈련센터는 3800여평의 부지에 본관과 교육관 등 5개 동의 직업훈련 시설과 최신 기종의 컴퓨터 20여대를 갖추고 있다. 9월부터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도 실시한다.

진각종은 이어 21일 오후 스리랑카 캔디지역에 있는 불치사에 한국불교종단협 명의로 비로자나불상을 기증했다.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봉안하고 있는 불치사는 스리랑카의 대표적인 사찰로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불상을 봉안하고 있다. 스리랑카=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공원제도 개선 시민위원회 8월말 창립

국립공원 제도개선 시민위원회(국립공원 시민위원회)가 다음 달 말 창립된다.

조계종총무원과 재가연대, 참여연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의 간사 및 실·국장들은 21일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국립공원 시민시민위원회 구성을 위한 실무준비회의를 열고 다음 달 말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실무준비위원들은 국립공원 시민위원회를 통해 △국가공원법 제정 △국가공원청 설립 △공원구역 재조정 △국가공원 내 문화재 보존 방안을 중점 논의하고 정부당국에 관련 법 제·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실무위원회에서는 또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국립공원내 주민단체를 국립공원 시민위원회에 참가시키기로 했으며, 법률자문단과 연구자문단도 위촉하기로 했다. 정성운 기자



◇ '지리산살리기·댐백지화 추진 범불교연대'는 20일 조계사에서 상임대표 수경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스님, 백창기 중앙신도회장 등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리산 댐 백지화 100만인 서명운동 입제식을 가졌다. 범불교연대는 5000여개 사찰에 현수막과 서명대를 설치해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지리산댐 백지화 100만 서명' 전개

28일 '국민행동' 발족…300여단체 동참

'지리산 살리기 국민행동'(가칭, 이하 '국민행동')은 14일 남원 실상사에서 25개 단체 대표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1차 준비위원회를 열고 오는 28일 총선시민연대(400여개 단체 참여)에 버금가는 300여개 종교·환경·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대대적인 발족식을 갖기로 결정했다.

준비위는 이날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 등 종교계와 환경·시민단체, 문화·산악계, 지역 대표자 등으로 11명의 공동대표를 선출하고 준비위 소속단체를 중심으로 집행위원회(25~30명)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준비위는 또 지리산댐 백지화 운동, 지리산 살리기 운동, 낙동강유역권 댐건설 반대운동, 댐 공급과 개발위주의 수자원정책 변화촉구 운동 등을 주요사업으로 결정하고 다양한 연구·홍보·정책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준비위는 이를 위해 △지리산의 문화생태역사생활에 대한 총체적 조사작업 △홈페이지 제작(사이버 서명운동) △100만인 서명운동을 위한 100일 정진 △지리산 문화제(9-10월경) △지리산지역 종교지도자 공동기자회견(8월말) △종교·문화계 정책토론회(9월)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수자원정책' 범국민토론회(11월) △낙동강 수질개선을 촉구하는 법영남인 결의대회(12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원=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日刊 인터넷 현대불교
Buddhanews.com

"댐건설 피해예상 사찰 258곳"

조계종 문화부 발표

조계종총무원 문화부는 14일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96년 마련한 댐 건설 계획안을 토대로 '댐건설 예정지역(시·군 단위)의 사찰 및 문화재 현황'을 발표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정부가 계획중인 25개 댐 후보지에서 직·간접 피해가 예상되는 사찰은 258곳이며 사지(寺址·절터)는 283곳에 이른다. 또 국보 7점을 비롯, 보물 127점, 지방문화재 169점, 천연기념물 2점, 사적지 3곳 등으로 지정문화재만 318점이 직·간접 피해를 입게 된다.

댐이 건설될 경우 영향권 아래 놓이는 사찰은 경북 군위 인각사(화북댐), 강원도 인제 백담사(공수천댐)를 비롯, 경기도 여주 신륵사(여주댐), 경북 김천시 직지사(김천댐), 경북 문경 봉암사(유곡댐), 경북 안동 봉정사(길안댐), 경북 영주 부석사(송리원댐)등 유명사찰이 적지 않다.

이들 사찰과 소장 문화재, 절터에 흩어져 있는 사적과 문화재가 수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댐에서 발생하는 안개와 습기로 인한 문화재훼손과 수행환경 악화, 도로 두절로 인한 고립 및 사찰재정난 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조계종 문화부 이분희 연구원은 "조계종 이외의 사찰과 비지정문화재, 확인되지 않은 절터까지 포함할 경우 예상 피해규모는 이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미 완공했거나 건설중인 횡성·밀양·용담·탐진·대곡·남강(보강)댐을 제외한 나머지 댐에 대해서는 "댐건설 계획이 확정된 바 없다"며 정확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밝히지 않고 있다.

김재경 기자

•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는 계속 출간됩니다 •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의 꽃을 피우는 책입니다.

주머니 속 대장경

20C의 창조자 보르헤스, 그의 사상적 기반은 '불교'였다.
101 - 교리·입문편
보르헤스의 불교 강의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알리시아 루라도 공저, 김홍근 편역
86 변형 242쪽 / 값 5500원

경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숫자들… 그 깨침의 프리를 푼다.
102 - 교리·입문편
법수로 배우는 불교
이제열 지음
86 변형 196쪽 값 4500원

'화 잘 내는 사람'이라는 말을 최고의 수치로 여기는 티베트인들의 성전 '菩提道次第'
201 - 생활불교편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초월 스님 편역
86 변형 176쪽 값 4000원

'계율'을 통해 참된 불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일깨워 준다.
202 - 생활불교편
재가 불자를 위한 계율 강좌
혜능 스님 역술
86 변형 330쪽 값 5500원

허운(虛雲) 화상의 참선 수행 요결
301 - 선(禪)편
참선요지 (參禪要旨)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醒) 스님 옮김
86 변형 278쪽 / 값 5500원

깨달음 자체보다는 어떻게 궁극에 도달할 것인가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302 - 선(禪)편
방편개시 (方便開示)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醒) 스님 옮김
86 변형 278쪽 / 값 5500원

한글 세대를 향한 선(禪)불교 강의
303 - 선(禪)편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한형조 지음
86 변형 336쪽 값 6000원

조선 시대 선사 41인의 선시 모음집
401 - 문학편
허공의 딸꾹질
이중찬 지음
86 변형 282쪽 값 5000원

모든 중생에겐 불성(佛性)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생불할 수 있을까?
501 - 문화·학술편
불성이란 무엇인가
전치수 지음
86 변형 196쪽 값 4500원

황폐한 우리의 교육현장에 던지는 붓다의 음성 '천상천하유아독존'
502 - 문화·학술편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김종서 지음
86 변형 192쪽 값 4500원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틀은 바, 전 지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 (02)737-0696

"한국어 능력-안거 등 외국인스님 교육 강화"

기본교육 받아야 구족계…재교육 정례화도

조계종 교육원 간담회

앞으로는 외국인 스님들도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안거 등 교육원이 인정하는 일정 과정(기본교육)을 거쳐야만 조계종단의 비구(니)계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연수를 통한 외국인 스님 재교육도 정례화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이 20일 교육원 회의실에서 개최한 '외국인 승려 관계자 간담회'에서 견진(교육국장) 선우(연수국장)스님 등 교육원 관계자와 현성(화계사 교무) 무심(화계사) 청고(금강선원)스님 등 외국인 선원 관계자 및 외국인 스님은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확정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계속 벌여 나가기로 했다.

교육원이 외국인 스님 교육체계 마련에 나선 것은 외국인 스님이 늘어나는 추세인데다, 이들 외국인 스님들이 해외에서 '한국불교 포교'라는 중책을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은 형식적인 교육으로는 외국인 스님들의 질적 향상과 한국불교 발전을 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다소 까다로운 교육과정을 요구할 경우 외국인 스님들이 한국불교를 외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교육의 질을 추구하면서도 한국불교를 찾는 외국인 스님들의 양적 저하를 막을 수 있는 수준에서 내년 상반기 중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국어 구사능력과 관련해 양측은 '행자교육 진행상 의사소통이 가능한 언어능력을 갖춘 행자에 한해 입교를 허락한다'는 지난 6월 행자교육원 제4차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해 공감하고 행자교육에 필요한 언어들은 매뉴얼을 만들어 미리 보급,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지속적인 수행과 공부를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화계사, 무상사, 연등국제선원 등 외국인 스님 선원들이 자체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외국인 사미·사미니의 기본교육 이수와 관련해서는 4년 정규안거(8안거)를 마친 스님에 한해 비구(니)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안거 횟수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키로 했다.

또 매년 사찰 및 유적지 순례 등의 연수회를 정례화해 재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원은 외국인 스님들의 비구(계) 수지자격에 대한 특례조항 설치를 추진키로 하고 중앙종회 교육분과와 협의를 벌여 나가기로 하는 한편, 외국인 스님들의 위상 제고를 위해 화계사 무상사 등 외국인선원이 종단 정규선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선원수좌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원은 외국인 승려 재교육의 일환으로 오는 11월3일부터 7일까지 해인사, 불국사, 봉암사, 건봉사 등을 순례하는 '한국 전통문화 체험' 행사를 실시키로 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사찰토지 1년단위 임대계약"

조계종 지침 시달

조계종 소속 사찰이 토지를 임대할 경우 1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임대료도 년 단위로 받아야 한다.

조계종총무원 재무부는 21일 불교회관 1층에서 교구본사 재정국장회의를 열고 사찰 토지를 임대시 임대기간을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현직 주지스님 임기를 넘지 않는 기한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내용의 토지임대 지침을 시달했다. 재무부는 또 계약체결시 반드시 종단 표준 임대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임대목록을 총무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재무부가 토지임대 지침을 시달한 것은 장기임대에 따른 소유권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재무부는 이날 회의 자료를 통해 "종단 소속 사찰 중 10여 개 이상의 사찰에서 일반인이 사찰을 상대로 20년 이상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임대지침 시달은 삼보정재 망실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태고종 법규위원장 수종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스님은 18일 법규위원장에 수종스님〈사진〉을, 법규위원에는 수열·성주·학현·자월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월해 전 법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 수열·성주 위원은 유임됐다.

수종 법규위원장은 1935년 생으로 지난 65년 법천스님을 은사로 내장사에서 출가했으며 고창 상원사 주지, 부안 백암사 주지와 태고종 중앙종회의원, 전북종무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현 대 만 평 박구원



집단행동으로…



◇19일 열린 징계제도 세미나에서 자유형 징계를 도입하자는 데에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호법분과위원회는 징계관련 종법의 제·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유형 징계 도입 긍정적"

조계종 징계제도 개선 세미나 참석자 한 목소리

조계종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위원장 대원) 주최로 19일 열린 '징계제도 및 징계자 관리 방안 개선을 위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자유형 징계 도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징계제도 운영자의 전문성·청정성 확보, 참회와 계율에 대한 교육제도가 마련, 승가의 엄격한 도덕성 및 지위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관련기사 3면〉

이날 세미나는 종회 부의장 청화스님의 사회로 '징계자 관리 현황과 개선 방안'(총무원 호법부장 종지스님) '사회내 처우를 통한 피징계자의 관리 가능성'(장규원 원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가톨릭 및 불교 제종단의 징계제도 비교 검토'(종회의원 지광스님) '징계제도의 올바른 개선 방향에 대하여'(호법분과위원장 대원스님) 등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종회의원 세영스님, 초심호계위원 성웅스님, 송광사 율원 교수사 지관스님, 경기대 교정학과 이윤호 교수가 참여했으며, 중앙종회 의장 법등스님, 호계원 사무처장 원행스님, 총무원 총무부장 원택스님, 종회의원 현응스님 등 1백여명이 세미나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 징계제도 개선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토론자로 나선 성웅스님은 "과오를 참회하고 다시는 파계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움으로써 승려 자신의 재생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징계의 경중에 따라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소집명령이 이행되어야 하고, 각 징계에 적합한 기간을 정해 교육, 봉사, 안거를 이행토록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영스님도 "종무직 취임과 선거권 등 일부 권리를 제한하는 현재의 징계제도로는 징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자유형 징계제도의 도입에 동의를 표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에서는 자유형 징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지관스님은 "징계제도를 운영하는 자의 전문성과 청정성, 제도 운영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할 때 비로소 화합·청정 승가 구현이 가능하다"며 특히 호법부와 호계원 구성에 계율을 공부한 전문가의 참여는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윤호 교수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승려로서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교육과 수도가 철저하게 실시되어야 하며, 동시에 승려에 대한 지위, 신분, 권위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산사서 만나는 불교와 상담

8월 16~18일, 용주사

불교와 상담의 만남이 산사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이근후)은 8월16일부터 18일까지 화성 용주사에서 '산사에서 만나는 불교와 상담'을 주제로 불교상담의 미래를 조망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상담토론회에는 '명상을 통한 자기 치유'(장현갑, 영남대 교수) '불교와 상담'(윤호균, 카톨릭대교수) '2천년대 상담의 방향'(이규미, 서울시청소년상담실장)을 주제로 발표하며 김정호(덕성여대교수) 권석만(서울대교수) 박경석(사랑의전화 상담교수)씨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조계종 고시위원회 발족

4, 5급 승가고시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한 조계종 고시위원회가 발족됐다.

조계종 고시위원회는 18일 발족식을 갖고 위원장에 무비스님(은해사 승가대학원장), 위원에 법산 성우 무관 도법 지오 지현 영진 일연 스님을 위촉했다.

이어 열린 1차회의에서는 4, 5급 뿐아니라 3급까지 포괄하는 것과 고시업무의 실무를 담당할 고시전문위원 선임 등을 골자로 한 승가고시법의 개정을 종무회의에 제안하기로 했다.

또 고시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승가고시 시행과 관련하여 5급은 9월경 고시위 주관으로 현행대로 실시하고, 10월 시행되는 4급은 교육원에서 8월초 발행하는 〈승가고시예상문제집〉 수정관과 사미·사미율의로 한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고시위원회는 4, 5급 승가고시 시행 일정이 촉박한 만큼 8월 23일 직지사에서 연찬회를 갖고 고시와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김원우 기자

교과과정 표준화 워크숍

조계종 경학원(회장 능허)은 29일부터 30일까지 해인사 문수암에서 교과과정 표준화 방향설정을 위한 1차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종단 승려 기본교육의 목표와 교과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표준 교과통일화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경학원은 이와함께 8월경 2차 워크숍을 갖고 개선대안을 마련하고, 9월경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연구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광역신도회 준비위 활동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는 18일 서울지역 7개 사찰 및 14개 단체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서울광역신도회 구성을 위한 제2차 간담회를 갖고 창립준비위원장에 김인수 조계사 신도회장을 선출했다.

이와함께 창립준비 운영위원에는 조계사 봉은사 능인선원 불광사 도선사 옥천암 등 6개 사찰신도회 대표와 불자교정인연합회, 교수불자연합회, 교사불자연합회, 대불청, 운불련, 선재마을의료봉사회, 불자산악인연합회 등 6개 신도단체 대표 12명이 위촉됐다.

창립준비위는 8월24일 각 참여단체 전체모임에 앞서 3차례에 걸쳐 운영위원 회의를 갖고, 9월2일 서울광역신도회 창립식을 갖기로 했다.

김원우 기자

조계종 포교국장협 구성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포교국장협의회가 구성됐다.

송광사, 통도사, 직지사 등 15개 교구본사 포교국장스님들은 지난 8일 충북 보은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포교원 주최로 열린 제 2차 전국교구본사 포교국장회의에 참석, '전국 교구본사 포교국장협의회'를 결성하고 통도사 포교국장 오심스님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포교분야별팀 구성, 포교사 및 포교사단 관리령 재검토, 신도교육 실시, 포교국장단 해외연수 추진 등도 결의했다.

포교국장협의회는 앞으로 2달에 한번씩 정례모임을 갖고 지속적으로 포교발전 연구를 할 방침이다.

김두식 기자(doobi@buddhapia.com)

선원 순회 사미의제 감찰

선원에도 사미의제 감찰이 실시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일부 선원에 안거중인 사미, 사미니들이 사미의제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7월 말부터 8월31일까지 각 선원을 순회하며 사미의제 감찰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교육원은 4월부터 사미의제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적발된 사미 18명에 대해 비구계 수지자격 1년 유보조치를 취한 바 있다.

김원우 기자

고불총림 백양사 참사람 무차대법회

"한국의 조사선 전통의 재확립과 참사람 결사의 새로운 세계"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고불총림 백양사 "참사람 무차대법회"는 지난 98년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불교계의 대표적인 諸法에 대한 만민토론 법회라 할 수 있습니다.
무차대법회란 말 그대로 불교계에 諸法에 대한 쟁점이 있을 때 누구나 신분에 차별 없이 평등하게 참여하여 공개 토론하는 장으로 선논쟁의 불식과 禪風 진작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수행의 연장입니다.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인류에게 깨우침을 전해 줄 고불총림 무차대법회에 많은 불자님들이 참석하시어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古佛叢林
참사람 無遮大法會

2544년 8월 19일(음 7.20) 토요일

- 오전 8시30분~오후6시 방생법회(일광정 호수)
- 9시30분 큰스님 법어
- 오후 2시 큰스님 법어 및 강설
- 6시 만등불사 연등 점촉

고불총림 백양사
전화 (061) 392-7502, 392-4603
팩스 (061) 392-2081

■증 명 : 서옹대종사, 혜암대종사
■고 문 : 관응, 고송, 월하, 원담, 벽암, 석주, 응담, 도천, 도견, 지종, 청하, 성수, 숭산, 종산, 보성, 정천, 법전, 녹원, 도원, 월인, 청화, 송담, 법룡, 정영, 진제, 지유, 활안, 인허, 범행, 정일, 월주, 혜정, 벽봉, 광제 (무순)
■선 덕 : 고봉, 고우, 구암, 근일, 노학, 능언, 몽산, 무분, 무여, 성우, 원융, 월성, 인각, 일우, 정광, 정명, 평전, 철웅, 초삼, 현기, 현산, 혜국, 효산 (가나다순)
■자문위원 : 거해, 구한, 고산, 능가, 능혜, 다정, 덕민, 대원, 덕영, 도문, 도영, 도성, 무진장, 도후, 동광, 명선, 무공, 무비, 묘운, 법등, 법안, 법의, 법장, 법정, 법조, 법타, 법현, 법홍, 벽파, 백운, 보광, 보선, 봉주, 부림, 선곡, 설정, 성덕, 성오, 성우, 성주, 성타, 성파, 세민, 승경, 암도, 우송, 원명, 월성, 월운, 월은, 월탄, 월파, 인환, 일연, 정관, 정대, 정락, 정련, 정무, 종걸, 중범, 종원, 지관, 지선, 지성, 지은, 지하, 진철, 진현, 진호, 천운, 초우, 천제, 철웅, 철원, 통광, 학능, 화엄, 현성, 현해, 현호, 혜광, 혜남, 혜산, 혜성, 혜정, 혜종, 효광, 홍교 (가나다순)
■지도위원 : 각수, 각현, 경훈, 계성, 계현, 광복, 광조, 금산, 금성, 금송, 능성, 대성, 대오, 대우, 대원, 대현, 대효, 덕상, 덕함, 도각, 도법, 도선, 도안, 도오, 도완, 도원, 돈각, 돈수, 동덕, 동명, 동옥, 두백, 마근, 만조, 명곤, 명관, 명언, 명정, 명조, 명진, 몽산, 무관, 무량, 무산, 무성, 무연, 무착, 백산, 범종, 법각, 법공, 법담, 법두, 법보, 법성, 법안, 법연, 법우, 법인, 법일, 법혜, 벽담, 벽산, 보광, 보성, 부동, 불산, 상경, 상운, 상현, 석호, 선광, 선봉, 선오, 선용, 선우, 설송, 설조, 성관, 성로, 성문, 성운, 성우, 성운, 성월, 성재, 성주, 성혜, 세영, 소연, 수경, 수완, 수진, 시몽, 심경, 양산, 여연, 연관, 연수, 영담, 영명, 영배, 영선, 영조, 영진, 영환, 우담, 우화, 유광, 원담, 원명, 원연, 원우, 원응, 원타, 원택, 원행, 원행, 원효, 월우, 의정, 인각, 인담, 인묵, 인행, 일륜, 일청, 임조, 장곡, 장운, 장주, 재문, 적연, 정각, 정경, 정관, 정념, 정묵, 정우, 정우, 정인, 정중, 정찬, 정택, 정혜, 정호, 정휴, 제우, 종경, 종고, 종광, 종대, 종락, 종림, 종밀, 종설, 종상, 종성, 종안, 종열, 종우, 종지, 종표, 증하, 증현, 자승, 주일, 지공, 지광, 지근, 지만, 지묵, 지범, 지송, 지승, 지오, 지우, 지운, 지운, 지욱, 지원, 지일, 지진, 지하, 지향, 지현, 지형, 지홍, 지환, 진각, 진관, 진광, 진만, 진성, 진아, 진원, 진현, 천진, 철산, 철우, 철인, 청원, 청제, 청화, 탄공, 탄우, 태공, 태언, 태욱, 태응, 평상, 평중, 학담, 함주, 향운, 향적, 혀정, 현각, 현근, 현봉, 현소, 현암, 현용, 현웅, 현장, 현전, 현지, 현진, 현진, 혜관, 혜권, 혜산, 혜안, 혜암, 혜원, 혜정, 혜창, 호연, 화법, 효광, 효종, 법왕, 본각, 수현, 육운, 일법, 재운, 지훈, 진성, 해주, 홍륜 (가나다순)
■조직위원장 : 다정
■조직위원 : 선각, 혜승, 진공, 수인, 창렵, 창오, 지일, 원진, 응각, 법륜, 진우, 현광, 법일, 화봉, 현명, 법장, 향공, 일수, 진오, 법신, 정연, 도성, 설재, 도일, 진우, 현공, 무공, 보현, 토진, 성묵, 일도, 석옹, 현각, 혜성, 무연, 정현, 의언, 원일, 세정, 선공, 광진, 자성, 동참, 동파, 탄우, 자언, 보연, 원종, 석장, 본묵, 혜현, 장우, 원철, 현묵, 명진, 무아, 무상, 정만, 응주, 대묵, 법광, 호산, 본언, 청연, 도연, 초연, 상연, 여훈, 형공, 관언, 영공, 규암, 혜각, 동산, 경진, 경만, 보행, 문성, 심연, 법현, 무경, 향운, 무학, 정명, 법지, 정재, 도일, 도현, 정견, 석언, 학연, 한복, 원광, 주경, 성전, 성오, 대주, 재연, 원명, 성륜, 광전, 용학, 명전, 대천, 혜응, 명원, 수안, 서호, 동선, 금인, 홍원, 원융, 정진, 현암, 선각, 선공, 법연, 대연, 지상, 경선, 광인, 여연, 혜종, 만당, 응진, 법우, 가연, 보인, 대현, 상전
■준비위원장 : 암도
■준비위원 : 원응, 원진, 타파, 일수, 현광, 진우, 원일, 무아, 호산, 범신, 현묵, 석연, 만당, 정견, 법구, 법주, 소궁, 법전, 보광, 덕룡



목어

건강 중독증 시대

찌는 듯한 열대야보다 더 지겨워 보이는 한국 의약(醫藥)분업 갈등 현장과는 달리 지금 세계 의약계는 환상적인 꿈의 실현을 위해 막 달리기 경주를 시작하고 있다. 인간 유전자 지도의 완성이 그 꿈의 실현을 고무해 주고 있는 것이다. 환상적인 꿈의 내용은 질병과 고통 없는 삶, 수명의 무한 연장 등으로, 그야말로 이승의 삶 자체를 천국의 삶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 꿈은 동서양 의술 의약의 시초부터 싹터 있었고 오늘까지의 경이로운 의약발전 역사를 견인해 온 힘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같은 의술 및 의약의 무한발전에 문제는 없는 것인가. 죽음과 질병에 맞서기만 하는 인간들의 태도가 과연 옳은 것인가. 한번쯤 뒤집어 생각해 보는 일도 의미 없지는 않을 것이다.

의약의 관심은 당연히 인간의 건강에 있다. 따라서 건강을 최대 선(善)으로 삼아 무조건 이를 추구한다. 그래서 어쩌면 건강 중독증이 현대를 대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건강을 위해 헬스클럽에 가고 운동을 하고 춤을 추고 단식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종교적인 명상이나 불교의 참선 수행도 '건강에 좋아' 하고 있다는 말이 어색하게 들리지 않는다.

태어남을 고통으로 보는 것은 태어남이 노 병 사, 즉 늙고 병들고 죽는 그 첫 과정이기 때문임을 우리는 배워서 안다. 병들어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잡아 있는 것이 아닐까. 늙고 죽는 일 역시 마찬가지로 결코 퇴치해야 할 악(惡)만은 아닌 것이다.

의학적으로도 아픔이나 두려움 등은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들긴 하지만 그 자체가 질병이나 장애가 아니라 본다. 정상적인 방어기능으로 더 큰 위험을 경고해 주는 장치라는 것이다. 사람의 기본정서 속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가 하면 노여움과 슬픔이 있어 조화를 요구한다. 기쁨과 즐거움만으로 과연 행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노여움과 슬픔을 제거한 인생이 과연 멋질 수만 있을 것인가. 질병과 고통 죽음을 퇴치해야 할 악으로 삼아 발전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현대의 학을 걱정스레 보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징자(언론인 · 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논설고문 : 고 은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교학 중심의 신도교육이 오히려 실천적 불자상 정립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열린 신도교육 체계화 공청회.

교육 내용-방법 체계화 미흡

신도교육 왜 표류하고 있나

"가르치면 골치" 일부 스님들 비관론

선어록 몇권 읽은 신도 '불교 다 아는 양'

신도교육은 1973년 대한불교 대원회에 의해 불교교양대학이 설립되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됐다. 대원불교대학이 세워지기까지 종단과 사찰 차원의 신도교육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기복적인 신행형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당시의 한국불교에서 종단이나 사찰이 굳이 신도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85년 이후 불교교양대학이 점차 늘어나면서 사찰에서도 신도교육을 위한 기초교리 강좌를 개설하는 등 양적인 팽창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왜 신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가. 무엇보다 종단과 사찰에서 신도교육의 방법과 내용, 체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다. 이는 스님들 사이에 '신도를 가르치면 골치가 아파진다'는 '신도교육 무용론'이 팽배해 있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조계종 포교원과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회가 주최해 20일 열린 신도교육 체계화를 공청회에서 지현스님(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은 '신도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스님들의 교육적 리더십 부재로 신도들의 교육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데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의 불교교양대학이 이념과 목표 설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먹구구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도 신도교육이 표류하고 있는 이유다. 불교교양대학의 전문 강사 없는 자체 강의, 학사 관리 직원의 부재, 재원 창출을 위한 교육 이외의 활동과 신앙따로 생활따로 식의 교학 위주의 교육 내용은 신도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신도교육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교리적 지식전달의 현행 신도교육은 재가불자들이 선어록 몇권 읽고 불교를 다 아는 것처럼 행세하거나 교육은 필요없다는 식의 기형적인 불교적 인간형을 양산하는 폐단을 낳기도 한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신도교육의 이념과 목표를 정립, 학자나 평론가가 아닌 불교 실천활동가로서의 불자를 만드는 교육체계 수립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박영동 전국교법사단장은 "획일화된 통일 교재와 교육과정만을 강조하다보면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부족해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다양화된 교육방법을 사용하되, 근본이념은 흔들이지 않아야 한다는 대 전제에서 신도들의 개인차를 고려, 눈높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도교육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종단 유지와 발전의 명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먼저 신도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한 종단과 사찰의 인식변화와 더불어 신도교육의 목적과 목표가 설정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재적 사찰의 신도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신도교육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필선 기자

범계따른 10가지 수행법

그동안 조계종의 징계제도에 대해 사회법을 상당 부분 차용, 운용함으로써 불가의 전통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19일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가 주최해 열린 '징계제도 및 징계자 관리 방안 개선' 세미나에서도 승가의 청정성을 회복하고 화합 승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율장정신으로의 복귀와 율장의 현대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송광사 율원 교수사 지관스님은 "율장에서의 갈마와 참회법은 교단의 청정성 회복과 화합 승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며 사분율에서 제시하고 있는 10가지 참회법을 소개했다.

△불공주(不共住): 바라이죄(살생, 음행 등)를 범했을 때 교단 밖으로 추방하는 것이다. 요즘의 멸빈에 해당한다.

△별주(別住): 죄를 숨겼을때 숨긴 날 수 만큼 독방에 거주하게 하며 죄를 참회하게 한다. 별주 기간이 끝난 뒤에는 다시 마나타 기간(6일)을 가진다.

갈마와 참회 화합승가 수단

△마나타(별주): 위의 별주보다는 가벼운 독방거주의 참회법이다. 마나타 기간 중에는 비구의 좌석 중에서 가장 밑에 앉는다.

△사재(捨材): 부당하게 재물을 소유했거나 혹은 재물에 대한 불법행위가 있었을 때 그 재물을 승가에 내놓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중 앞에서 참회하는 것으로 끝난다.

△방수(放遂): 비구가 신자들과의 관계에서 특수한 관계를 지어 신자들로 하여금 신심을 떨어뜨리게 하거나, 했을 때에 부과하는 참회법으로, 머물고 있는 지역을 떠나게 한다.

△차지(差止): 교단이 범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백을 요구함에도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참회법. 이 때는 승려로서의 권리를 일시 정지시키고 다른 지역에도 그 내용을 알린다.

△범단형(梵檀形): 묵빈이라고도 하며, 고만(高慢)하여 화합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무시하고 말을 걸지 않고 상대하지 않는 것이다.

△가책(呵責): 분쟁을 조장하고, 삼보를 비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참회법. 대중 앞에서 가책하고, 권리를 일시 정지시킨다.

△소의지(依止): 사소한 범계를 지는 자에게 권리를 일시 정지시키고, 율법에 능통한 스님 밑에서 공부하도록 한다.

△영사죄(令謝罪): 신자(재가자)에게 이롭지 못한 일 또는 손해를 줄 경우에 교단으로부터 위임받은 비구와 함께 신자집에 가서 사죄케 한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현실의 무명 깨우치는 과정 밝히자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㉑선의 대중화



서정형
서울대 강사 · 철학

'선의 대중화'를 말하면서 친절하고도 정확한 지도로서의 선수행론 정립을 강조하는 까닭은 오늘날 보편성과 객관성을 갖춘 '이론'이 상당 부분 대중의 스승 역할을 떠맡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선불교에서는 눈밝은 선지식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다. 스승의 계도가 없이 혼자 수행하다 보면 독단에 빠지기 쉽고 때로는 심신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굳이 선수행이 아니라고 해도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은 인생의 홍복이다. 그러나 좋은 스승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도 아니요, 존재한다고 해서 인연이 닿는 것도 아니며, 인연이 닿는다고 해서 반드시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이론서이다. 말에 미혹되어 뜻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글은 훌륭한 스승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스승을 모시지 않는 수행을 지나치게 경계하는 것은 이러한 이론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수행론의 정립에 못지 않게 선의 대중화의 관건이 되는 것이 일상성의 문제이다. 소위 대승불교는 소위 소승불교의 소승적 한계를 극복하고 대중과 함께 한다는 이상을 내세움으로써 명분을 얻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대승불교를 표방하는 한국의 선불교가 내심 은근히 폄하하고 있는 동남아 등지의 소위 소승불교보다 더 큰 수레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모든 군더더기를 걷어내고 일상의 행주좌와 어묵동정 가운데에서 바로 불성을 가리켜서 부처를 만든다는 선불교를 두고 일상성과 대중성을 문제삼는다는 것 자체가 이만저만한 결례가 아니지만, 선지(禪旨)가 관념화되고, 법거량이 의례화되었다는 비판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선이 활구(活句) 법문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사구화(死句化)될 위험을 안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할 터이다. 그렇다면 왜 선문답이나 선어(禪語)가 죽은 말이 되어버리는 것일까?

안록산이 양귀비를 찾을 때 귀비의 몸종인 소옥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마음이 소옥에게 있어서가 아니다. 말이 제 역할을 하려면 말속에 담겨 있는 언외(言外)의 뜻을 읽어낼 줄 알아야 한다. 손가락 끝을 보지말고 달을 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손가락 둘레만 맴돌 뿐, 달을 보는 사람은 드물다. 역대 조사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불성을 드러내 보여주어도 불성을 본 사람 역시 참으로 드물다. 그러다 보니 조사들의 활활발발한 언어동작은 그대로 죽은 말, 죽은 동작이 되어 관념이 되고 화석이 된다.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실로 불성이라는 것 자체가 관념 이상의 것이 못된다. 말이 관념이지 불성이라는 것은 일상적 경험과 같은 의미에서 경험되는 것도 아니려니와 사전적 정의의 조차도 알 듯 모를 듯한 언어의 나열에 불과하다. 그러니 아무리 많아도 선어와 선문답은 그대로 '무의미한' 말들의 난무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성을 확인하는 것(見性)이 궁극적 목적인 선수행이 오로지 불성에 대한 한 가닥 믿음에 의지한다는 순환논법에 빠져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작금의 현실이 그렇다는 것일 뿐, 선불교의 본령일 수는 없다. 화려하고 과장된 언사에 가려선은 이렇듯 자칫 우리의 일상적 삶과 별로 상관이 없는 불성과 깨달음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있는 듯이 보이지만 선은 언제나 지금 이 자리, 발밑(脚下)의 현실을 떠나 있지 않으며 따라서 본래 대중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불성의 보편성을 말하고 불성에 근거하여 원돈(圓頓)을 강조하기 이전에 현실의 무명(無明)과 무명을 깨쳐나가는 과정(次第)을 말해야 하며, 생사와 열반이 다르지 않다고 하면서도 열반에 기대어 생사를 경시하던 오만에서 벗어나 나날의 '하찮은' 삶 쪽에서 열반의 의미를 다시 물어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근본을 참고해야 한다. 과거의 문명이 한계에 부딪혀 자기 모순이 노정될 때 고전으로부터 새로운 영감을 얻듯이 한국의 선불교 또한 근본불교의 덕목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하여 선수행이라는 것이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이며, 삶의 진실을 보려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자신이 만들어낸 억압과 굴레로부터 자유로와지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비로소 선은 대중의 것으로 거듭날 수가 있을 것이다.

일타 큰스님이 남긴 최후의 법문집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이 시대의 청정율사 일타 큰스님이 들려주는 행복한 삶을 위한 생활법문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수행자와 재가불자에게 보내는 일타 큰스님의 해탈과 행복의 메시지 108가지.
불교우화집 ≪백유경≫을 비롯한 여러 경전과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 야운 스님의 ≪자경문≫ 등 역대 조사(祖師)스님들의 금쪽같은 법문을 소개하면서 불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간곡하게 들려주고 있다. 스님의 체험과 인연담을 곁들여가며 때로는 따끔하게 경책하고, 때로는 자상하게 힘을 북돋아주는 스님의 법문에는 자식을 걱정하는 어버이 같은 따뜻한 정이 묻어 있다.

일연학연구원 엮음/신국판 344면/값 10,000원



불교시대사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13층 전화 730-2500, 팩스 723-5961

내 마음 속의 부처를 찾는 길
좌선수행법
靜坐要訣 / 六妙法門 / 童蒙止觀 / 四念處

선(禪)과 교(敎)를 아우른 천태지의 대사의 지관좌선법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 법문 네 가지.



정좌요결
명나라 말기의 사대부 원황(袁黃)이 자신이 직접 수행하여 체득한 지관수행법을 자세하고 명쾌하게 서술한 글

육묘법문
좌선수행을 근본불교의 수행법인 수(數) · 수(隋) · 지(止) · 관(觀) · 환(還) · 정(淨)의 측면에서 설명한 수행지침서

동몽지관
좌선수행을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입문에서 완성까지 10단계로 정리한 알기 쉬운 수행입문서

사 념 처
근본불교의 선정수행법인 사념처관을 대승불교의 입장에서 새롭게 해석, 조명한 수행론

天台大師 · 袁黃 지음 남민수 옮김/신국판 356쪽/ 값 12,000원

불교시대사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13층 전화 723-1679, 팩스 723-5961

"진실한 마음으로 읊어야 참염불"

염불·독경테이프 낸 박규일 법사



"재가자가 독경 테이프를 내는 것은 처음이라 많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염불을 통해 병고, 가난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부처님 법 전할 수 있는 심부름으로 알고 용기를 냈습니다."

재가자로서는 처음으로 조석예불, 백팔대참회문 등의 염불, 독경 테이프를 낸 박규일 법사(57, 법명 향산·해동고 교사)의 얘기다. 이번 테이프는 전국교사불자회 겨울 수련회에서 그의 독경을 우연히 들은 주위의 끈질긴 권유 끝에 성사됐다. 또한 스승인 구암 스님의 추천도 힘이 됐다.

박 법사가 '보타원 보광 스님으로부터 불경의 기초를 처음 배운 것이 10년 전. 그로부터 1년의 독학 끝에 영남범음범패 기능보유자인 구암 스님을 찾아 본격적인 염불공부를 시작했다. 처음 5년간은 학교일 외에는 세상 모든 일을 뒤로 하고 염불에만 빠져 살았다. 박규일 법사는 그 당시를 '독경에 미쳐 지냈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이번에 발매된 독경 테이프에는 지나온 10년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특히 교사인 박규일 법사가 제자들의 대학 합격, 건강을 기원하던 발원문 등을 실어 재가자들에게 염불을 일상 가까이 접근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이번 독경에는 새벽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등이 담겨 있으며 삼보통청도 녹음이 완료된 상태. 행선축원, 삼보통청 등은 일반 염불 테이프에서는 보기 드문 내용들이다.

박 법사는 염불에서 무엇보다 마음을 중시한다. "마음이 동하지 않고 글자만을 외워 읊는다면 그건 염불이 아니며 뜻을 알고 마음에서 진심으로 읊어야 참된 염불"이라는 지론을 펼친다. 지금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박법사는 5년 전부터는 염불을 통한 포교활동에 빠져 산다. 범산염불회, 월산 염불회 지도 법사, 불교복지보건대학 장엄염불 봉사과정 강사, 무의탁 노인 돕기 등 활동폭도 다양하다. 이번 테이프 판매 수익금으로 감로심장회, 무의탁 노인을 돕게 된다. 부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동문 포교활동 밑거름 될터"

부산불교대 총동문회 신임회장 류동길 씨



"기수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내적인 위상을 다져 불법 홍포에 매진하겠습니다."

22일 부산불교교육대학 총동문회 7대 신임회장으로 취임한 류동길 회장(52)의 말이다. 이날 부산불교교육대학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수화찬불가, 거문고, 사물놀이 공연 등이 어우러진 결식아동돕기 하루찻집이 류회장의 취임식을 대신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 출신 1500여 동문들은 병원, 군포교, 장애인 포교 등에서 기수별, 분야별 포교로 이미 인정받고 있다. 이날 열린 하루찻집도 각종 포교를 적극 후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의 일환.

한때 부산불교산악회 회장을 역임했던 류 회장은 부산불교교육대학 총동문회 산악회 회장도 겸하며 매월 150 여명의 사찰 순례와 산행을 이끌고 있기도 하다. 류 회장은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동문들로 구성된 환희지 합창단, 수화반 출신의 심여회, 환희지 사물놀이패 등을 적극 후원, 포교의 밑거름 역할을 하는 동문회가 되도록 내실을 다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천미희 기자

일주문

제주 법화사서 법문



정각 법륜종 종정은 25일 제주 법화사 천일기도 정진 100일 기념 법회에서 법문했다.

불교원전연수 과정 개설



지관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은 하계 계절학기 교육과정에 불교원전연수과정을 개설하고, 23일부터 '경덕전등록'을 30일부터 '백운화상어록'을 각각 격주 금요일마다 강독한다.

금강정사 대웅전 기공식



지홍 광명 금강정사 주지는 광명시 소하동 구름산에 대웅전 건립 불사를 시작하면서 20일 사부대중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졌다.

의정부사암연합회장 취임

지설 의정부 홍법사 주지(관음종 총무원 부원장)는 26일 오전 11시 의정부전철역앞 삼천리회관에서 제5대 의정부사암연합회장에 취임한다.

환경보호대상 수상



혜자 조계종총무원 문화부장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창립 15주년 기념식에서 사찰을 통한 환경의 소중함과 자연보전 계승에 이바지한 공로로 환경보호대상을 수상했다.

청소년 수행학교 열어



행법 광주 선덕사 주지는 '열린 자아를 찾아서'란 주제로 8월3~5일 청소년 수행학교, 8월14~19일 일반인 수련회를 갖는다. 선착순 마감. (062)263-4660

한문·영어회화 무료강좌



법경 분당 기원정사 주지는 24일부터 한달간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문·영어회화 무료강좌를 실시한다. (031)713-0180

직지사 새주지 법성스님



직지사는 15일 산중총회를 열어 전 부주지 법성스님을 주지 후보자로 선출하고 총무원에 임명을 품신키로 했다.

법성 스님은 녹원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3년 사미계, 70년 직지사 강원 대교과 졸업, 72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서울 연화사 주지, 중앙종회의원(88~89년), 직지사 부주지(92~98년),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역임했다.

앙산세제불교대회 개최



목정배 대한불교 법사회 이사장은 15~17 양산 신흥사에서 '21세기 불교예술의 향방'을 주제로 특별강연과 양산학춤, 바라춤 공연 등 양산세제불교대회를 개최했다.

태권도 발전방안 국제세미나



박병식 동국대 지역정책연구소장은 1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세계태권도의 흐름과 한국 태권도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법륜종 창법 총무원장 취임법회

한국불교 법륜종 제6대 총무원장 덕산당 창법 종사 취임대법회가 20일 충남 논산 지장암에서 여법히 봉행됐다. 법륜종 종정 정각스님, 종회의장 혜봉스님 등 스님들과 신도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된 법회에서 창법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종단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선사 시민선방 무차선원 개원

도선사(주지 광복)는 16일 청운당과 시민선방 무차선원의 개원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도선사 회주 혜성스님, 현성정사 주지 현성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스님, 신도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개원식에서 광복 스님은 "무차선원에서 도심생활에 지친 서울 시민들이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초경찰서 경승법당 개원법회

서초경찰서 경승단은 20일 경승법당을 개원하고 관세음보살 봉안법요식 및 개원대법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서초사암연합회장 혜덕(대왕사 주지), 부회장 춘광(관문사 부주지), 경찰서 경승 남은(극락사 주지) 초격(광명선원 주지) 월도(관문사)스님을 비롯해 조삼랑 서초경찰서장, 여태기 서초구 청소년지도육성회장 등 사부대중 250명이 동참했다.

"생명사랑엔 종교 따로 없어요"

세비 생명나눔회 기탁 김효석 의원



개신교인인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19일 생명나눔실천회를 방문, 이사장 법장 스님에게 한 달치 세비 433만원을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16대 국회의원 임기가 2000년 5월30일부터 시작됐지만 세비는 한 달치를 모두 받았습니다. 이를 일하고 한 달 임금을 받은 셈이죠.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해놓고는 어디에 기부할까 고민하다가 생명나눔실천회에 후원금으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유권자연맹의 한 관계자로부터 생명나눔실천회를 권유받았다는 김 의원은 불교단체라고 해서 망설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생명을 나누는 일에 '내 종교 네 종교'가 따로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생명을 나누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인가를 깨닫게 돼 오히려 감사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지역구인 곡성의 태안사가 복원문제를 들고 나오자 이 문제를 국회에 청원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6.25 전란으로 불에 탄 사찰을 복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신을 복원하는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소신이다. 한명우 기자



양산사암련 청년회 경로잔치

양산사암연합회 청년회(회장 김정백)는 15일 통도사 자비원 4층 법당에서 관내 어르신들을 모시고 위안행사를 가졌다. 사암연합회 고문 진허 스님(통도사 주지), 연합회장 도봉 스님, 부회장 무호 스님, 안종길 양산시장, 정세영 양산시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불자연예인 김정식, 이수진과 양산여고 사물놀이패의 공연 등이 열렸다.



해동불교대 참나찾기 수련회

해동불교대학(학장 정대은)은 12~14일 용인 미타사(주지 성법)에서 참나찾기 여름수련법회를 개최했다. 60여명이 참가한 이번 수련회에는 참나찾기의 신행, 불전예절, 대승불교, 불교와 예술 등의 강의와 법문, 좌선과 1000배정진, 팀별 퀴즈대항전 등으로 진행됐으며, 마지막 날에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전쟁희생자를 위한 천도대재를 봉행했다.



광동학원 교직원 하계 연수회

학교법인 광동학원(이사장 일면스님)은 18일 하계 교직원 합동 연수를 실시했다. 법인산하 3개 학교의 교장, 교감 등 150여 명의 교직원이 참석한 이번 연수는 혜담스님의 '참된 불자 교사의 역할' 특강에 이어 참선실수, 저녁예불, 분임 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백중기도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일타큰스님의 유고법문집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신국판 / 값 5,000원

참선·염불·간경·주력!
어떻게 닦고 익힐 것인가?

이 책은 일타큰스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고집으로, 모든 불자들이 불자로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 참선·염불·간경·주력의 불교 4대 수행법 등을 갖가지 비유와 함께 자상하게 설하여 불자들의 삶과 공부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4×6판 / 값 3,500원

불교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영가는 어떻게 천도하나요?"

우룡큰스님의

영가천도

4×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우룡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김현준 편역
신국판
값 5,000원

이 책은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예참과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이 책을 펼쳐들고,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피 속에서 틀림없이 영가천도·업장소멸·소원성취·향상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감히 권하옵니다. 이 책에 의지하여 기도를 해보시기를!

지장신앙·지장기도법

Ⅰ. 지장보살, 어떠한 분인가?
- 대원의 본존
- 무한자비와 파지옥의 지장보살
- 현세의 행복과 지장보살

Ⅱ. 지장기도법
- 생활속의 지장기도
- 영가천도기도법
- 총합적인 지장기도



김현준 지음 / 4×6 판 / 값 3,500원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영가천도기도법, 생활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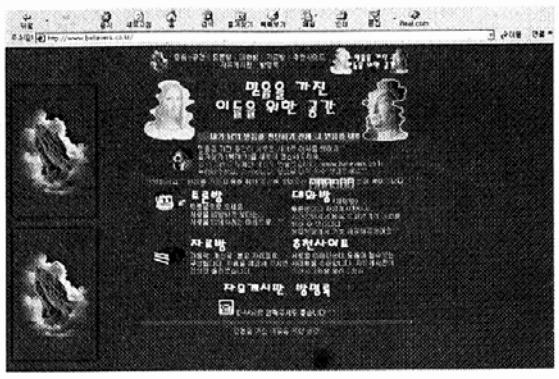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587-6612 · 팩스 : 586-9078

"마음 열면 종교벽 허물어져요"

인터넷 종교간 화해 사이트 눈길

◇ '믿음을 가진 이들을 위한 공간'을 방문하면 불교교리강좌를 비롯해 성경 형성과정, 종교간 대화의 필요성 등 다양한 종교관련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부처님오신날 가톨릭계에서 축하메시지를 보내고 크리스마스에 사찰에서 축하 플래카드를 거는 등 종교간 화합을 위한 시도가 관심을 모으는 요즘 사이버 세상에서도 종교간의 대화를 위한 사이트들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있어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믿음을 가진 이들을 위한 공간

(http://www.believers.co.kr)

불교 개신교 가톨릭 등 국내의 종교인들이 서로간의 아집을 버리고 대화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이다. 토론방에는 100여개에 달하는 토론이 개설되어 있다. 대부분이 개신교 가톨릭계열이지만 이 가운데 '부처는 새로운 신인가, 인간인가' '기독교와 불교의 유사성에 대한 토론의 장' '유교와 불교의 차이' 등 불교와 관련된 것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 종교가 다른 집안끼리의 결혼에 대한 문제 등도 토론방에 개설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생활 속의 종교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도 있다.

아쉬운 점은 기독교인들에 비해 불자들의 참여가 현저하게 저조하다는 것. 이 사이트 내에서는 불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토론방까지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불자들의 참여가 저조한 탓에 타종교인들이 불교를 잘못 알고 있어도 바르게 지적해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불교 왜곡의 문제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불자들도 이런 종교간의 대화 사이트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

내가 남의 믿음을 관단하기 전에 그 믿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모토를 내세우며 개설된 '믿음을 가진 이들을 위한 공간'에는 이외에도 대화방, 자료방, 추천사이트 등의 코너가 개설되어 있다. 자료방에는 금강경, 불교교리강좌, 교황그는 누구인가?, 마리아는 누구인가?, 예수그리스도, 성경(성서)의 형성과정, 가톨릭교회와 진화론,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차이, 신세대와 기독교, 종교간 대화의 필요성, 종교마다 십계명이 조금씩 다르다, 창조론 비관 등 다양한 각 종교의 교리, 역사 등을 담은 글이 올라와 있다.

진리는 하나

(http://147.46.37.204/myweb/index.htm)

불교의 참선법, 기독교 설교, 신학여행 등의 강의도 볼 수 있고, 법정스님의 동영상 설법도 볼 수 있는 곳이다. 종교영화 코너를 통해 각 종교를 주제·소재로 선택한 영화들에 대한 비평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이 사이트 만의 독특한 매력. 사랑합시다 코너에는 소쩍새 마을 등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대한 후원을 호소하는등 종교인의 보살행을 권고하고 있다.

나의 삶 나의 종교

(http://myreligion.com.ne.kr)

종교 간의 화합을 목적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개설된지 몇달 되지 않아 아직 왕성한 활동은 없지만 각 종교 자료 등을 서비스 하면서 각 코너를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들 사이트를 자주 방문한다는 서준호씨는 "종교의 문화와 그 종교의 가르침을 구별해서 볼 줄 아는 지혜로운 눈을 가진 분들이 많아 여러가지를 배운다"고 방문 소감을 밝혔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진리는 하나' 등 토론방 · 자료방 개설

불교·개신교·유교 다양한 교리 소개

일터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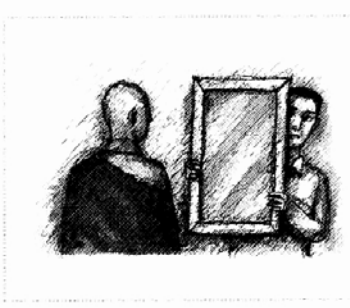
유 신 열

〈KBS 재원관리국 차장〉

지난 7월 초 조계종 포교원에서 주최한 전국 직장.직능 신행단체 지도자대회에 참가를 하였다. 나 자신도 내가 속한 직장에서 부처님의 법을 전파하는데 미력이나마 참여하고 있기에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동참을 하였다.

지금까지 사찰중심, 스님중심으로 진행되던 신행활동이 사회의 다양한 일터에서 순수 재가자 중심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전파하는 대중불교로 변해가고 있는 현장의 주역들이 서로의 고민을 논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모인 자리였다.

참가자 모두의 얼굴에 부처님의 모습이 깃들여 있었으며 이제 우리의 불교도 이렇게까지 발전하고 있구나 하는 환희심속에 다시 한번 신심을 증장하고 불법 홍포라는 원력을 다짐하는 소중한 자리였다. 사실 직장에서 고유 업무 이외에 신행활동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개인적인 희생이 담보가 되어야 가능한 일인가. 이러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대사회적인 봉사 활동 전개가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불교의 앞날을 짊어진 교육 현장과 군대내 포교에 전 불교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전력을 투구해야 한다. 어차피 직장직능 내 활동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군에서의 신행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운영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초적이고 건실한 기반 구축이 그 성공 여부의 핵심이다.



또한 불교의 사회적인 이미지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간 몇번의 조계종 분규로 인한 사회적 위상 실추로 일반인들에게 불교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미지를 불식하고 불교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불교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불교를 홍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깝고 낮고 편안한 불교"

자생적으로 조직을 결성하고 불법을 구현하는 이들이야말로 참다운 불자의 표상이요, 자리이타 정신을 실천하는 보살의 화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직장 및 직능단체 내에서 신행 활동의 환경은 열악하고 그 토양은 척박하기만 하다. 조직 내에서 불자를 찾기 어렵고 또한 적은 수의 불자조차도 불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찾아보기는 커녕 불자의식이 결여되어 그 결속력과 응집력 면에서 타종교에 비교해 볼 때 부끄러움이 앞서는 실정이다.

게다가 매번 법회 장소의 확보, 법사 스님의 섭외,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난관을 겪고 있는 것이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나는 속리산 법주사 대웅전 부처님 앞에서 직장직능 신행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몇가지 방안들을 생각해 보았다.

우선 불교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으로 불교 인프라 구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제 교계와 사찰에서는 외형적인 불사를 지양하고 불교 발전의 백년대계인 신도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대사회적인 봉사 활동 전개가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불교의 앞날을 짊어진 교육 현장과 군대내 포교에 전 불교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전력을 투구해야 한다. 어차피 직장직능 내 활동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군에서의 신행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운영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초적이고 건실한 기반 구축이 그 성공 여부의 핵심이다.

또한 불교의 사회적인 이미지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간 몇번의 조계종 분규로 인한 사회적 위상 실추로 일반인들에게 불교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미지를 불식하고 불교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불교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불교를 홍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올 1월 속리산 법주사에서 열렸던 교불련 겨울수련회. 이번 여름수련회에서 교사불자들은 테마수련을 통해 신심을 키우고 청소년 포교에 앞장설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교사불자련 테마수련회 연다

시도 지부별 참선 · 염불수행과정 개설

전국교사불자연합회가 테마가 있는 여름수련회를 개최하고 있다. 연합회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새로운 교사불자 발굴은 물론 불교학생회와 연계방안을 모색할 방침이어서 청소년 포교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 광주지부는 보성 대원사에서 24~28일까지 '참선 및 기공수행'의 초심자과정과 31~8월 5일까지 '위파사나 수행' 전문과정 수련회를 개최한다. 선무도, 좌선기공, 염불기공 등 주제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이번 수련회는 이미 120여 전국 초중고 선생님들이 참가 신청을 했다.

서울 경기지부가 주관하는 수련회는 8월 12~14일 오대산 월정사에서 '참선과 염불'이란 주제로 펼쳐진다. 1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수련회는 참선실수와 반야심경 사경, 월정사 암자순례 등으로 진행된다.

경남지부도 고성 옥천사에서 8월18~20일 '대승불교와 선'이란 주제로 대승불교와 보살행, 대승불교와 선 등의 강의 중심 수련회를 개최한다. 011-740-9494(조건균)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직장직능 연합대법회 실무위원 14명 선정

10월에 열릴 직장·직능 연합대법회〈279호 5면 기사참조〉를 준비할 실무진이 구성됐다. 이에 따라 연합대법회 준비가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교불련, 감사원 등 20여개 직장·직능 지도자 25명은 14일 포교원 2층 제 1강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전국 직장·직능 불교신행단체 연합대법회 봉행위원회' 실무위원 14명을 선정했다.

이날 선정된 실무위원들은 앞으로 실무위원회의를 열어 연합대법회 주제 및 장소선정, 주요행사 계획 수립 등 세부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참석자들은 연합대법회 행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개진했다.

우리 모임에선

관악구청 불심회 정기법회

관악구청 불심회(회장 정재완)는 20일 임제선원에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법회를 가졌다. 7월 31일부로 명예퇴직을 하는 김윤옥, 한장상 회원의 환송식을 겸한 이번 법회에서는 종성스님이 법문과 육조단경을 강의했다.

금강메아리 봉정암 순례

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회장 이진홍)는 15~16일 이틀간 성지순례를 실시했다. 44명이 참석한 이번 성지순례는 서울을 출발해 설악산 대청봉, 중청봉, 서청봉을 등반하고 봉정암, 영시암, 백담사를 참배했다.

구미시청불자회 강좌 회향

구미시청불자회(회장 신영근)는 '시청불교대학 강좌 특별과정' 회향식을 20일 구미불교포교원에서 가졌다. 지난 4월 20일부터 3개월간 매주 목요일에 실시된 이번 특별과정 강좌에는 20여명의 초심자들이 기초교리, 초발심자경문 등을 배웠다. 구미시청불자회는 사찰순례, 신행단체 방문교류 등을 통해 신심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연불회 5대보궁 순례

동아대병원 연불회(회장 박옥규)는 15~17일 2박3일간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통도사, 상원사, 봉정암, 정암사, 법흥사 등 전국 5대 적멸보궁을 참배한 이번 성지순례는 13명의 회원이 참석해 신심을 키웠다.

클릭! 새 홈 페이지

■ 아미타(http://cafe.daum.net/amital)-7월14일 개설. 정토신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는 곳.

■ 화엄연기차회상(http://cafe.daum.net/yongicha)-7월13일 개설. 화엄연기다(茶) 회원을 위한 홈페이지.

■ 삼광사학생회(http://cafe.daum.net/sam4)-7월8일 개설. 천태종 삼광사 학생회 회원들의 모임터.

■ 법사회보(http://cafe.daum.net/bupsa)-6월28일 개설. 대한불교법사회 법사회보 기자단이 만들어가는 홈.

■ 166 깨달음의 장(http://cafe.daum.net/perceive)-7월15일 개설. 166차 깨달음의 장 회원들의 공간.

■ 한마음 선원 학생회를 거쳐 가셨다면(http://cafe.daum.net/hanmaumst)-7월18일 개설. 한마음선원 학생회 출신 불자들을 위한 모임.

■ 초기불경연찬법회(http://www.freechal.com/goComm.asp?url=haklimdharma)-7월1일 개설. 청보리회 김재영 지도법사의 교리강좌를 들을 수 있는 곳이다.

* 홈페이지를 개설한 불자님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2)722-4162 jygang@buddhapia.com

천연방향약용식물을 이용한 여성질병의 치료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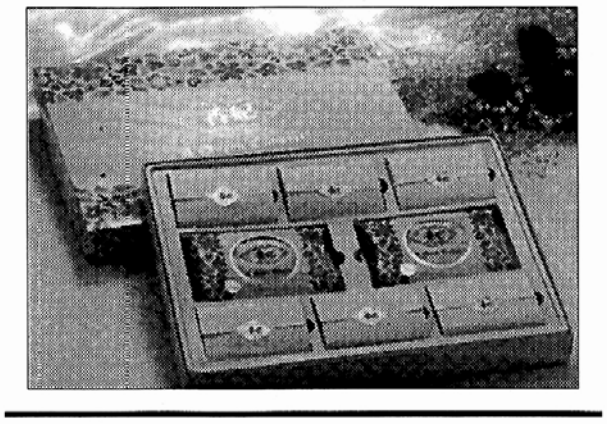
동의보감에도 향보(香譜)라 하여
각종 향의 질병별 처방이 상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향은 인간의 정신적 안정과 여러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 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80-200-4545 (02)755-9821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 · 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있다.
8. 생리 주기가 정상이 아니다.
9.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0.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1.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2. 가슴이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
13.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4.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다.
15.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6. 변비가 있다.
17. 당뇨와 갑상선으로 고통을 받는다.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사 설

불교TV 재기 힘 실어주자

불교TV는 1만 명의 포교사를 배출한 것보다 더 큰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머지않아 위성을 통한 전파발사가 실현된다면 불교TV는 전 세계 인류의 교화사(敎化師)로 나서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 불교의 향방을 제시하고 있는 불교TV의 위력은 어떠할까 능히 가늠해 볼 만하다.

모든 불자들의 염원은 불교TV를 살려야 한다는데 있다. 불교TV는 불고신자 모두가 하나같은 염원으로 개국에 동참하여 무려 180억원이라는 재원이 간절한 신심에서 염출되었다. 불교TV의 개국은 시청률에서나 광고에 있어서도 타 방송보다 월등한 발전 가능성에 우리 모두 흐뭇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하게 변하였다. 물론 IMF라는 사정도 있었겠지만, 방만한 경영과 과다한 직원 채용, 거기에다 종단분규에 편승한 파행운행 등이 원인이 되어 불자들의 정성이 담긴 정재(淨財)를 탕진했다. 급기야는 100억원의 빚더미만을 짊어지고 파산위기에 직면하여, 지난 4월부터 프로그램 제작 중단사태로 이어졌다.

그 동안 명목상의 사장들이 부침하면서 불교TV는 포기상태여서 선뜻 나서는 종단도, 단체도, 독지가도 없었다. 완전한 절명상태에서 불자들의 안타까운 신심을 저버리지 못한 석성우 스님을 비롯한 경영진과 현재 남은 25명의 직원이 사력을 다하여 숨통을 틔우고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8월 1일부터 뉴스를 비롯한 4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신규제작하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체제로 돌입하였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동원 파이낸스의 악성부채 20억원이 목을 죄고는 있지만 새로운 경영진에 참여할 이사 출연금 2억원씩 15명만을 확보한다면 숨통이 열릴 것인데, 이에 적극적인 동참이 시급한 문제다.

그 와중에도 매달 광고료와 수신료 등에서 5000만원 정도의 흑자를 내고 있다니 반가운 일이며, 경영진의 근검절약 정신과 삼보정재의 인과를 인식하고 기사회생의 의지를 신심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불교TV의 미래는 밝다. 차제에 천만 불교신도는 새롭게 태어나는 불교TV를 외면하지 말고 극복과 구원의 비원(悲願)을 발휘하여 불교TV 재개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불교TV의 새 경영진과 직원들은 살신성인의 구도자적 보살정신으로 인내를 자산으로 삼아 겸손과 검약체제로 새롭게 태어난다면 불자들의 시선도 새롭게 모아지고 동참의욕도 되살아날 것으로 믿는다.

문화재 500m 보호 환영이유

문화재란 단순한 볼거리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 조상들이 살아간 모습이나 얼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모양은 세월에 씻겨 볼품없이 되어 버렸더라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원형 같은 정신이 깃들여져 있는 것이면 문화재로서의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근년에 들어와서 우리들은 문화재를 개발이란 이름을 내걸어 온전한 모습조차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러 왔다. 문화재가 많다고 한들 이를 온전히 그리고 뜻깊게 보전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부끄러운 일일 것이다. 혹자는 마련된 법이 미흡해서 그렇다고도 하고, 혹자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있지 못해서 그렇다고도 한다. 어느 하나 틀린 말은 없겠지만 이제 우리도 그동안 소원하게 취급했었던 문화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된다. 우리의 문화유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또 경주의 남산을 비롯하여 몇몇 문화유산이 더 등재될 시점에 와 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는 소식은 두손을 들어 환영할 일이다. 우선 문화재청이 개정 공포한 내용을 보면 사적을 비롯한 문화재로부터 500m 이내 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사전에 문화재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서 문화재 보호의 영역을 넓혀두었다는 점이다. 이 시행령만 잘 지켜도 지금과 같은 난개발에 편승한 문화재의 훼손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문화재는 불교와 연관된 것들이 많다. 문화의 창출이 불교 영향을 많이 받았던 역사의 흐름을 이해한다면 지금 남아 있는 대부분의 문화유산이 불교적인 것이라고 이해해도 틀리지 않다. 이런 점에서 온 국민이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함은 물론이지만, 특히 문화의 중심에 선 불교인들의 각성이 더욱 절실하다.

아울러 문화재로 인해 겪는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재를 안고 있는 자랑스러운 땅이지만 좁게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재산상의 손실을 보고 있다. 정부는 고도보존법 등의 제정을 통해 온당한 보상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그 개인은 문화재를 안고 살아가는 주체로서의 긍지를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고은 칼럼



고은시인의 불교계와 사회에 대한 날카롭고 따뜻한 칼럼을 매월 1회 연재합니다. '고은 칼럼'은 고은시인의 문학과 불교사상과 삶을 통찰한 글로 깊은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시인 · 본지 논설고문

무엇에 의지한다는 것

원효…의상…미라래빠…
최치원…정약용…함석헌
수많은 전설과 인물들

고대 원효는 한반도 남반부 여러 곳에 그가 떠 돈 흔적을 남기고 있다. 그가 태어난 신라지역과 함께 백제지역에 그와 관련된 곳들이 아주 많은 것 같다.

나는 한국전쟁 뒤 산야가 초토로 된 시절, 처음으로 광주 무등산에 올라가 원효사를 찾은 적이 있다. 그 뒤 부안 변산반도의 한군데 벼랑진 곳에 숨겨져 있는 원효굴도 들어가 앉아 본 적이 있다. 그곳이 진묵스님이 공부하던 곳이라면 쉽사리 믿을 수 있는데 하필 여기까지가 원효굴이라니 하는 생각도 스쳐갔다.

어디 이 두 군데 뿐인가, 한반도 중부에도 원효를 내걸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 원효사, 원효암, 원효대 그리고 원효굴들이 다 '원효'라는 이름으로 과시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원효는 고대 민중들에게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그가 신라 정치이념으로서의 불교가 아닌, 대중들과 함께 사는 불교를 펼쳤으므로 그의 세계는 종법(宗法)이 아니라 무애와 자유가 숨쉬는 화엄세계였다. 당연히 세상 밑바닥의 무지렁이들마저 그를 마음속으로부터 따랐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살아있던 시대 이후에도 원효라는 이름은 항상 대중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그는 파계승이 된 뒤 국통(國統)의 불교에서 추방당함으로써 그의 대중불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는 신라 상층의 여러 가능성을 보유했던 사람이다.

화랑은 국가 인물을 배출하는 젊은 귀족공동체인데 그 역시 그런 화랑이었고 또 일찍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한 공주와의 인연으로 아들을 두게 되기도 한다. 그러기 전에 한 여왕의 흠모도 받았다. 마음만 먹으면 그는 얼마든지 승려로서도 큰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세속을 지향했다면 정부의 요직도 차지했을 것이다.

이런 신분을 천민이나 백성들과 어울리는 무애춤을 추는 떠돌이로 바꿨으니 대중의 전설은 폭발적으로 번져 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통일 전후의 국토의 모든 곳은 원효와 관련된다. 그가 사흘만 머문 곳이면 3년 수도를 한 곳이 되고 그가 가지 않는 곳도 그가 오랫동안 수도했던 곳으로 되기도 했다.

나는 3년전 티베트에 갔을 때 히말라야 북쪽 기슭의 모든 골짜기와 동굴들에는 하나같이 미라래빠가 살던 곳이라고 전해오는 것을 알았다. 고대 티베트 사람들에게 미라래빠는 위대한 교사이자 친구였다. 그의 전설은 세월이 갈수록 전해졌고 다채로워졌다. 그의 음유시 10만송(十萬頌)은 겨우 책 한권 분량이지만 10만편이라고 과장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실지로 10만편인데 그 뒤 산실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원효도 시와 논소 등 저작물이 아주 많다. 지금 남은 것은 그중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그런데 원효의 저작들은 그의 생애가 민중과 함께한 것과 달리 비민중적인 학문의 대상이 되고 있거나 관념론의 범주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다. 기껏해서 승려 입문서인 〈발심장〉 쯤이나 널리 알려졌을 뿐이다.

앞으로의 원효학은 그의 학문 및 사상의 지적 전개가 그가 산 무애적 민중성과 어떻게 일치할 수 있는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이런 원효인지라 전국의 어디를 가나 원효라는 이름만 걸어놓으면 안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원효는 자주 상품으로서의 원효가 되고 있다.

그런데 통해 낙산사는 원효를 아주 냉대하는 곳이다. 이 점이 아주 매혹적이다. 다른 모든 곳에서 원효, 원효 하고 야단인데 이곳에서만은 삼엄하게 원효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낙산사는 의상(義湘)의 고장이다.

원효와 의상은 10년 정도의 차이인데 도반으로서 형제를 결의한 사이였다. 두 사람은 함께 당나라로 법을 구하러 떠났다. 첫번째가 육로였다. 그 당시 육로는 고구려를 통과해야 가능했다. 그들은 고구려 영토에서 신라 간첩 혐의로 체포되었다. 조사해 본 결과 간첩 누명은 벗겨졌으나 본국으로 추방되었다.

두번째는 해로였다. 지금의 전남 법성포나 충남 당진 중의 한 포구에서 배를 타기 위해서 서라벌을 떠났다. 그들은 한밤중에 그 포구에 당도했다. 원효가 해골바가지의 물을 마신 곳이다. 타는 갈증을 그 물로 메웠다. 다음날 아침 그 물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을 때 그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가 깨쳐진 것이다.

원효는 더이상 공부할 것이 없다 했고 의상은 바다건너 공부가 기다리고 있다 했다. 두사람은 헤어져 하나는 국내파가 되고 하나는 해외파가 된 것이다.

원효가 요석공주와의 인연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의상은 당나라 여인 선묘와 절절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 의상이 당나라 화엄종의 계승자로서 귀국할 때 그를 한없이 사모하는 여인은 용이 되어 의상의 뒤를 따라 영주 부석사 창건에도 동참한다. 일본의 한 사원 벽화에도 의상 선묘의 신비스러운 연애가 그려져 있다.

하지만 의상은 낙산사에서는 지난날의 어떤 인연도 스며들지 않은 청정한 수행자가 되어 있었다. 그의 동해 관음기도는 그래서 가능했던 것이다. 이런 청정한 곳에 원효가 나타났을 때 동해 관음은 원효가 물 한 바가질 청하자 여자 서답 빨아낸 불그죽죽한 물을 주어 쫓은 것이다. 굳이 말하자면 원효의 전설이 낙산사에서는 반원효의 전설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은 원효 말고도 있다. 신라 말 당나라에서 돌아온 최치원도 전설적이다.

그는 중국유학 지식인으로서 그곳에서 문명을 떨친 사람이다. 아니, 그곳의 촉망받는 중견 관리생활도 해본 적이 있다. 하지만 고국에 돌아가 그의 큰 포부를 마음껏 펼쳐보려 했는데 현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무십조(時務十條)'라는 정책실현의 진언은 진성여왕의 눈길을 스쳤을 뿐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그는 왕실이나 귀족이 아닌 신분의 한계를 뚫지 못했다. 그는 가야산으로 들어 갔다가 농산정 단풍 속에서 목매어 자살하고 만다.

이 사실이 그가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랐다는 전설로 되어 그의 불운을 미화시킨 것이다.

다만 그의 둘째 아들은 고려 왕조 초기 왕건의 통일정책을 보필하는 사람이 된다. 아버지의 꿈이 자식을 통해서 실현된 셈이다. 최치원이 경주에서 태어났다는 사실과 서해안 군산 부근에서 태어났다는 설득력 있는 전설 역시 최치원이 얼마나 민중설화적 전설의 대상인가를 알게 한다. 경남 마산 쪽에서 태어났다는 전설도 있다.

고대에서 훌쩍 건너뛰어 조선후기로 내려와 보자.

거기에 정약용이 있다. 유배생활 20년 세월에 조선의 인문 사회 과학 총림을 완성한 사람이다. 그의 사실주의 시는 지금도 시 정신의 한 규범이 되고 있다. 그는 천주교에 입교했다가 그 동지들이 다 희생당하는 비운을 겪고 그 자신도 죽을 고비에서 천주교를 버리고 살아난다. 하지만 뒷날 그가 천주교로 복귀한 분명한 사실없이도 그를 천주교인으로 확정짓고 있다. 그만큼 정약용은 우리 민족의 큰 인물이므로 그를 교인으로 확정짓는 것은 교세 자체에 이롭기 때문인지 모른다.

만약 그가 후세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범속한 사람이었으면 한번 배교한 사실만으로 다시 그를 받아들일 까닭이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름없는 사람보다 이름을 떨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세상에 대한 일정한 의미를 성립시키기 십상이다. 가령 70년대 민주화운동에서 이름있는 함석헌이 동참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컸다.

너 자신을 의지하라
진리를 의지하라
자신의 진면목 만나야 한다

그래서 전설적인 인물은 시대의 상징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그런 전설은 없는 것보다 있는 쪽이 이 세상을 한층 더 풍부하게 만든다. 다만 그런 전설 혹은 이름을 떨치는 인물이나 가치에 쉽사리 의타적으로 지배받는 많은 사람들은 자력(自力)의 퇴화로 기울어지고 결코 창조적이지 않은 의존의 개체들로 되기 십상이다.

죽어가는 스승에게 제자가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까"라고 울부짖자, 스승은 "나를 의지하지 말고 너 자신을 의지하라. 진리를 의지하라"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많은 전설이 필요하지만 그 전설들을 벗어나서 원효를 넘고 정약용을 넘어 자기자신의 진면목을 만나야 한다. 원효암 대신 무명암에서 살아볼 일이다.

사찰 건축

스님! 이제 장엄불사 시멘트의 조각성형으로 전통사찰(포작) 그대로 제작해 드립니다

스님의 평수 주문에 따라 석가래에서 포작까지 일체 제작판매

성형제작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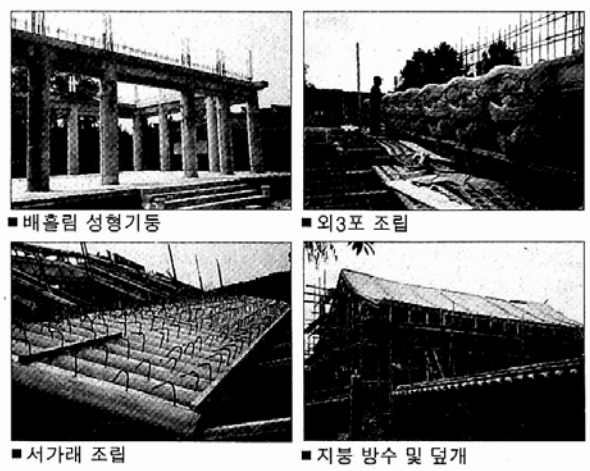
■ 포작 성형양생과정 ■ 서가래 양생과정
■ 익공 성형 양생과정 ■ 부연성형양생과정



설계에서 시공까지

책임은 확실히지고
약속은 꼭 지키는 기업입니다

법당시공과정



■ 배흘림 성형기둥 ■ 외3포 조립
■ 서가래 조립 ■ 지붕 방수 및 덮개

특징 저렴합니다 /간편합니다/섬세합니다 /우아합니다

사업안내 · 콘크리트 법당 · 목조사찰건축 · 요사채 · 콘크리트 성형조각판매

한국불교전통문예 (고건축사업부)

서울 · 중랑구 망우 2동 515-44(창원B/D 402호)
서울전화:(02)494-4890/1(代)
영남(울산):(052)258-2813
제1공장: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송능리237-9
제2공장:경기도 용인시 운학동 590



◇휴양지와 산사에서 펼쳐지는 문화행사에 참여해 색다른 문화 피서를 즐겨보자.

여름휴가 제안 I

여름이 주는 가장 큰 즐거움은 바로 방학과 휴가다. 아직 휴가계획을 잡지 못했다면 바닷가나 산 속에 둥지를 튼 문화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겨 보자. 평소 접하지 못한 문화의 향취도 맛보고, 더위도 식히는 1석 2조의 여름나기가 될 것이다.

바닷가에서… 산 속에서

전시회도 보고 더위도 식히고

■지리산댐 반대 문화제

지리산 살리기와 댐 건설 백지화를 관철시키기 위한 대규모 문화행사가 8월 11일 저녁 7시 경남 함양 상림공원에서 열린다. 천연기념물 제154호인 이 숲은 최치원이 함양 태수로 있을 적에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조성한 것인데, 나무 박물관이라 불러도 좋을 만큼의 다양한 수종이 어우러져 있다. 함양·산청·남원불교연대, 진주환경련 함양대책위, 덕천강대책위 등 지리산 지역 댐 건설 반대운동 단체 대표들이 준비한 이 행사는 시낭송, 김영동의 대금연주, 이애주 교수 춤 공연, 조상현 명창의 국악공연,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등으로 진행된다. (02)720-1654

■'찾아가는 미술관' 피서지 전시

국립현대미술관은 27일~9월 1일까지 휴가객들에게 중견 원로작가들의 한국화·서양화·조각품을 전시하는 '찾아가는 미술관' 문화서비스를 제공한다. 피서지 전시는 아름다운 자연과 미술문화의 향연을 통해 일상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자연과 문화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 줄 것이다. 27일~30일에는 경북 영덕 대진해수욕장과 인접한 영해중고등학교에서, 8월 3일~6일에는 강원도 고성 삼포해수욕장 삼포코레스코콘도에서, 8월 10일~13일에는 변산해수욕장 인근 격포초등학교에서, 8월 29일~9월 1일에는 강원도 평창 청소년수련원에서 각각 전시한다. (02)2188-6069

■통도사박물관 사리 특별전

통도사 성보박물관이 개관 1주년을 맞아 지난 6월부터 오는 31일까지 전시하는 '사리 특별전'은 통도사 주위를 찾는 피서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될 문화행사 현장이다.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가져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비롯, 96년 처음 발견되어 우리나라 금속공예의 신기원을 연 감은사 동삼층석탑 사리장엄구, 익산 왕궁리 석탑사리구, 불국사 석가탑 사리구 등 전국 50여 불탑에서 발견된 진신사리와 사리장엄구들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055)384-0010

■자연속에 자리잡은 세중 돌 박물관

1일 경기도 용인에 문을 연 세중 돌조각 박물관도 가족과 함께 찾아 볼만한 곳이다. 국내최초의 돌 박물관인 이곳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5000여평의 공간에 한국불교와 돌, 생활 속의 돌, 민속신앙의 돌, 12지신상 조형탑, 동자마을, 벅수동네 등 10개 야외전시관으로 구분해 1만여점을 상설 전시한다. 숲길을 산책하면서 돌조각의 조형적 가치와 돌에 새겨진 한국의 미를 온가족이 함께 감상해 보는 것도 올 여름을 특별하게 해줄 것 같다. (031)321-7001

■'금강산 가는 길목 진부령에서' 전

선화가 김창배 화백의 '금강산 가는 길목 진부령에서' 전이 8월 31일까지 강원도 고성군 진부령 문화스튜디오에서 열린다. 금강산 여행과 여름휴가를 위해 강원도 지역을 찾는 이들에게는 놓치기 아까운 볼 거리가 될 이 전시에는 '선승대국도', '다선삼매도' 등 차와 수행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선보인다.
(033)681-3679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불교TV 신규 프로 제작 '힘 낸다'

'TV법회' 등 7개 프로 8월 1일 방송

파산위기로 신규 방송이 중단됐던 불교TV가 방송 제작 재개로 새로운 활로 모색에 나선다. 불교TV는 8월 1일부터 뉴스, 건강 강좌, 명찰순례, TV법회 등 7개 포교 프로그램을 신규 제작해 방송한다.

이번에 안방 시청자 곁을 찾아갈 프로그램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생활 건강백과'(수·금, 오전 8시50분~오전 9시20분). '생활…'은 디스크, 관절염, 근육통 등 일반인들이 걸리기 쉬운 각종 질병의 원인을 살핀 다음, 양·한방에 관계없이 전문의를 찾아가 현장에서 치료법을 듣는 건강 강좌 형식으로 꾸며진다. 또 이 프로에서는 명상 수련, 기(氣)체험, 선(禪)체조 등 불교적 수행법을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는 건강 증진 비결도 알려준다. 특히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생한 자료화면과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삽화 및 도표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황남채씨(불교 판화가)가 진행하는 '명상으로 하는 태교와 육아'(월, 오전 8시50분~오전 9시20분)는 지난해 신선한 소재로 인기를 얻었던 '석성우스님의 청소년 태교'를 새 단장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에서는 임산부들이 직접 출연해 임신 중 증상과 경험담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명상 체조도 보여준다.

교계소식을 생방송으로 전달하는 'btn뉴스'도 재개된다. 제작인력 감소로 다소간의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생생한 화면과 함께 교계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3월부터 방송됐던 동양학 강좌 프로그램 '바로보는 동양학'(화, 오전 11시10분~낮 12시10분)이 박현씨의 진행으로 브라운관에 다시 모습을 나타낸다. 또 24개 교구본사에 주석하고 있는 대덕들의 법문을 들려주는 'TV법회'(월·금, 오전11시 10분~낮12시 10분)와 '영상으로 보는 한·중·일 명찰순례'(낮 12시35분~낮 12시40분)도 눈여겨 볼 만하다.



◇좌초 위기상황에서 전면 재방체제에 들어갔던 불교TV가 8월 1일부터 신규 프로그램의 제작을 재개한다.

황낙연 편성제작부장은 "시청자들이 일상 속에서 불교를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프로그램 신설에 주력했다"며 "제작여건이 좀더 나아지면 문화 및 기행 프로그램 제작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작 재개로 불교TV는 매일 오전 7시부터 밤 10시 10분까지 15시간 10분 동안 3회 순환방송 체제로 진행된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백일장…시인학교…불교개혁 심포지엄…

8월 8일부터 백담사 '만해축전'

만해 한용운 스님의 독립과 불교개혁정신 그리고 문학혼을 기리기 위한 제2회 만해축전이 8월 8일~11일까지 강원도 인제군 내설악 백담사에서 열린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스님) 주최로 열리는 만해 축전은 불교개혁 심포지엄, 전국시조시인대회, 만해상 시상을 비롯, 전국고교생 백일장, 만해축전 시인학교, 중광스님 선화전 등으로 꾸며진다.

첫날 오후 2시 강원일보사와 만해실천선양회가 주최하는 전국고교생 백일장 본선대회를 시작으로 문을 여는 만해축전에는 전국에서 지역예선을 거쳐 선발된 200명의 고교생들이 글솜씨를 겨루게 된다. 이어 오후 3시 백담계곡에서는 만해축전 시인학교(교장 신경림)가 입교식을 갖고 활동을 전개한다. 신경림교장을 비롯 이근배, 민영, 이성선, 이상국 시인, 소설가 전상국 안도현씨 등 12명을 강사로 초청, 시창작 강의와 시인과의 대화 등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과 계곡 산행이 이어진다.

10일 오전 9시에는 불교개혁 심포지엄이 진행된다. 윤원철 교수를 비롯 5명이 불교개혁사상, 교단개혁운동 등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은자 기자

경불련 아침을 여는 집, 열린 연극 '포도밭을 지나는…'

무대에 올린 실직 노숙자들 '존재의 이유'

실직의 아픔과 좌절로 이웃과 친지들에게조차 자신들의 모습을 내보이기 꺼려했던 실직노숙자들이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연극을 직접 무대에서 펼쳐 보였다.

22일 오후 5시 서울 성북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공연된 '경불련 아침을 여는 집' 실직노숙자들의 열린 연극 '포도밭을 지나는 국도옆에서'는 실직노숙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와 몸짓으로 아픔과 희망을 이야기함으로써 자활의 가능성을 스스로 확인하는 국내 최초의 시도였다는 점에도 의미가 컸다.

연극은 포도밭과 국도, 거기에 설정된 조그마한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농부와 작업반장, 사장, 광대와 학자 등이 이어가는 8개의 대화로 구성된다. 대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소외된 실직노숙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털어놓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모습을 서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하는 극적요소를 잘 살려냈다.

연극 속에 설정된 다양한 인간군상과의 대화를 통해 실직노숙자들은 그들이 왜 살아가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찾아나가게 되고, 이는 바로 관객인 우리에게 전하는 이 연극의 메시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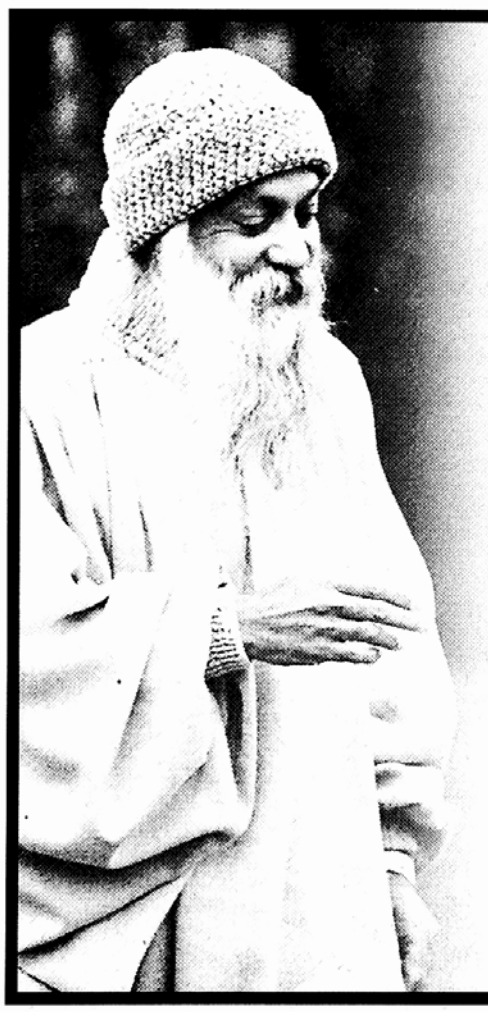
올해 초 아침을 여는 집과 극단 예기플라터너스가 공동으로 기획해 준비 한 이 연극에는 실직노숙자 9명과 전문배우, 자원봉사자, 아침을 여는 집 간사 등이 출연했다. 이은자 기자

선재소년소녀합창단과 천진불어린이무용단이 해외에서 잇달아 공연을 한다.

불국사 선재 소년소녀합창단은 28일~8월 1일까지 미국 서부지역으로 연주여행을 간다. 선재소년소녀합창단은 29일 오후 7시 미국 서래사에서, 30일 오후 2시에는 관음사에서, 31일 오후 2시에는 잉글우드 청사에서 사물놀이, 전래민속동요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재미교포들과 현지인들에게 선보인다.

선재 소년소녀합창단
해·외·공·연
천진불 어린이무용단

제주 천진불어린이무용단도 첫 해외 나들이를 떠난다. 중국 심천 군중예술단 초청으로 27일 오후 7시 심천 대가락 공연장 무대에 오른다. 한·중 문화교류 일환으로 열리는 이날 공연에서 천진불어린이무용단원은 장고춤, 부채춤, 물질가는 해녀들, 무지개 위에 핀 꽃, 천지의 울림 등 앙증맞은 춤사위로 양국의 우정을 다지게 된다.



벼락처럼 단번에 자르는 지혜의 완성!

The Book of The Books
법구경 I·II
오쇼 라즈니쉬 강의 손민규 옮김 전2권 각권 값 10 000원

The Diamond Sutra
금강경
오쇼 라즈니쉬 강의 손민규 옮김 값 10,000원

The Heart Sutra
반야심경
오쇼 라즈니쉬 강의 손민규 옮김 값 10,000원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니,
우리는 마음을 통해 세상을 만든다.**

오쇼의 법구경 강의는 방금 건져 올린 물고기처럼 생동감이 넘친다. 불교의 경전을 넘어서서 참다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소중하기 이를 데 없는 진리의 선물이다.

**그대는 오직 의식하는 만큼만 존재하리라.
의식은 그대를 깨어 있게 한다.**

이 진언은 '그대 안에 잠들어 있는 붓다'를 흔들어 '깨달음의 땅'에 이르게 한다. 우리는 여기 금강에서 가장 높고 숭고하며 완벽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냥 존재하라. 삶이 춤추도록 놓아두라!
이것이 진리가 찾아 오는 유일한 길이다.**

집착과 소유를 버려라! 삶의 덧없음에 명상하라! 그대가 무(無) 안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날, 모든 붓다들이 그대를 환영하고, 열반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21세기를 사는 지혜의 서

01. 탄트라 秘典 I
02. 탄트라 秘典 II
03. 탄트라 秘典 III
04. 탄트라 秘典 IV
05. 법구경 I
06. 법구경 II
07. 금강경
08. 반야심경
09. 탄트라 더없는 깨달음
10. 신우도
11. 신심명
12. 하얀 연꽃(달마대사 강론)
13.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
14.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I
15. 禪, 빈 거울에 담긴 노래 | 마조
16. 마음을 버려라 | 임제
17. 오직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을 뿐 | 조주
18. 텅 빈 가슴을 넘어서 | 남전
19. 범의 연꽃 | 이규
20. 禪의 최고봉 | 백장과 대주
21. 내 사랑 인디아
22. 소중한 비밀 | 까비르 강론
23. 명상, 처음이자 마지막 자유
24. 서양의 붓다 | 헤라클레이토스 강론

★ 색인 책은 현재 준비중입니다
★ 책 제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mail_taeilpub@chollian.net
tel_927-2831~4 fax_924-3236

태일출판사

여름휴가 제안 II

배낭속 불서 한두권 더위 잊는데 제격

명상집도 좋고…사찰안내서도 좋고

여름 휴가철이 곧 시작된다.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사람들은 휴가 일정을 짜는 이외에 다른 생각이 없을 정도로 온통 '휴가생각' 뿐이다. 그러나 막상 휴가길에 나서보면 일상보다 더 번잡한 것이 우리네 여름휴가다. 그렇다면 이번 여름에는 아예 단순히 더위를 피하는 '피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망서(忘暑)' 즉 더위를 잊는 경지로 들어가 봄은 어떨는지. 쉽게 말해, 배낭 한 귀퉁이에 불서 한권 쯤 넣을 수 있는 여백을 만들자는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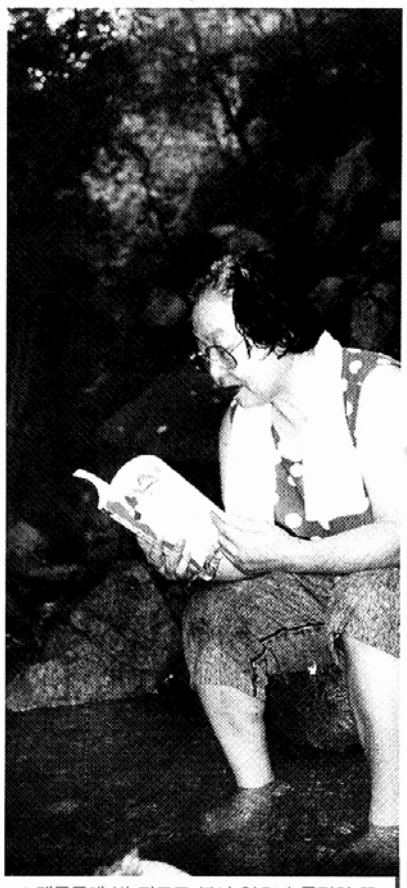
여름 휴가지에서 읽은 불서가 너무 심각해서는 곤란할 터.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가볍게, 즐겁게, 혹은 한껏 게으름을 피우며 읽을 수 있다면 더욱 좋을 듯싶다.

먼저 산과 바다의 야영지에서 편안히 읽을 수 있는 불서라면 당연히 명상집이겠다.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달라이 라마의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문이당)가 그런 책이다. 평화와 자비, 그리고 마음이 행복해지는 방법이 가득한 이 책은, 일기형식이어서 짧은 시간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깨어있는 삶으로의 여행〉(문화사랑), 〈수바시따〉(자음과모음), 행복·사랑·수행·지혜·죽음 등 다섯 주제별로 엮은 도서출판 한세의 '오색시리즈' 등도 휴가길에 동행해도 좋을 책들이다.

전국 어디를 가든 사찰 한두 곳을 만나기 마련이다. 푸른 숲과 계곡을 지나 만나는 사찰, 그냥 돌려보기보다는 사찰에 얽힌 이야기와 여러 전각들과 불구들의 의미를 새기는 감흥은 남다르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말이 실감난다. 서점가에 나와있는 이런 책들은 대부분 '사찰' 이란 이름을 단 것이다. 〈문화유산-명찰〉(한국문원), 〈절로 가는 마음〉(책만드는집), 〈사찰 장식 그 빛나는 상징의 세계〉(돌베개), 〈절안의 생활 절속의 문화재〉(다할미디어)를 비롯 사찰문화연구원의 '전통사찰총서' 등은 사찰여행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 주는 책이다. 이들 사찰관련 책들은 사찰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안내서로서의 실용성 못지 않게 읽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

피서 가는 데 '웬 불서이냐'고 힐난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눈맛이 좋은 책을 권하고 싶다. 〈산사의 미를 찾아서〉(다른세상), 〈그림으로 보는 불교이야기〉(풀빛), 〈풍경〉(이레), 무심(찬섬) 등은 사진과 그림만으로도 책 읽는 즐거움에 흠뻑 빠져들게 한다.

배낭의 부피 때문에 부담스런 사람들은 여시아문 '주머니속 대장경시리즈'나 '빛깔 있는 책들'을 챙겨볼 만하다. 물론 이보다 더 편하게 지니고 다니며 수시로 읽을 수 있는 불서도 있다. 손바닥만한 크기로 제작된 법정 스님의 〈산에는 꽃이 피네〉(동쪽나라), 정찬주 씨의 〈길끝나는 곳에 암자가 있다〉(해들누리), 〈법구경〉(민족사)등 작은 경전 시리즈 등이 바로 그것.



◇계곡물에 발 담그고 불서 읽으니 무더위 끝.

이밖에도 치열한 고승들의 구도행을 담은 소설, 깨달음의 세계를 노래한 선시류 등 눈만 돌리면 금방이라도 무더위를 잊게 하는 불서들이 참으로 많다. 올 여름에는 불서의 바다에 풍덩 빠져보자.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한옥이 아름다운 까닭은

신영훈씨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한옥'



산업사회가 되면서 하나둘씩 사라져 가는 한옥.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한옥〉(현암사)은 우리의 한옥을 바로 알아 살림집으로 되살리자는 안타까움에서 한옥의 미학을 조명한 책이다. 글쓴이 신영훈 씨는 호를 목수(木叟)라고 붙일 정도로 우리의 전통 목조 건물 짓기와 연구에 평생을 바친 최고의 목수. 그런 만큼 이 책 곳곳에는 한옥에 대한 살뜰한 애정과 현장감이 짙게 배어있다.

글쓴이가 말하는 한옥의 특징 세 가지. 기단이 높고, 처마가 있고, 인격이 있다는 것이다. 기단이 높은 것은 습기를 조절하기 위함이고, 깊은 처마는 삶을 편하게 해주고, 우리 몸에 맞게 조화로운 크기는 하나의 인격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한옥의 특징뿐 아니라 한옥 짓기의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한옥이란 무엇인가'에서는 한옥에 대한 전반적이 이해와 한옥의 집터, 구조, 종류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한옥 짓기'에는 실제 한옥 짓는 과정이 실려 있다. 설계와 시공에서부터 기둥, 처마, 지붕, 난방, 마루 깔기, 도배, 댓돌, 대문, 마당 가꾸기 순서로 집짓기 과정 등이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다.

전통적인 한옥 짓기뿐만 아니라 새로운 한옥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도 이 책의 중요한 성취다. 또 우리의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한옥 아이디어도 곳곳에 소개하고 있어 정보가치도 다채롭다. 여기에 사진작가 김대벽 씨가 촬영한 300여 컷의 사진은 한옥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들게 한다. 특히 사진설명에 한옥용어를 적절히 구사하고 있어 한옥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높여준다.

또한 이 책은 한옥의 건축 기법이 사찰건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절집 이해의 길잡이로도 활용할 만하다. 값 2만8천원. 김중근 기자

'철학적 대화' 빠진 원효와 야스퍼스

신옥희 교수 '일심과 실존'



7세기 한국불교 철학의 대표적 사상가 원효 스님과 현대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야스퍼스의 철학적 대화를 담은 〈일심과 실존〉(이화여대출판부)이 나왔다. 이 책은 원효의 대승불교 철학사상과 야스퍼스의 실존주의 철학사상을 비교 연구하면서 두 사상가의 실재관·인간관·윤리관 및 종교관의 근본을 조명하면서 두 사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하고 있다.

그 한 예로 두 사상가의 실재관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자. 원효 스님의 일심사상과 야스퍼스의 포괄자론은 주객도식과 지평성이라는 인간의 인식론적 근본 상황에 대한 비판적 지각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세계의 절대 부정을 통하여 세계의 절대 긍정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반면 원효 스님과 야스퍼스의 사상은 조화되기 어려울 만큼 서로 다른 이질적인 측면들을 내포하고 있다. 원효 스님의 사유초월은 존재 자체와의 직접적 합일에 이르러 존재의 평화와 안정을 성취하지만, 야스퍼스의 초월은 언제까지나 존재와의 완전한 합일에 도달하지 못하고 실존과 초월자는 주객 분열의 근본 상황 속에서 암호 문자를 통하여 간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글쓴이 신옥희 씨는 동양적 전통과는 이질적인 서양적 사고 방식에서 우리의 전통적 사고 방식을 끊임없이 반성하고 변혁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값 1만원. 김중근 기자

새로나온 책

▲염불신행의 원리와 비결(정목 지음, 경서원)= 염불신행의 원리와 효과적인 방법을 담은 정토신앙의 길잡이. '불교의 광명철학'을 시작으로 '정토신앙의 오묘한 도리', '창조적인 염불수행'에 이르기까지 무량광을 이루려는 아미타불의 염원과 범부의 깨달음을 통해 염불수행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또 부록으로 신라·고려·조선후기의 염불수행도 수록, 우리 나라 염불수행의 변천사를 환히 알 수 있도록 돕는다. 값 7천원.

▲길이 갈 수 없는 곳(김재윤 지음, 달과 나무)= 현직 군승법사가 쓴 시집으로 우주, 별, 그리고 사람 편으로 엮어져 있다. '우주'편에서는 우리 속의 안쪽 자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담겨 있고, '별'편에서는 참 자아와 우리의 의식간의 이야기와 교감, '그리고 사람'편에서는 인간으로서 시인의 목소리가 녹아 있다. 값 7천원.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나탈리 골드버그 지음, 권진욱 옮김, 한문화)= 25년 여간 선과 명상 수행을 통해 터득한 글쓰기 방법론. 글쓴이가 말하는 비밀은 글을 덧붙이거나 보태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기의 법칙'이다. 이러한 독특한 방법은 '비워내기'과정을 강조하는 선수행을 통해 얻어낸 결실이다. 값 9천8백원.

▲근원에 머물기(앤 마렌·도로시 메디슨 편집, 나종근 옮김, 한문화)= 이상과 직관의 벽을 허문 근대 인도의 스승 스와미 비베카난다(1863~1902)의 어록집. 이 책은 미국 전역에 있는 50여명의 베단타 학자들이 비베카난다의 강론, 담화, 서신, 인터뷰 등에서 중심이 되는 가장 요긴한 부분만을 가려 뽑았다. 값 9천8백원.



7년 암자기행 마치며 "암자짓고 철마다 안거"

'암자에는 물 흐르고…' 펴낸 정찬주씨



"산길에 떨어져 구르는 것이 어찌 낙엽뿐일까. 일주문 안으로 들어서니 석양의 햇살도 가랑잎처럼 떨어져 나뒹굴고 있다. 여기가 바로 희랑 스님이 최치원과 시문을 나누었다는 지족암…."

소설가 정찬주 씨가 내놓은 〈암자에는 물 흐르고 꽃이 피네〉(민음사)는 가야산 지족암 일주문에 발을 내디디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 글쓴이는 팔공산 부도암을 거쳐 장성 백암사 운문암에 이르기까지 30곳의 암자를 찾는다.

합천 가야산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의 삼천배가 화두로 살아 있음을, 봉화 태백산 도솔암에서는 성불을 위해 자신의 손가락 열두 마디를 기름불에 태운 일타 스님의 그림자를 또렷이 본다. 그런가 하면 천불의 형상을 이룬 천불동이 한눈에 들어오는 설악산 금강굴, 만리를 불어온 바람에 온갖 약초들이 향기를 풍기는 해발 930미터의 속리산 상고암, 서해의 일물이 동백꽃잎처럼 떨어지는 두륜산 진불암 등에서는 암자 풍광 자체가 하나의 장엄한 설법이라는 사실에 쉽사리 발길을 옮기지 못한다.

글쓴이가 7년여 동안 찾아간 암자는 1백 여곳. 그 결과물이 〈암자로 가는 길〉, 〈길 끝나는 곳에 암자가 있다〉, 〈암자가 들려준 이야기〉이다. 이번에 출간된 책은 암자기행의 완결편인 셈이다. 그래서 이 책에는 그 동안 오지의 암자를 찾기 위해 미루어 두었던 암자들을 중심으로 엮었다.

글쓴이는 이제는 암자기행을 접고 회순 운주사 근처에 암자를 지어 철마다 안거에 들고 만행하는 납자들에게 공양도 올릴 생각이라고 말한다. 그래일까. 이 책에는 그 동안 암자기행과는 달리 '새벽 예불에 띄우는 편지' 18편이 새롭게 수록돼 있다. 성철·법전 스님, 그리고 중국의 초조에서 육조 스님 등에게 띄운 글들이다. 이 글들은 모두 응답이 없다. 하지만 고승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구겨진 삶을 비춰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값 1만2천원.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전통사찰음식	적 문	우 리
2	지대방 이야기	송광사 강원	법 공 양
3	법구경(작은경전1)	지 현	민 족 사
4	영가천도	우 룡	효 림
5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현 각	열 림 원
6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	달라이 라마	문 이 당
7	5박6일 명상체험기	김 남 선	불 광
8	티벳 해탈의 서	파드마 삼바바	정신세계사
9	화두놓고 염불하세	인 광	불 광
10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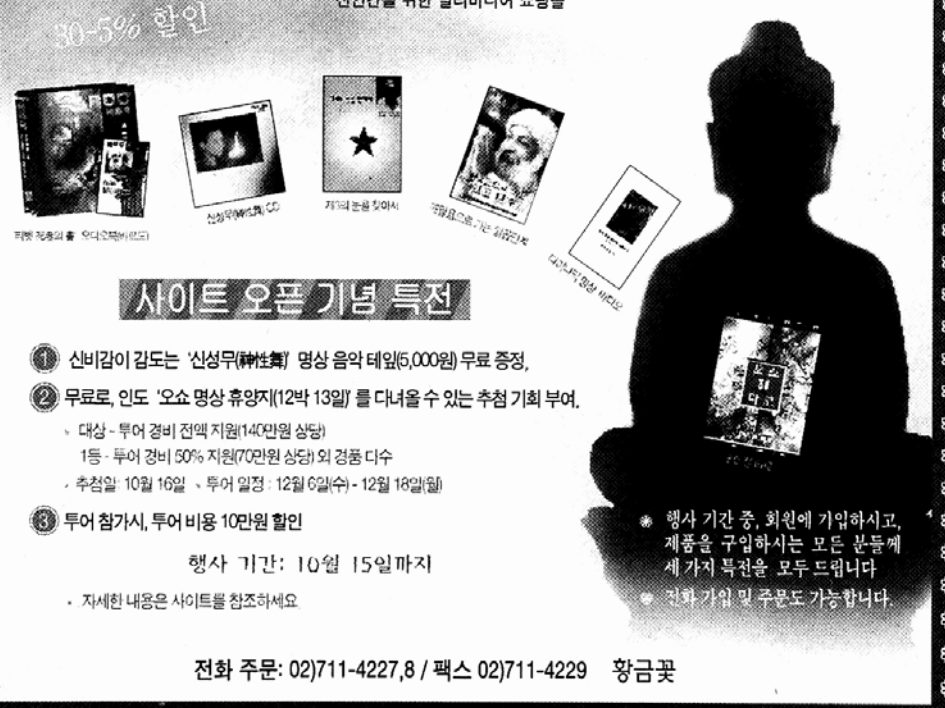
도서 안내:(02)737-0695

신인간이 드러나고 있다!!!

www.goldenflower.co.kr

신인간을 위한 멀티미디어 쇼핑몰

30~5% 할인



사이트 오픈 기념 특전

① 신비감이 감도는 '신성무(神性舞)' 명상 음악 테잎(5,000원) 무료 증정,

② 무료로, 인도 '오쇼 명상 휴양지(12박 13일)'를 다녀올 수 있는 추첨 기회 부여.

- 대상 - 투어 경비 전액 지원(140만원 상당)
  1등 - 투어 경비 50% 지원(70만원 상당) 외 경품 다수
- 추첨일: 10월 16일 - 투어 일정 : 12월 6일(수) - 12월 18일(월)

③ 투어 참가시, 투어 비용 10만원 할인

행사 기간: 10월 15일까지

-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 행사 기간 중, 회원에 가입하시고, 제품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세 가지 특전을 모두 드립니다
* 전화 가입 및 주문도 가능합니다.

전화 주문: 02)711-4227,8 / 팩스 02)711-4229 황금꽃

초기에 스님들은 과연 어떻게 생활하였을까?

초기불교 교단생활

부처님 제세시와 열반 직후의 초기불교 교단 내의 여러 가지 생활 상들을 다양한 전거들을 토대로 정리한 책

출가 및 구족계 제도, 안거와 포살 및 자자제도, 승가의 의식주, 계율, 갈마제도 등 부처님이 제정하신 다양한 제도와 구조, 계율과 생활 모습 등에 대해, 만들어지게 된 동기와 과정, 그것이 가지는 의미와 여법한 절차 및 종류 등에 대해 상세하게 고찰하고 있다.



태원스님 저/신국판양장/348쪽/값 13,000원

밀교란 과연 무엇인가?

밀교학개론

종합불교, 살아 있는 진정한 불교로서의 밀교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조명한 책

밀교의 기본적 특징 및 그 전개과정, 밀교의 핵심 증하나인 다라니와 탄트라의 의미, 밀교의 교판론 및 핵심 교리, 대일여래를 중심으로 한 불신론, 밀교의 상징적 표현인 만다라를 통한 인식론, 밀교의 성불론, 각국에서의 밀교의 전개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밀교에 대한 여러 오해와 편견들을 불식시키고 있다.



중석스님 저/신국판양장/256쪽/값 1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번지 타운힐빌딩 ☎전화 : 3672-7181~5 팩스 : 3672-7186

국내 찬술불서 인터넷으로 볼 수 있다

'한국불교전서' 1·4권 전산화
2005년까지 총 12권 마무리

동국대 전자불전硏, 사기류 전산화도 추진

신라 원측 스님의 〈반야심경찬〉에서부터 구한말 보정 스님의 〈염불요문과해〉에 이르기까지 국내 찬술 불서가 모두 인터넷으로 제공된다.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소장 보광 · 불전연구소)는 20일 '〈한국불교전서〉 전산화 발표회'를 열고, 총 12권의 〈한국불교전서〉 중에서, 먼저 전산화 한 1권(신라편), 4권(고려편)을 공개했다.

〈한국불교전서〉는 26년에 걸친 작업 끝에 동국대출판부가 내놓은 총서로, 신라시대부터 구한말까지의 강백 1백 49명의 현존 저술 2백 61종을 집대성하고 있다. 따라서 불전연구소의 디지털 〈한국불교전서〉 사업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한국의 불서들을 검색 ·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21세기 불교학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작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불전연구소가 이번에 공개한 전산본 1 · 4권에는, 한국불교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 원효 · 지눌 · 의천 스님의 저술들이 포함되어 있어, 불교학계뿐만 아니라 종교학 · 철학 · 역사학계 등 인접 학계의 연구에까지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산본 1 · 4권은 불전연구소의 홈페이지(ebti.dongguk.ac.kr)에서 제공하는 '검색 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하면 열람할 수 있다. 검색 시스템은 '키워드' 검색 외에도 '등록된 키워드 목록으로 찾기', '등록된 페이지 목록으로 찾기', '등록된 제목 목록으로 찾기' 등을 제공한다. 검색 결과물은 인쇄하거나 다운로딩(가져오기)할 수 있다.

불전연구소는 전산본 1 · 4권을 펴내기까지, 지난해 7월부터 〈한국불교전서〉를 화상으로 입력해 이미지 파일로 전환하고, 문자인식 프르그램으로 한자를 인식하고, 탈자와 오자를 교정하고, 이체자를 정자로 변화하는 과정을 밟았다. 특히 컴퓨터에서 제공하지 않는 '누락한자'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처음으로 일본에서 개발한 '문자경' 폰트 체계를 도입했다. 일본의 문자경은 9만여 개의 한자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상에서 한자 입력은 '유니코드체계'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체계로는 2만여 자(字)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불서(佛書) 전산화에는 적합하지 않다. 고려대장경의 전산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고려대장경연구소의 경우, 독자적인 한자 체계를 개발 · 사용하고 있다.

보광 스님은 "전 세계에서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한국불교전서〉를 텍스트로 삼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이 이번 작업의 가장 큰 의의"라며 "한자를 한글 · 영어로 번역하고, 한자 · 해설 사전을 제공하는 등의 후속 작업과 이용자의 편의를 생각하는 전산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전연구소는 〈한국불교전서〉 1 · 4권의 전산화에 이어, 2005년까지 나머지 총서의 전산화를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불전연구소는 총서에서 누락된 사기류의 전산화와 도서관 · 역경원 · 정각원을 연결하는 '동국불교 네트워크'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발표회에 참석한 종림(고려대장경연구소장) 스님은 "불서 전산화의 시작은 기술자들의 몫이지만, 가치 있는 디지털 〈한국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교학자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20일 오전 11시 동국대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불교전서〉 전산화 발표회' 모습.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세계종교연구소

다종교 사회인 미국. 이 곳의 종교들이 서로 반목하기보다는 대화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스님과 신부가 함께 운영하는 세계종교연구소(Institute For World Religions)를 클릭해 보자.

세계종교연구소는 94년 미국에서 열린 국제종교회의장에서 중국 불교계의 삼장 법사인 휴와 스님과 로마 가톨릭의 유빈 추기경이 불교와 가톨릭이 함께 운영하는 종교연구소의 필요성을 공감한 것이, 미국 버클리에 이 연구소를 여는 계기가 되었다.

휴와 스님은 중국의 선불교 선사 중에서 '웨이양' 계열의 스님으로서 1962년 미국으로 건너가 현재 10만 명의 일반 회원이 가입해 있는 '불국토-불교도연합'이라는 단체를 설립해 이끌어가고 있다. 불국토-불교도연합은 미국, 캐나다뿐만 아니라 홍콩, 대만, 말레이지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주로 동아시아 지역의 불교 포교를 위해 사찰과 학교 그리고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세계종교연구소는 버클리에 있는 캘리포니아대 부설 종교학연구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아시아의 토착 종교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연구하는 학자와 연구소 등이 밀집해 있는 샌프란시스코 베이(Bay) 지역의 종교 관련 센터와도 학문적, 종교적, 문화적으로 상호 교류하고 있어 새로운 차원의 종교간의 연구를 도모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스님-신부 운영 종교 화합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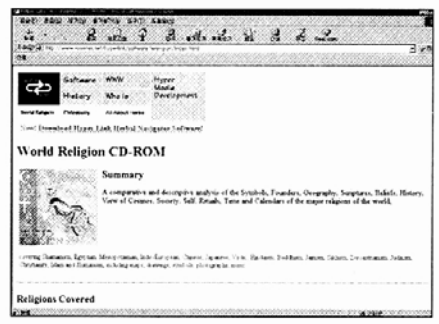
세계종교연구소는 현재 종교적 정신적 지도자와 과학 · 기술 분야의 이론가와의 세미나 개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공개토론회와 같은 일을 주로 진행하고 있다. 이중에는 △美 대학생 명상 지도 △종교 · 과학계의 연석회의 △여성불자 수행 프로그램 보급 △참선 수행 보급 △남방 불교계 후원 △불교 경전 강독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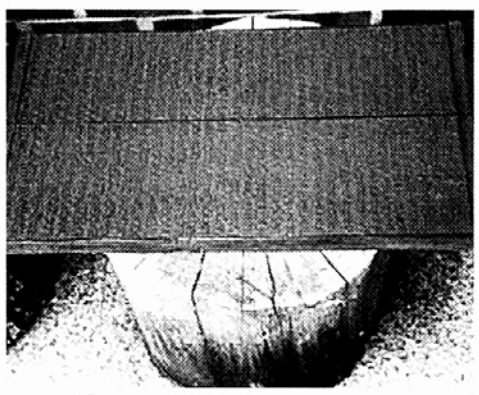
이외에도 세계종교연구소는 유대교, 불교, 기독교와의 정규 대화 시간을 진행하고, 이 사이트에 '종교간 대화'라는 메뉴를 통해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프란체스코 수도원의 신부와 남방 불교계의 비구스님 2명과 '정신적 전통에 대한 도전'을 주제로 종교지도자들의 대화를 열고 종교간 화합의 길을 모색했다.

또 세계 비폭력 단체인 '아힘사'와 △간디와 비폭력의 원칙 △유기체의 새로운 시대 △영성(靈性)과 성(性) △두뇌, 마음, 양심 △창조에 대한 두 가지 견해 △유대교의 신비주의와 현대 물리학과의 대화 등과 같은 주제의 강연회를 개최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http://www.drba.org/iwr__e.htm





◇백운선사가 창건한 쌍운암에서 판각됐다는 목판. '정해 쌍운암 장판'이란 간기가 새겨져 있다. 그러나 정확한 제작연대와 백운선사의 관련부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백운선사 창건추정 절터 발견

직지찾기운동본부, 용인서 수구다라니 목판도 찾아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 초안을 작성한 백운선사(고려 · 1298~1374)가 창건한 것으로 보이는 절터와 이 절에서 판각한 수구다라니 목판이 발견됐다.

청주시민회 직지찾기운동본부(공동대표 김광식 · 장병순)는 19일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쌍령산 일대에서 절터로 추정되는 건물지를 발견했으며, 이 터가 백운선사가 창건한 쌍운암이라고 주장했다. 또 쌍운암에서 판각된 수구다라니 목판을 이 마을 주민 오시준(66)씨가 소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직지운동본부는 〈용주사본말사지〉에 '백운 경한이 쌍운암을 창건했다'는 기록이 전하는 점과 이번에 찾아낸 목판을 근거로 이 절터가 백운선사가 창건한 쌍운암이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쌍운암터는 쌍령산 정상에서 200여m 떨어진 남쪽 능선에서 발견됐으며, 옛 사찰에서 주로 출토되는 당초문양의 암막새 기와를 비롯해 청자조각과 주춧돌로 보이는 유물도 함께 발견됐다.

또 오씨가 소장하고 있는 수구다라니 목판에는 '정해윤사월 양지 쌍운산 쌍운암 장판(丁亥閏四月 陽智 雙嶺山 雙雲菴藏板)'이란 간기가 판각돼 있어 이 목판이 쌍운암에서 보관하던 것임을 보여준다. 직지찾기운동본부는 '정해윤사월'이란 간기와 '임진왜란 때 소실됐다'는 〈용주사본말사지〉 기록을 볼 때 판각시기는 1407~1587년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나옹선사(1320~1376), 보우국사(1301~1381)와 함께 고려말 선승으로 유명한 백운선사의 행적을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 김상현 교수(사학과)는 "확실한 사료적 입증없이 쌍운암을 백운선사와 연결짓는 건 섣부른 판단이다. 또 간기만으론 정확한 목판 제작연대를 알 수 없는 만큼 향후 정밀한 과학적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간화선, 사회의 苦 살필때"

종호스님 강원연합토론회서 주장



"간화선이 한국불교의 수행 전통으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현실의 제반 문제들을 살피고 이를 앞장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종호(동국대 교수) 스님이 강원연합 공개학술토론회에서 '간화선의 역사와 수행법'을 발표하고, 이 같이 주장해 주목된다.

종호 스님에 따르면 현대의 선사들은 모두 개인적인 수행에만 안주하고 있어, 당(唐) 오대의 조사들이 사회 개혁에 참여하거나 정신적 의지처가 되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선불교의 주요 경전인 〈단경〉에서는 수행자를 '구도세인'(求度世人)이라 하고 있고, 〈좌선의〉에서는 수행자에게 '서도중생'(誓度衆生)을 목표로 삼으라 하고 있다. 깨달음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십우도 역시 마지막 '입전수수'(入前垂手)에서 중생의 삶을 바로 보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사회가 앓고 있는 환경 오염, 문화 지체, 가치관 혼란 등 제 문제에 대해, 한국의 선불교는 이러한 문제들이 어디에서 출발하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구체적인 가르침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에서 종호 스님은 "어떤 사상이든 현실에서 존재가치를 가지려면 적극적인 선도(先導)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오늘날 간화선에 제기되는 비판을 무시하기보다는 무엇에 대한 비판이고 요구인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종욱 기자

학술단신

보조사상硏 월례발표

보조사상연구원(실장 인경)은 제31차 월례발표회를 22일 오후 2시 30분 법련사 2층 불일불교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우제선(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박사가 '비로다(virodha)와 불교의 찰나설'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02)733-5311

정영호박사 퇴임논총

한국의 석조미술 연구에 뚜렷한 업적을 나긴 석보 정영호 박사의 〈정년퇴임논총〉(혜안 刊)이 발간됐다. 1천쪽이 넘는 정 박사의 논총은 황수영 전 동국대 총장의 축사와 40여 편의 방대한 논문이 미술사와 역사 · 고고부의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실려 있다.

정보가공요원 모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원장 한상진) 민족문화편찬팀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CD 타이틀로 발간하는 작업에 참여할 정보 가공요원을 모집한다. 업무 내용은 '백과사전 원고 데이터의 가공'과 '도판 설명문 작성 및 자료 정리'로, 각 분야 석사과정 수료 이상인 자 또는 대졸자로서 관련 업무 유경험자면 지원할 수 있다. (031)709-2459

혜초여행개발(주)
HYECHO ADVENTURE TOURS.
대표☎ 733-3900 6263-3900
Fax. 733-3780
www.hyecho.co.kr E-Mail:hyecho@hyecho.co.kr

佛子世界
걸망메고 대륙의 중앙으로....

스포츠 조선과 함께 하는
실크로드 불교 문화탐방 여행 8日 ₩1,349,000
· 일 정 : 서울 - 서안- 양관 - 유원 - 투루판 - 우루무치 - 서안 - 서울
· 포함사항 : 국제선항공료, 국내선항공료, 비자비용, 공항세, 보험, 특급호텔 안내원, 전용차량, 일정상의 전식
· 출 발 일 : 7/28, 8/4, 11,18
■ 5천년 중국 문화의 고도 - 서안 -
■ 불교 벽화예술의 정수 - 돈황 -
■ 황량한 타클라마칸 사막의 오아시스 - 우루무치 -
※단체로 신청 하시면 혜택이 있습니다.

실크로드 (Silkroad)
長安에서...쿤자랍까지 ₩1,690,000
불교전승지인 실크로드 길을 따라
동,서양을 넘나들던 구법승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파키스탄의 국경지대인 쿤자랍까지...
전문 안내인과 함께 다녀오십시오
· 일 정 : 【21박 22일】서안-난주-가욕관-돈황-유원-투루판-카슈가르-타스쿠르간-쿤자랍고개(버스)-우루무치(열차)-서안
· 포함사항 : 항공료, 비자, 숙소, 현지안내인 도시간의 이동, 보상한도 1억원 여행자 보험
· 출 발 일 : 7/31, 8/7 (10명이상 출발)

Tibet
인기
금단의 大地 티벳 걸망여행 ₩990,000
평균고도 4,000를 넘나드는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티벳고원...
스스로 불교 땅임을 자처하는 티벳인들의 삶..... 그리고 히말리아!
時空을 넘나드는 티벳으로의 순례를 시작 하십시오.
· 일 정 : 서울 - 네팔,카트만두 - 히말라야를 넘어 티벳 평원으로 (자유일정)...
· 포함사항 : 국제선항공료(아시아나항공+네팔항공 : 1年 항공권) 중국 및 티벳여행허가서,카트만두 1박
· 출 발 일 : 매주 화,목,토 개별출발

JEEP 타고 티벳평원을 횡단 ₩1,990,000
· 일 정 : 카트만두-라사-장쩌-시가체-시가-장무-카트만두(11박 12일)
· 포함사항 : 항공료,숙박(조식포함),Zeep(4인탑승),중국비자,티벳여행허가서, 사원입장료,영어가이드,보험
· 출 발 일 : 매주 목요일(4명 이상 - 최소규모 출발합니다)
※영국,독일,프랑스,한국 연합상품으로 Zeep 이용조건

전통의 성지순례전문 혜초에서 선보이는
인도 · 네팔 불교성지순례 ₩990,000
부처님의 4대성지인 탄생지, 성도지, 초전법륜지, 열반지 순례및 8대성지 순례.
※ 순례후 카트만두에서 개별적으로 귀국 가능합니다.
(아시아나항공+네팔항공 : 1年 항공권)
· 일 정 : 델리-바라나시(녹야원)-부다가야(성도지)-나란다 불교대학-라즈기르(영축산,왕사성,죽림정사)-파트나-바이살리(대림정사,아쇼카석주)-쿠시나가르(열반사,다비터)-사헤트 마헤트(사윗성, 기원정사)-룸비니-카트만두-방콕-서울(10일간)
· 포함사항 : 1년 항공권,숙소(조식포함),한국안내원,전용차량
· 출 발 일 : 15명이상 수시 출발

※ 10년 전통의 혜초 여행사는 불자와 함께하는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여행사입니다. 후원 : 현대불교신문, 스포츠조선

계, 허물없는 생활도리 제시

혜능 스님의 '재가자 위한 계율' 〈27〉

윤리-1

오계 지키고 게으르지 말도록
육방예경 여섯방위 덕목 밝혀

계율이란 불자로 하여금 나쁜 행위나 법답지 못한 행위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규율을 말한다. 윤리적으로 좋지 않은 것을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욕적 입장에서 제정된 것도 있고, 교단의 통제와 질서 유지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도 있다. 그런데 계율은 행위의 규율이므로 주로 행동과 말씨에 의하여 밖으로 드러난 행위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다. 불자는 이 계율을 지켜서 엄격하고 맑은 수행 생활을 함으로써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얻으려 하는 것이다.

불교 수행의 요체는 계율을 지켜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선정을 닦아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청정한 지혜를 길러 번뇌를 없애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것이 계정혜 삼학이다. 그런데 계에 의해 생활을 청정하게 하지 않는다면 정(定)을 닦을 수 없고, 정이 없이는 참된 지혜가 얻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는 삼학의 근본이요 바탕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또 계는 불자의 생활지침이며, 불교정신이 생활 가운데에서 밖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계는 불자의 상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입멸하시기 전 최후의 설법에서, "나의 입멸 후에는 계를 스승으로 삼아 잘 지키라."고 부촉하신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불교가 살아 있는 곳에 계가 있고, 계가 있는 곳에 불교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재가 불자를 위한 세속의 윤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대표적인 경전으로, 『불설선생경』이 있다. 이 경은 불자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자세와 다양한 인간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하여 아주 명쾌하고 자세하게 설하고 있다. 한역의 이역본으로는 『불설선생자경』, 『불설시가라월육방예경』, 장아함경과 중아함경에 있는 『선생경』, 남전대장경의 『교계싱갈라경』 등이 전해지고 있다.

경의 내용을 남전본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어느 때 세존께서 라자그리하의 대나무숲에 머물고 계셨다. 어느 날 대부호의 아들인 싱갈라는 이른 아침, 왕사성을 나와 머리와 옷을 단정히 하고 합장한 뒤, 동서남북 상하의 여섯 방위에 예배하고 있었다. 그 때 세존께서 탁발하러 가는 길에 싱갈라가 절하는 모습을 보고 물으셨다.

"대부호의 아들이여, 그대는 어찌하여 이른 아침, 이곳에서 절하고 있는가?"

"어진이시여! 제 아버지가 임종할 때에 저에게 '아들아, 너는 날마다 여섯 방위에 예배드려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들어 이렇게 여섯 방위에 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막연히 방위를 숭배하거나 금기시하는 일종의 신앙형태를 보여 주는 예이다.

"대부호의 아들이여, 성현의 가르침에는 이렇게 여섯 방위에 예배해야 하는 것은 없느니라."

"세존이시여, 부디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소서."

이에 부처님은 싱갈라에게 말씀하셨다.

"성스러운 제자가 네 가지 행위의 더러움을 버리고, 네 가지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며, 또 재산을 잃는 여섯 가지 문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이와 같은 열네 가지의 악행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방위를 지키며,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일을 해결하였으며, 육체가 멸한 후에 좋은 곳인 하늘에 태어나느니라."

'네 가지 행위의 더러움'은 중생을 죽이는 행위,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행위, 애욕에 의한 삿된 행위, 거짓말하는 행위가 그것이다. 또 '네 가지 악한 일'은 탐욕·노여움·어리석음과 겁에 질려 그릇된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재산을 잃는 여섯 가지 문'은 게으름의 원인이 되는 술과 같은 것에 빠지거나, 때 아닌 때에 거리를 돌아다니거나, 구경거리나 도박 따위에 빠지거나, 나쁜 벗과의 교제에 빠지거나, 나태함에 빠져 지내는 것을 말한다.

이어 부처님은 여섯 방위에 대해 동쪽은 부모님, 남쪽은 스승, 서쪽은 아내와 자식, 북쪽은 친구와 동료, 아래는 고용인, 위는 수행자라 하시며 각 방위에 해당되는 덕목을 일러 주신다.

먼저 다섯 가지 방법으로 자식은, 양친이 나를 양육했으므로 그들을 봉양하고, 그들을 위하여 해야할 일을 하고, 가계를 존속시키고, 재산 상속을 하며, 조상에게 적당한 때 공물을 바쳐야 한다. 이에 대해 양친은 자식을 악으로부터 멀게 하고, 선으로 인도하며, 기능을 학습시키고, 적당한 아내를 맞게 하고, 적당한 시기에 상속시켜야 한다.

자식은 이렇게 동쪽에 해당하는 부모님께 봉사해야 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 한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동쪽은 지켜질 것이며, 편안해지고 근심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 한다.

〈해인총림 율원장〉

"나와 남 더불어 이익 상생이 곧 대승의 길"

법회증계

법화경법회

〈2000년 7월 18일〉



진옥스님

〈여수 석천사 주지〉

번뇌는 아상에서 생겨나
아집없는 내 빈모습 볼때
너와 내가 둘 아닌 하나

더불어 사는 길이 대승의 길입니다. 나 개인을 위한 수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남을 위한 수행의 삶이 곧 대승의 길이라 하겠습니다. 남을 이익 되게 하는 게 곧 나의 이익임을 깨우치는 것이 대승불교의 첫걸음입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된다거나, 남의 행복은 나의 불행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기는 것은 중생심일 뿐입니다. 이를테면 도둑질을 하면 잃는자는 불행하고 훔친자는 이익일 것 같지만 이는 양쪽 모두 중생심을 일으켜 박복(薄福)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승은 더불어 같이 이익을 보는 상생(相生)의 길입니다. 보살이라는 수행자의 이상형을 통해서 육바라밀을 성취하여 깨달음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가장 성스러운 불자의 길인 셈입니다.

수행에 있어 발심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발보리심(發菩提心)은 중생이 한없이 많더라도 끝끝내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자비심의 발로입니다. 오욕심으로 살아온 그동안의 삶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보살의 길로 나아가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원으로 이어지는 것이 발심입니다. 이러한 발보리심은 내가 수행해서 성불하겠다는 생각이 전제 되어서는 안됩니다. 모든 중생들이 성불하여 부처가 될 때까지 그들을 받들겠다는 철저한 하심으로 아상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성취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번뇌는 아상(我相)으로부터 나옵니다. 나를 세우기 때문에 남이 생기고 이에 따라 갖가지 애착과 증오의 마음을 일으켜 수많은 윤회의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마경〉의 가르침처럼 보살에게는 '너'와 '나'의 구별이 없습니다. 이처럼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원효는 이런 아상을 죽이기 위해 모든 상(相)을 버리고 스스로를 복성거사(卜星居士)라 칭했습니다. 복은

시방세계

반야불교사
불사의 모든일 정성껏 하겠습니다.
031)905-6368 / 011)9934-3512


대장경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을까

대장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남해 관음포 갯벌에
3년간 묻어둔 통나무
경판크기로 試料 채취
미생물 · 판재등 상태분석
대장경 판각지 등 연구



◇경북대 박상진교수(사진 왼쪽)는 '대장경판용 목재는 통나무 상태가 아닌, 판재로 가공한 것을 바다에 넣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장경문화학교가 3년전 침수시킨 목재에는 원목 외에도 실험용 판재 등이 섞여있다.

완만한 선으로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이루던 해안이, 한 포구에 이르러 커다란 반원을 그린다. 이순신 장군의 최후의 격전지(노량해전)로 유명한 이 곳은 경상남도 남해군 관음포. 16일 오전 10시, 대장경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안준영 교장, 경북대에서 임산공학을 연구하고 있는 박상진 교수, 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 종림 스님 등 60여 명이 모여, 바닷물을 초조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갯벌이 드러나는 물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이번 밀물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팔만대장경의 제작 과정을 재현하고 당시의 경판 제작 방법과 장소를 밝히기 위한 첫 발을 이 갯벌에서 나딛기 때문이다. 갯벌에는 97년 4월 남해군의 협조를 받아 묻어 둔 3톤 분량의 통나무들이 있다.

나무의 종류는 경판을 만드는 데 사용된 것으로 밝혀진 산벚나무, 돌배나무, 자작나무, 층층나무, 단풍나무 등 7종. 하나같이 구전으로만 전해오는 팔만대장경의 제작 방법과 장소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재료들이다.

팔만대장경은 고려 고종 때 몽고의 침입을 부처님의 힘으로 막아보고자 당시의 임시수도였던 강화도에서 자작나무에 새겨 보관하다가, 조선 태조 7년에 해인사로 옮겨온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장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많은 의문과 모순이 있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경판의 판재는 최근까지도 '자작나무'로 알려져 왔지만, 경판 2백여 장을 표본추출하고 전자현미경으로 판재의 세포 조직을 분석한 박 교수에 따르면 산벚나무(135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돌배나무(31개), 자작나무(18개) 등의 순으로 밝혀졌다. 70년대 말부터 해인사 관전 입구에 '경판을 만든 자작나무'라는 설명과 함께 통나무를 전시해 온 탓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판은 자작나무로 만들었구나"하고 의심 없이 받아들인 것이다.

안 교장은 "팔만대장경에 대한 문헌 기록은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이규보의 '대장각판군신기고문', '대장경판의 간지' 등이 전부인데, 그 표현이 애매해 '대장경 판재' '제작 과정' '판각지' 등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오전 11시 40분, 굴삭기 1대가 갯벌로 서서히 들어서더니, 갯벌 속에서 통나무를 건져내기 시작했다. 40분 남짓 경과하자 갯벌에는 거무튀튀한 50여 개의 통나무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이어서 포구 한 귀퉁이에 미련된 보관소로 옮겨졌다. 보관소는 바닷물을 잔뜩 먹은 통나무를 자연 건조시키기 위해 갯벌 인접 지역에 10평 크기로 마련됐다.

갯벌에서 캐낸 통나무를 실은 트럭이 포구를 돌아 보관소에 도착하자, 박 교수와 안 교장 의 손길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대장경문화학교 회원들은 탕개톱으로 통나무를 잘라 시료(試料)를 만들고 또 경판 크기의 판자 30여 장을 만들었다. 대장경의 '제작 과정' '판각지' 등을 밝히는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남해의 갯벌에서 파낸 경판용 통나무들



◇탕개톱으로 자작나무에서 실험용 시료를 자르고 있는 대장경문화학교 회원들.

이 작업은 대장경문화학교와 경북대 · 충남대 · 순천대 연구소에서 각각 진행된다. 대장경문화학교에서는 두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하나는 보관소에서 만든 판재를 대장경문화학교로 가져가, 소금물에 삶아 건조한 뒤 판각한다. 또 하나는 통나무를 그 자체로 자연 건조시킨 다음 판재로 가공해 판각한다.

대장경문화학교에서 진행하는 두 방법은 모두 전통의 것인데, 학교측은 두 과정을 진행하면서 '판재의 뒤틀림'과 '판각의 적절함' 등을 비교, 팔만대장경 제작과정을 밝힐 계획이다. 두 방법 중에서 보다 나은 방법이 당시에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 것이다.

구전에 따르면 나무를 베어 바닷물에 3년을 침수시켜 소금물로 삶아서 건조한 다음 경판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안 교장은 "통나무 자체를 소금물에 삶는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로 보고 있다.

또한 대학 연구소에서는 이번에 채취한 시료를 이용, 대장경판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시작한다. 전자현미경으로 경판 나무의 세포 조직을 판독해 판재의 주요 수종의 밝혀냈듯이, 화학과 미생물학을 이용하면 자연 혹은 소금물 건조에 따른 판재의 강도와 팔만대장경판의 강도를 비교해, 대장경의 제작 과정을 밝힐 수도 있고, 건조 후 판재에 남아 있는 미생물과 판재의 상태를 분석하면 '판각지'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강화도 판각설이 가장 인정받는 학설이지만, 해인사에서 새겼다는 '재래설', 강화도 경판과 해인사 경판이 따로 있었다는 '2벌설', 분사대장도감이 있었던 '남해 판각설', 주요 사찰에서 나누어 새겼다는 '분산 판각설' 등의 이설(異說) 역시 강하게 거론되고 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팔만대장경이지만, 어디에서 어떤 과정을 밟아 만들어져 오늘날 해인사에 있게 되었는지는 아직도 베일 속에 가려져 있는 것이다.

대장경문화학교 안준영 교장은 "8만1천여 장의 대장경판이 8백년이 지나도록 변형되지 않는 신비를 벗기기 위한 준비를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했다"며 "3년쯤 이후 1차 연구 결과가 나오면, 팔만대장경과 관련된 '구전' '가설' 등의 진위 여부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gobaocu@buddhapia.com)

숫자로 보는 대장경 경판

경판의 길이는 78, 75, 73, 70, 68㎝의 5종류가 있다. 이중 78㎝의 경판이 약 절반 정도이고 68㎝ 경판이 약 3분의 1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경판의 길이가 78이나 68㎝로 생각할 수 있다. 나머지는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경판의 너비는 대부분 23~25㎝의 범위에 있고, 반수 이상은 24~25㎝ 사이에 있다. 따라서 경판의 평균 너비는 24㎝로 볼 수 있다. 경판의 두께는 대부분 2.6~3㎝의 범위에 있고 3.1㎝ 이상과 2.5㎝ 이하는 극소수에 불과해, 평균 2.8㎝로 추정하고 있다. 경판의 무게는 경판에 따라 그 변동이 매우 심하다. 최소의 무게 2,312g에서 최고 4,444g까지 거의 2배에 달하는 중량의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판은 2.6~3.6㎏으로 평균 3.4㎏이다.

길이 68~78㎝
너비 23~25㎝
두께 2.6~3㎝
무게 2.6~3.6㎏

경판 한 장에 새겨진 글자 수는 23행 14자로 보아 계산하면 한 쪽 면에 322자, 양면은 644자이다. 팔만대장경의 총 글자 수는 644자에 경판 총 매수 81,258장을 곱하면 되는데, 5천 2백만 자 안팎이 된다. 물론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한쪽 면만을 새긴 경판도 있지만, 글자 수 추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또 판각수가 하루에 새길 수 있는 글자가 약 30~50자라고 했을 때, 보통 한 장을 새기려면 13~21일이 소요되고, 장인 수는 연인원 131만명이 동원된 셈이다. 글자 한자의 크기는 가로 세로 1.5㎝ 정도이며 한 획의 두께는 1.5㎜이다. 또 글자의 판각 깊이는 1.6~2.3㎜의 범위이나 평균 2㎜로 현존하는 다른 경판보다 훨씬 깊어서 인쇄의 질이나 반복 인쇄시 작업이 완활하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 · 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성철 대선사 기념 메달
『우리 곁에 다녀간 부처』
성철 대선사 기념메달 보급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참 뜻만 깨쳐도 우리는 이미
큰스님과 함께 삼법인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소재 : 황동(순금도금) ■직경 : 80㎜ ■가격 : 5만원
■판매 : 인터넷 ■교 백화점 마하몰 ■제조 한국조폐공사
•전화:02-732-1522 / 737-8881 •팩스:02-737-0697 •인터넷:http://www.mahamall.co.kr

Bio 황토방 원적외선 온열요법 침대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건강 잠자리로 바꿔주세요!!
이제 편안한 잠자리로 보약을 드십시오.
좋은 잠자리는 보약입니다.
건강한 잠자리에서 희망찬 인생이 시작됩니다.
리빙스톤 "요람 침대"
1300℃ 에서 구운 특수 바이오 황토 · 세라믹
특 징
① 젖먹이 유아부터 수험생 신혼부부, 노년층까지
②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뜨끈뜨끈하게…
③ 유해전자파, 수맥파괴, 먼드기 공포에서 완전 해방
④ 침대 바닥에서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실용신안 특허등록 (제 0188136호)
자매품 게르마늄 물침대
리빙스톤
☎ 02)424-9427/2203-7821
최고의 한약침 바로 그 침대! 최고의 한방침 바로 그 침대! 최고의 광석침 바로 그 침대!

다시 푸는 경전

달마 관심론(觀心論) ⑧

以大慈悲憐憫一切故 於淸淨法體中
이대자비연민일체고 어청정법체중
流出如是三聚淨戒 六波羅密
유출여시삼취정계 육바라밀
微妙法乳 乳養一切求解脫者
마묘법유 유양일체구해탈자
飮如是淸淨之牛 淸淨之乳
음여시청정지우 청정지유
非獨如來飮之成道 一切衆生
비독여래음지성도 일체중생
若能飮者 皆得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
약능음자 개득성아뇩다라삼먁삼보리
又問曰 佛說經中 令衆生修造伽藍
우문왈 불설경중 영중생수조가람
鑄寫形像 燒香散花 燃長明燈
주사형상 소향산화 연장명등
日夜六時行道 持齋禮拜
일야육시행도 지재예배
種種功德 皆成佛道 若唯觀心
종종공덕 개성불도 약유관심
攝諸行 說如是事 應虛妄也
총섭제행 설여시사 응허망야

대자비로 모든 중생을 가엾이 여겨 청정한 법체에서 이러한 삼취정계와 육바라밀의 미묘한 법유(法乳)를 흘려 내리게 해서 해탈을 구하는 이들을 법유로 기르시니, 이와 같은 청정한 소

又鑄寫形像者 卽一切衆生
우주사형상자 즉일체중생
求佛道也 所謂修諸覺行 假像如來眞
구불도야 소위수제각행 가상여래진
容妙相 豈道鑄金銅之所作也
용묘상 기도주금동지소작야
是故求解脫者 以身爲爐 以法爲火
시고구해탈자 이신위로 이법위화
以智慧爲工匠 三聚淨戒 六波羅密
이지혜위공장 삼취정계 육바라밀
以爲模樣 鎔鍊身中眞如佛性
이위모양 용련신중진여불성
遍入一切戒律摸中 如敎奉行
변입일체계율모중 여교봉행
一無缺漏 自然成就眞容之相
일무결루 자연성취진용지상
所謂 究竟常住微妙法身
소위 구경상주미묘법신
非是有爲敗壞之法 若人求道
비시유위패괴지법 약인구도
不解鑄寫眞容 憑何輒言成功德也
불해주사진용 빙하첩언성공덕야

대답했다. "경전은 무수한 방편으로 되어 있다. 중생들은 근기가 둔하고 지혜가 부족하여 깊은 뜻을 알지 못하므로 유위(有爲)의 일로 무위(無爲)의 이치를 나타낸 것이다. 만약 안으로

몸 가운데 진여불성 녹여서
계율의 틀에 넣으면 '眞容의 모습'

의 청정한 우유를 마시면 비단 부처님만 그걸 드시고 성도(成道)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도 마시기만 하면 위없이 바르고 참된 도를 얻게 된다."

다시 물었다. "경전에는 '중생이 절을 짓고 성상(聖像)을 세우고, 향을 사르고, 꽃을 뿌리고, 장명등을 켜고, 밤낮으로 여섯 차례나 행도(行道)하고, 재계(齋戒)를 지키며, 예배를 올리는 등 여러 가지의 공덕을 닦으면 불도를 이룬다' 하셨는데, 오직 관심법(觀心法)에 모든 수행이 포함된다 하시니 이건 전혀 허망한 말 같습니다."

答曰 佛所說經 有無量方便
답왈 불소설경 유무량방편
以一切衆生 鈍根狹劣
이일체중생 둔근협열
不悟甚深之義 所以假有爲事
불오심심지의 소이가유위사
喩無爲理 若復不修內行 唯只外求
유무위리 약부불수내행 유지외구
希望獲福 無有是處 言伽藍者梵音
희망획복 무유시처 언가람자범음
此言淸淨處也 若永除三毒 常淨六根
차언청정처야 약영제삼독 상정육근
身心湛然 內外淸淨 是則修伽藍也
신심담연 내외청정 시즉수가람야

수행하지 않고 밖에서 복을 얻으려 한다면 옳은 처사가 아니다. 가람이란 범어의 음략(音略)인데 청정처란 뜻이다. 만약 삼독을 영원히 없애고 항상 육근이 깨끗하며,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여 안팎이 청정하다면 이것이 가람을 짓는 것이다. 또한 불상을 조성하는 것은 중생들이 불도를 구할 때, 말하자면 각행(覺行 : 自覺·覺他하는 행법)을 닦을 때에 여래의 참되고 묘한 모습을 허상으로 반영한 것이지 어찌 법을 금동(金銅)으로 주조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해탈을 바라는 자는 몸으로 불가마를 삼고, 법으로 불을 삼고, 지혜로 공장(工匠)을 삼고, 삼취정계와 육바라밀로 모양을 삼아 몸 가운데 있는 진여불성(眞如佛性)을 녹여서 계율의 틀에 넣어 하나도 빠뜨림 없이 가르침대로 행하면 절로 진용(眞容)의 모습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말하자면 허물어지는 유위법이 아니라 영원히 상주하는 절대진리의 미묘법신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도를 구하면서도 이러한 참된 진용(眞容)을 조성하고 그리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무엇으로 공덕을 이룬다 하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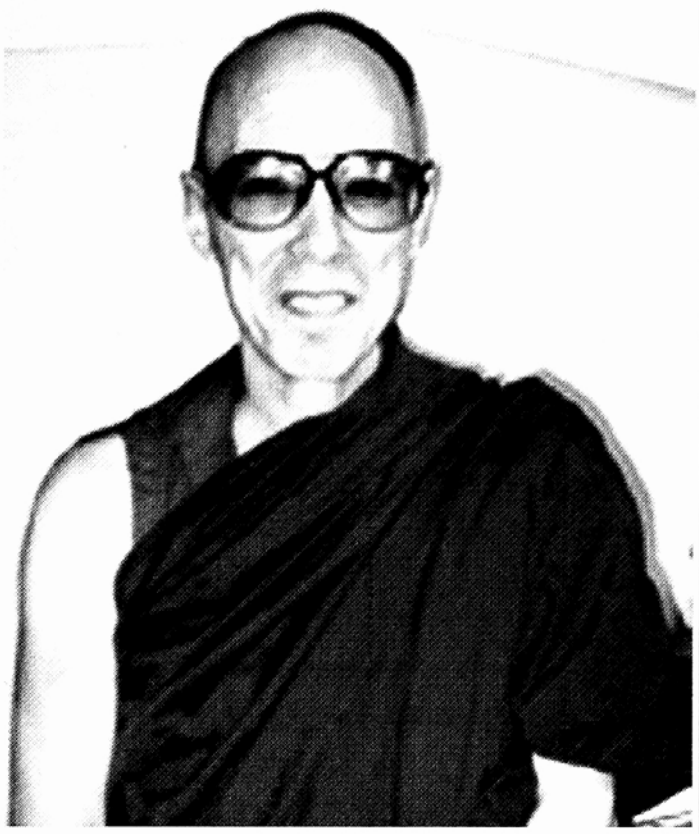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큰 스님과의 대화 여름특집 해외고승편 I

삼복 더위가 기승을 부려 매사가 더욱 짜증스럽게 느껴지는 이때, 세계의 불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해외 고승들의 청량한 법문을 듣는 자리를 4회에 걸쳐 마련한다. 이번 호에서는 벽안의 비쿠 보디(Bhikkhu Bodhi) 스님에게 우리가 고(苦)의 사바세계에서 벗어나 불국정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 가르침을 청했다.

비쿠 보디〈스리랑카 불교출판회장〉

"욕망때문에 정신적 능력 발휘못해요"



비쿠 보디 스님은 미국의 브루클린에서 태어나 브루클린 대학과 클래어몬트 대학에서 각각 서양철학을 공부하고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2년 스리랑카에서 출가한 스님은 주로 아시아와 북미주 대륙을 오가며 남방불교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글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The Way to the End of Suffering)'을 주제로 한 스님의 법문을 대담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고통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오염되고, 전통의 가치관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항상 행복을 추구하지만 우리의 삶이 이러한 고통에 직면하게 된 까닭은 어디에 있는지요?

▲경전 중에는 이 세상과 사회의 진화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최초의 인류의 몸은 마음으로 만들어졌으며 빛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류가 지극히 향기로운 어떤 것을 맛보게 되자 마음에서 욕망이 생겨났고, 그 결과 그들의 몸은 점점 둔탁해 졌다고 합니다. 몸의 빛 역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감각적 욕망 때문에 우리의 높은 정신적 능력을 잃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모습을 욕망으로 생긴 고(苦)에 묶여 옴짝달싹 못하는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빠알리어 경전에서는 삼요자나(결박), 반다(족쇄), 파싸(덫) 등을 비유적으로 사용해, 인간이 윤회의 삶에 묶여있는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 비유에 의하면 검은 소와 흰 소가 한 밧줄의 양끝에 묶여있는 상황에서는 검은 소가 흰 소에 묶여 있다거나 흰 소가 검은 소에 묶여 있다고 말할 수 없지요. 이때 족쇄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밧줄 그 자체입니다. 이 말은 즉 외부세계가 인간의 족쇄도 아니며 인간이 외부세계에 대해 족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도 외부의 대상 세계에 묶어놓는 족쇄는 바로 욕망입니다. 욕망은 아주 힘이 강해 인간을 외부 대상 세계에 꽁꽁 묶어놓아 끊임없이 생과 사의 쳇바퀴를 맴돌게 합니다. 이 강력한 족쇄는 눈·귀·코·혀·몸 그리고 정신적 기능이라는 여섯 가지의 감각기능이 만들어낸 것이지요.

감각기능에 해당하는 빠알리어는 인드리야(indriya)인데, 이 단어는 우리 인간들의 처지를 여러 모로 시사해 주는 아주 흥미로운 말입니다. 인드라(Indra)는 군림자 또는 왕을 뜻하는데, 감각기능을 인드리야라고 부르는 것은 그만큼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뜻이지요. 눈은 항상 즐거운 현상을 보고 싶어하고, 귀는 즐거운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코는 좋은 냄새를 맡고 싶어하고, 혀는 즐거운 맛을 누리려 하고, 몸뚱이는 즐거운 감촉대상을 느끼고 싶어한다는 사실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잖아요.

이처럼 여러 감각기능을 조화롭게 일체화시켜야 하는, 여섯 번째의 감각기능 즉 정신적 기능은, 서로 다른 이질적 감각 자극들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이끌려 다니느라 몹시 어지럽지요. 그런 가운데도 자기 고유의 몫인 희망·기억·상상 따위의 형태로 마음을 더욱 교란시킵니다.

―스님께서는 현대인이 안고 있는 고(苦)의 근원에는 여섯 가지의 감각 기능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육근(六根)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육근에서 비롯되는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일러주십시오.

▲우리가 감각적 자극에 얽매이게 되는 것은 탐욕 때문이예요. 우리는 즐거운 대상을 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눈을 즐겁게 해주는 대상을 가능한 한 많이 조달하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정력과 돈을 쓰지요. 우리는 즐거운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한번 우리를 칭찬했다면, 우리는 즐거이 그 말을 종종 회상하게 될 것이며, 그 즐거움에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합니다. 잘 먹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때도 있는데, 우리는 혀를 즐겁게 해주려는 욕망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생명에 닥칠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그 음식에 탐닉하는 적도 있지요.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인간의 욕망 또한 아주 강해서 심지어 성병에 걸려 고통받고 무력해질 그 엄청난 위험마저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이런 곤경은,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쓰여온 비유 즉 '맛있는 꿀을 마음껏 즐기려다 꿀통 속에 빠져 죽어가는 개미'로 설명됩니다. 우리는 탐욕에 의해 속박되는 바로 그만큼, 혐오감이나 증오의 함정에도 빠질 수 있어요. 혐오감은 불쾌한 감각적 자극 때문에 생겨납니다.

약 력

- 미국 브루클린 生
- 브루클린대학 및 클래어몬트대학에서 서양철학 전공
- 1972년 스리랑카에서 출가
- 올 5월 15일 국제연합(UN) 뉴욕본부에서 열린 첫 봉축법요식 증명 법사
- 現 스리랑카 불교출판회 회장
- 주요저서 〈아비달마 철학 입문서〉
- 〈부처님의 중도 담론〉 등 다수

혐오감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는 불쾌한 대상에 더욱 더 강하게 속박당하게 되는 법이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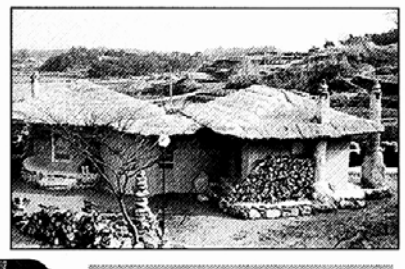
한 예를 들어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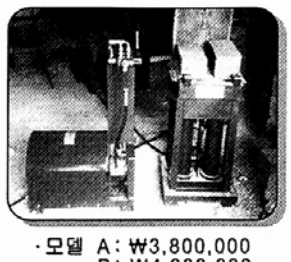
식사를 하기 바로 전이나, 하는 도중에 어떤 메스꺼운 것을 보았다고 칩시다. 그것에 대한 혐오감이 극도에 달해서 심지어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조차도 거부하게 될 지 모릅니다. 이처럼 감각기관들을 매개로 생겨나는 탐욕과 증오에 사로잡히게 되면 인간의 활동영역은 명확한 한계선이 그어지면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마치 밧줄에 매인 짐승의 행동반경이 밧줄의 길이 안으로 제한당하는 것과 같아요. 이때 그에게 있어서 밧줄을 맨 기둥 노릇을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모델 A: ₩3,800,000
B: ₩4,300,000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3)634-0223
팩스 : 063)34-1237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36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학인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작 법 반(6개월)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 등
· 신행과정(6개월)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00년 8월 24일까지
◆개강일시 : 2000년 8월 25일 오후 5시
◆제출서류 :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반명함판 사진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 · 서신 문의하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2000학년도 2학기 한성대사회교육원
불교종무행정 고위자 과정반(4기생) 모집 안내

삼보에 귀의 하옵고,
한성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는 날로 날로 발전하는 불교 종무행정 고위자 과정반을 지난해 3월에 개설하여 지금까지 1·2·3기생 110명을 교육하였고 이번 학기에 4기생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불교행정의 현대화를 위한 지식을 전수 각종 행정 기술의 습득은 물론 현대 사회의 시사문세 등을 사계의 권위자들을 모시고 심층분석 강의해 드리고 있습니다.

· · · 아 래 · · ·

1. 수업기간 : 불기 2544년(2000년) 9월 19일 ~ 12월 19일
2. 강의 요일 및 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5시까지
3. 모집인원 : 남·녀 40명
4. 자 격 : 불교 종무행정 관계자나 종무행정에 관심 있는 분으로서 연령·학력·교파 제한 없음.
5. 수 강 료 : 1인당 30만원(1학기)
7. 제출서류 : 본원 소정양식 1부, 사진 2매 (학생증용)
5. 접수기간 : 2000년 7월 20일부터 ~ 8월 10일까지 (선착순 마감)
※전화 및 우편접수 가능함
6. 문 의 처 : 한성대학교 사회 교육원 교학과
서울 성북구 삼선동 2가 389 전화 02-760-4401,4003 FAX 760-4002

■ 교통편 : 지하철 4호선 한성대 입구역 하차, 도보로 5분거리임.
'마을버스 5분마다 운행.
※ 1기생(2년과정)졸업예정자들은 졸업준비 위원회에 연락을 해주시고 휴학생들은 이번 학기에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4학기 졸업기념 여행준비 및 앨범제작)

이번 학기 개설 강좌내용

과 목	내 용
불교종무행정이론실천	불교종무행정에 관한 이론적 영역과 실천적 영역을 강의함
사찰운영을 위한 컴퓨터 강좌	사찰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활용기법과 정보체계를 강의함(컴퓨터 기초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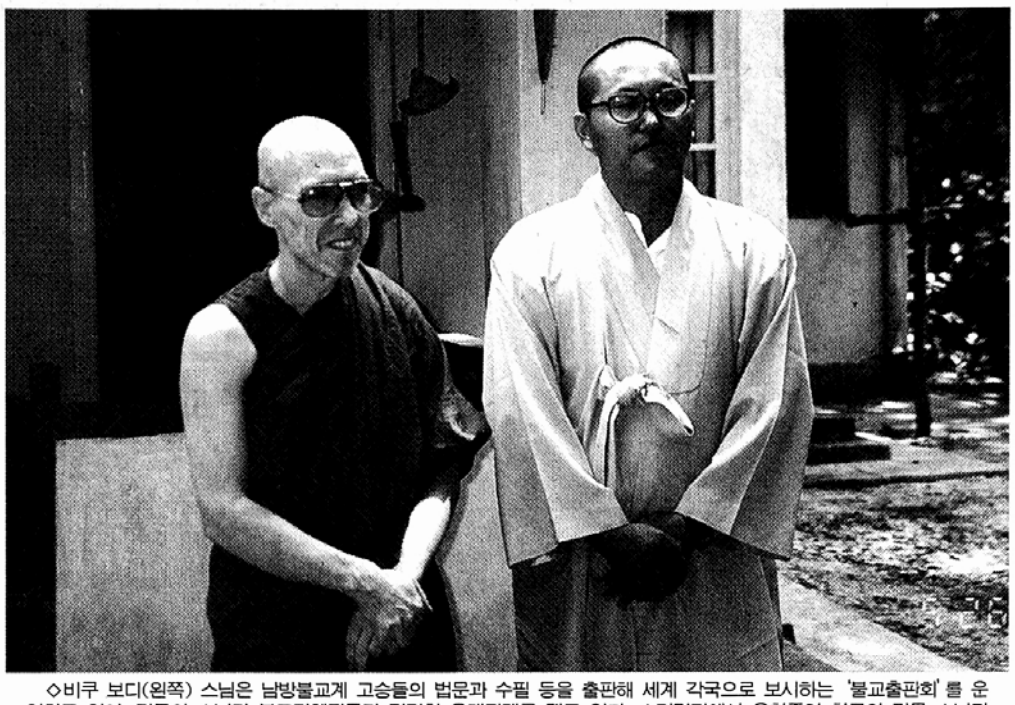
※ 2년 과정을 수료한 분들에게 종정명의의 불교 종무행정사 자격증 수여예정

한성대학교 사회교육원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이기주의이지요. 우리 모두가 '나' 또는 '자아'라는 관념에 매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아관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더욱 더 이기적이 되며, 또 우리가 이기적이 되면 될수록 우리들의 욕망, 좋다 싫다 하는 감정도 더욱 세차게 자라납니다. 우리는 점점 더 이러한 악순환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지요.

욕망의 밧줄이 강해지면, 밧줄 그 자체는 더욱 짧아지고 그와 비례해서 인간의 행동의 자유도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강한 자아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너무 단단하고 짧은 밧줄에 묶여 질식하고 있는 동물과 같습니다. 이 욕망이라는 밧줄의 성질이 그와 같기 때문에 좋다 싫다 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약해지면 밧줄 그 자체도 약해질 뿐 아니라 길게 늘어나서 인간이라는 동물에게 더욱 넓은 행동의 자유를 부여해줍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약해질 때 긍정적인 감정, 즉 사랑과 연민이 생겨나서 인간의 자유의 영역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불교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르침을 한 말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인간을 자기중심적 성향, 부정적 감정, 무지 라는 속박으로부터 구출해 내어 완전하고도 무제한한 자유를 누리게 만들어



◇비쿠 보디(왼쪽) 스님은 남방불교계 고승들의 법문과 수필 등을 출판해 세계 각국으로 보시하는 '불교출판회'를 운영하고 있어, 각국의 스님과 불교단체장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스리랑카에서 유학중인 한국의 각묵 스님과 함께 한 비쿠 보디 스님.

자기 마음의 통치자가 되세요

부처님 법 실천만이 완전자유

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든 비유로서 설명하자면 동물을 묶은 밧줄을 모조리 끊어버리고 기둥도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따르기에는 너무나 혼탁합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고, 또 우리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유혹에 빠져들고 있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방일과 습으로 인해 삶의 방식을 바꾸질 못합니다. 삶을 전향적으로 바꾸는 길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짧은 한 생애에서 잘못 때문에 영원히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식의 잔인한 발상은 불교에는 없습니다. 또 형식적인 회개 행위나 사람이 지어낸 그 허다한 신 중 하필 어떤 특정한 신만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씻게 된다는 따위의 불공평한 교의도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또한 벌을 내리는 인격적인 심판자도 없습니다. 단지 인과법칙만이 있을 뿐이지요. 이 점은 특히 중요한데 어떤 심판자도 심판을 하다 보면 공정성과 자비로움 중 하나는 어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동시에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만일 냉혹하리만치 공정하다면 자비롭다고 할 수 없게 되며 또 죄인에게 자비롭다 보면 철저히 공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성질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불교를 배우면 자연의 법칙이 얼마나 비할 데 없이 공정한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를 모르는 것 또한 고통과 무명의 결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감각의 대상을 즐기는 탓으로 우리가 빠지게 되는 또 다른 함정입니다.

감각적 쾌락을 척도로 상황을 재기 시작하면 점점 더 자기 본위적으로 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로 갖가지 컴플렉스 증세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감각적 쾌락을 '마라(악마·Maara)의 덫'이라고 하셨습니다. 감각기능들이 제어되지 못했을 때 마음은 타락하게 되고, 감각대상을 즐기는 데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렇게 타락한 마음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고양시켜줄, 보다 고상한 추구노력에 담긴 기쁨 즉 빠못자(paamojja)를 찾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정신적 즐거움인 빠아못자가 없을 때 종교적인 경건한 즐거움도 없게 되고, 이 경건한 즐거움이 없을 때 육체적 정신적인 휴식도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쉴 수 없는 사람은 세상을 원망하며 긴장과 좌절과 불행 속에서 살아갑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감각기능의 매개에 의해 자기 자신의 개인적 세계를 짓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위에 든 모든 얘기는 결국 우리가 자신의 감각기관에 지배당한 탓으로 윤회의 함정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감각기관에 대해 고삐를 풀어주는 것은 바로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됩니다. 허용해주면 그 정도만큼 굴레와 괴로움도 커질 것이다. 진정으로 자유와 행복을 원한다면 이 감각기관들을 복속시켜 우리의 하인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경전에 따르면 업에 의해 세계는 존재하고 업에 의해 인간은 존재한다고 했는데, 이 말을 좀더 직접적으로 바꾸면 "우리의 생각이 세계를 지속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본래의 고유한 힘을 다시 찾아야 한다. 우리 자신을 둔탁하게 만든 욕망에서 벗어나, 최초의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빛을 찾아야 해요.

—결국 탐·진·치 삼독을 끊고 본연의 '마음자리' 찾기가 해결의 열쇠이겠지요. 고통과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삼독이 잠재된 형태로도 남아날 수 없도록 완전히 뿌리까지 뽑아 버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쫓겨나지 않을, 확고 부동한 주인의 자리를, 그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찾아서 앉게 됩니다. 이제 그는 자기 마음의 통치자입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안에 그 무엇도 그의 청정한 마음의 해탈심을 앗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속적인 것들과 어울려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을지언정 세속의 영고성쇠를 떠나 완전한 평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설혹 유쾌한 대상이 인식 범위 내에 들어와도 그는 그것들에 마음이 끌리지 않으며 고통스런 대상이 들어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양쪽을 모두 그는 평온에 관하면서 그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습을 주시할 뿐이지요. 이끌리고 배척하기의 순환 노름을 그 기반에서부터 부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에는 금 한 덩어리나 흙 한덩어리가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는 오랜 각고의 노력으로 얻어 낸 자유를 향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괴로움에서 벗어났으니 번뇌가 근절되면서 어떤 슬픔도 비애도 그의 마음에 범접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탐욕이라곤 흔적도 없는 순전한 법열만이 거기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질병에서 벗어났으며, 마음을 얽어묶는 저 열정이라는 발열성의 성가신 병에서도 벗어나고, 윤회의 병에서도 벗어나 번뇌, 업지음, 과보받음의 악순환도 벗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 무시 이래로 반복되어 온 생사의 기나긴 행렬을 끝맺음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몸을 받는 일이 없게 되었음을 고요하고도 확실한 지혜로 자각하는 가운데, 무량한 자비심을 발해 전 세계를 덮으며, 해탈의 참맛을 즐기며, 같은 길을 걷는 도반들에게 자기가 답파한 길을 가르치기도 하면서 평화로이 나날을 보낼 수 있습니다.

> 감각기관에 지배당한 탓으로 윤회의 쳇바퀴 벗어나지 못해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난 것은 부처님의 자유를 생생한 경험으로 실현해 낸 사람만이 완전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소금으로 간을 치면 어떤 음식이든 짠맛을 내듯, 자유의 맛도 부처님께서 펴신 법과 율의 처음 중간 마지막을 가릴 것 없이 전 범위에 가득 차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법을 닦든 간에 그 정도만큼은 자유의 맛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언제나 명심해야 할 점은 진정한 고통과 집착에서 벗어난 자유, 곧 마음의 내면적 자율은 은총으로 내려지는 하사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얻어집니다.

정리=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지묵스님의 스님이야기

■현장 스님

재미있는 이야기로 남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비법은 타고나는 것일까. 하여간 스님과 함께 있다보면 배꼽이 빠져서 달아날 지경이다. 승가에 몸을 담아오면서 긴 시간 동안 서로 어울려 지낸 것 같다. 현장(玄藏) 스님과는 늘 그렇게 지낸 편이다.

강원 도반, 〈해인〉지 창간 당시 편집일, 〈불일회보〉 편집 일 등을 함께 해오면서 대체로 손발이 잘 맞는 편이었다.

〈해인(海印)〉지를 창간할 당시에는 아무도 칼러로 내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가야 중고등부 학생회 지도법사로 현장스님이 나갔다가 뜻밖에 일을 저질렀다. 그때 나는 회계 일을 보고 있었는데 훌연내 거처로 뛰어들어,

"이번에는 〈해인〉지가 칼러로 나와요. 경비는 한 80만원 정도 들고요."

한다. 나는 머리가 좀 어떻게 된 사람이 아닌가 하고,

"아니? 뭐요?"

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10만원 미만인 사중 보조로 학생회가 지탱해 나가는데 80만원이라니!

집착않고 떠나지도 않고 오래 사귄 막역한 도반

"다 수가 있지요."

현장 스님이 하도 여유 만만하기에 다소 안심은 되었다.

"수는 무슨 수요?"

"아, 장경각에서 한 부에 100원씩 보급하면 돼요. 참배객들이 좋아라고 할 것이니 두고 보시요."

의외로 간단했다.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 하루 이틀만에 품절이 되고 〈해인〉지는 날개가 돋힌 듯이 전국에 퍼져나갔다.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첫 장에는 '가야산의 메아리'를 싣는다. 이 원고가 들어오는 백련암에서는 원고료를 받는 대신 게재료조로 금일봉이 들어왔다. 지족암 일타 큰스님께서도 매월 게재료조로 금일봉을 하사 하셨다.

"누가 이렇게 잘 내냐?"

백련암에 원고를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성철 큰스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칭찬해 주셨다. 큰스님의 법문이 한글로 일반인에게 널리 보급되는 길이 〈해인〉지를 통해서 열렸다고 봐도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때까지는 성철 큰스님의 법문이 그렇게 쉽게 한글로 알려지지 않았으니 말이다.

〈해인〉지 뒷면은 칼러판 벽화 이야기. 해인사 벽화를 소재로 〈전등록〉 등에서 전거를 모아 노트 한 권에 정리한 걸 다시 쉽게 풀어서 연재하였다. 말사 주지 스님네가 내 노트를 하도 많이 복사해 가서 노트가 닳았다. 내가 처음 정리한 노트는 한문투였으나 〈해인〉지 편집위원으로 나 외에 홍제암의 종묵(宗默) 스님과 직지사의 흥선(興善) 스님 등이 명문장으로 시원스레 실었다. 특히 이 두 스님은 탁월한 문재(文才)가 있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누가 이런 명문장을 썼어요?"

독자들로부터 문의가 쏟아져 들어왔다. 이때가 불교계 최초의 칼러판 회보가 나와 관심을 모은 때였는데 밤새 원고 정리를 하고 낮에는 왜관에 있는 분도출판사를 다녀와도 피곤한 줄을 몰랐다. 베네딕도 수도회 수사들과 친해진 것도 이 〈해인〉지 편집일 때문이었다. 그때에 대구 시내에서 고급 칼러 인쇄로 분도출판사를 따라가는 데가 없었다.

매달 〈해인〉지 발송작업 때문에 강원 울력이 있었다. 스님들이 하나같이 좋아해서 신바람이 일었다. 그 때 큰방 가운데에 잉크냄새가 나는 〈해인〉지를 산더미같이 풀어놓고 〈해인〉지의 반을 꼭꼭 접어 띠를 두르고 풀을 붙이는 발송작업에 동참했던 도반들은 지금 다 어디 있을까. 한 번 만나 보고 싶다.

지금은 내가 있는 송광사와 현장스님이 계시는 대원사가 지척간에 있어 매일은 아니더라도 자주 차를 마시러 다니는 편이다. 오래 사귄 도반은 장 단점조차 잊는 것일까. 누가 단점을 말해도 흥흥, 장점을 말해도 흥흥 그렇다는 생각이 들 뿐이지 별다른 감상이 일지 않는다.



그림·문병성

현장스님이 길상사 주지를 단 하루 한 일에 대해 말해야 겠다.

성북동 골짜기에 길상사가 들어서서 현장 스님이 주지로 추대되었을 때였다. 그 때 현장 스님은 회주 법정 스님의 부탁에 못 이겨 주지 승낙을 하였으나 하루를 지나 곧 사임하고 말았다.

창건주 김영한 보살 역시 의아해서,

"스님들은 밥상을 잘 차려 올려도 수저를 잡지 못해요." 하고 평하였다.

대원사에 가서 현장 스님과 같이 앉아서 주지 사임한 내력을 듣는 자리에서였다.

"현장 일일 체험"

앞 뒤 없이 이렇게 말해서 나도 따라 크게 웃고 말았다. TV 프로에서 인기 연예인의 '현장 일일 체험'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 모양인데 어떻게 이런 기발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불착(不着) 현장 불리(不離) 현장'

현장에 집착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현장을 떠나지도 않는다. 현장 스님은 사실 그렇게 살고 계신다.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 高養山 야생참인진쑥 엑기스

고양산 야생참인진쑥 엑기스는?



야생참 인진쑥 자연산(茵陳蒿)는 깊은 산속에서 수년~수십년간 자라면서 한겨울 눈덤이 속에서도 파란잎과 줄기를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철쑥을 말합니다. 구생복지원 암행스님은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 고양산속에서 자라는 야생 참인진쑥(茵陳蒿)을 3년동안 채취하고 고양산 자락에서 5년이상 자란 황기, 당귀, 자연산 복분자(산딸기)등 8종의 약초를 가미해 보사부에서 정식 허가(정선 제1-3호)를 받아서 현대식시설을 이용 위생적으로 주출 가공한 건강식품이므로 승려로서 자신있게 권해드리오니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다함께성불하십시다.

지금까지 시중에 유통된 일반적인 인진쑥과는 다릅니다.



구생복지원 강암행스님

공급가격 - 2개월분 ₩175,000
우체국 010108-0179782 강종무
은행신용카드 18개월 분할 가능

각종 암과 불치병 예방이나 치료에 특효라는 자연산 상황버섯, 기간지천식·홍역기침에 특효라는 가래엿, 관절·골다공증·골절에 쓰이는 토종홍화씨 등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십시요.

순수익이금은 (전액) 복지사업에 쓰여집니다.

체질에 관계없이 남자, 여자, 노인분들, 임산부, 노약자, 입원환자 등 모두에게 좋습니다.

1. 간이 나쁜사람.
2. 항상 피로한 사람.
3. 위장이 나쁜사람.
4. 변비가 있는 사람.
5. 고혈압, 저혈압.
6. 정력 회춘에 좋습니다.
7. 생리통, 생리불순.
8. 냉대하, 신경통.
9. 당뇨, 황달.
10. 불멸증 입원환자.

※ 남은 여생을 산과 물좋은 곳에서 황토방 생활을 하고 싶은 분은 연락주세요.

☎주 문 처 080-988-4774 ☎소비자상담실 0398-563-4778
인터넷 http: //www.yasenginjinssook.co.kr

알 림

전국 신도회 회원 여러분의 건성을 삼보전에 기원드리며 본회의 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전하여 드립니다.

—아 래—

1. 수련대회 및 대의원대회

매년 실시하던 하계수련대회와 대의원대회를 금년에는 가을이 무르익는 문화의 달 10월 28일 ~ 29일(1박 2일) 본회 수련도량인 김해 봉화산 정토원에서 개최키로 하고 연기하였습니다.

2. 본회 사무실 이전

그간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웅전갤러리 4층에 자리잡고 있던 중앙회 사무실을 7월 20일을 기하여 종로구 청진동 11—6번지 삼선빌딩 112호, 413호로 이전하였습니다.

☎02)732—7272 ~ 5
720—9363 ~ 4

불기 2544년 7월 20일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신도회
회 장 선 진 규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용린佛字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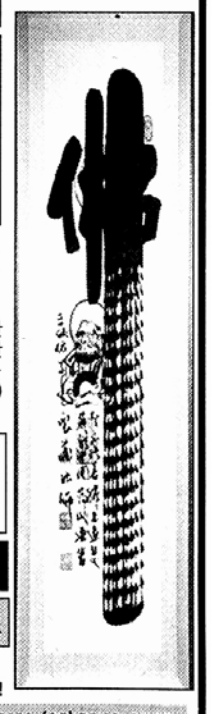
"오복을 가져오는 새천년시대 용의 꿈을 꾸세요~"





꼭 소장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 신기·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그림, 龍자 그림(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대한민국 미술작품 화랑방 (korea art gallery)
http://www.korea-art-gallery.org
http://www.mahamall.co.kr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02)2242-0331, FAX (02)2242-0255
E-mail :unjang21@ kornet21. net

●주문 신청방법 서울은행 28707-0452510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현대불교신문 구독문의
七三七 - 八八八一



◇법흥사 적멸보궁은 뒷산 어딘가에 부처님 진신사리가 봉안되었다고 전하기 때문에 뒷산 전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다.

"온 산이 다 부처님의 몸"

가람의 장면들 31

법흥사 적멸보궁

김 봉 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강원도 영월군, 사자산 법흥사에는 적멸보궁이라는 이름의 법당이 있다. 정면 3칸의 자그마한 규모이며 외관상으로는 특이한 점이 없는 평범한 건물이다. 그러나 내부에 들어가면, 불단 위에 응당 계셔야 할 불상이 없이 바깥으로 창만 뚫려있다. 이런 류의 법당구조는 통도사 대웅전에서도 볼 수 있었다. 통도사 대웅전에 불상이 없는 이유는 창 밖으로 보이는 사리탑에 석가세존의 진신 사리를 모셨기 때문에 불상을 대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흥사 적멸보궁에서 보이는 것이라고는 뒷동산의 유려한 곡선 뿐이다. 뒷산이 불상 대신 모셔진 것이다.

석가세존께서 열반하신 쿠시나가라는 당시 마투라 족들이 지배하던 땅이었다. 대대적인 다비식을 끝내고 나니, 여덟 말에 해당하는 세존의 진골, 진신 사리를 수습할 수 있었다. 소문을 들은 주변의 일곱 나라 왕들이 몰려와서 사리를 나누어줄 것을 요청해 세존의 사리는 여덟 등분 되어 여덟 나라는 각각 탑을 세우고 사리를 봉안하니, 이를 근본 8탑이라 부른다.

세존이 계실 때는 가탑도 경전도 필요없었다. 세존이 머무는 곳이 바로 가탑이요, 세존의 말씀이 바로 경전이었기 때문이다. 불교는 자성의 종교지만, 일반 민중들은 구체적인 신앙의 대상을 필요로 한다. 자성 구도는 철학적 종교적 사유를 할 수 있는 지식인에게나 가능하지, 지적 수준이 낮은 민중들에게는 난해하고 불가능한 방편이었기 때문이다. 세존의 뼈와 정기가 화한 진신사리야말로 최고의 신앙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불교 초기에 일어났던 사리 전쟁은 자기 나라를 불교국으로 포교하려던 왕들의 전략적 목표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유명한 아쇼카 왕은 후대에 일곱 나라의 탑(스투파)에서 사리를 꺼내어 그가 세운 8만개의 탑에 골고루 나누었고, 사리신앙은 온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다.

한국에 사리신앙을 전파한 이는 자장율사다. 중국에 유학한 자장은 종남산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세존의 의발과 진신사리 100과를 얻어 귀국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그는 이 사리를 황룡사 9층탑과 울산 태화사, 그리고 통도사 금강계단에 나누어 봉안했다. 현존하는 곳은 통도사 금강계단 뿐이다. 그러나 다른 기록과 구전에 의하면, 자장은 여러 곳에 그가 가지고 온 진신사리를 나누어 봉안했다고 전한다. 오대산의 중대암, 설악산 봉정암, 그리고 사자산 법흥사가 바로 그 곳이라 한다. 또한 태백산 정암사는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가 통도사 사리를 나누어 봉안한 곳이다. 이들 5개소에는 적멸보궁형의 법당들이 세워졌고, 이를 5대 적멸보궁이라 일컫는다. 그러나 이외에도 대구 달성 용연사에도 적멸보궁이 있고, 사천 다솔사도 최근에 보궁을 만드는 등, 진신 사리와 보궁에 대한 신앙은 아직도 식을 줄 모른다.

세존의 말씀은 교(敎)가 되었고, 세존의 마음은 선(禪)이 되었다. 교는 경전을 통해 기록되어 법보(法寶)가 되었으며, 선은 스님들을 통해 전해져서 승보(僧寶)가 되었다. 세존의 몸이요, 정신의 현현물인 진신사리는 불보(佛寶)가 되어, 삼보를 구성한다. 그 귀한 보물이니, 진신사리에 대한 열망은 대단할 수 밖에 없다.

법흥사 적멸보궁은 뒷산 어딘가에 사리가 봉안되었다고 전하기 때문에, 뒷산 전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어떤 인공적인 불탑보다도, 불상보다도 자연물은 위대하다. 세월이 지난다고 허물어질리 없고, 외적의 침입에도 도난당하거나 불타버릴 염려도 없다.

자장이 가져왔다는 불사리의 진신 여부에 대해 의심이 제기되기도 한다. 세존이 열반한 뒤 1000여년이 지난 그 때에, 그리고 이국인 중국 땅에서 어떻게 100과나 되는 사리를 얻을 수 있었을까?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어떻고, 사실이면 어떤가? 돌보란 석가세존의 존재 자체이지, 뼈나 구슬과 같은 사리가 아니지 않은가? 물질인 사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장이 전해준 불보에 대한 신앙이 중요한 것이다.

사리는 단지 상징일 뿐이다. 법흥사 적멸보궁 뒷산은 사리신앙의 상징성을 극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그 거대한 산 속에 몇 톨의 진신사리가 흩어져 묻혀있다. 아무리 첨단 장비를 동원한다 해도, 이 산 속에서 사리를 찾는다는 것은 망망대해에 던져진 돌멩이를 찾는 것만큼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다. 그러나 아무런 장비 없이도 우리는 쉽게 사리를 발견할 수 있다. 온 산이 부처의 몸이기 때문에. 뒷산에 널린 돌멩이 하나는 부처의 뼈요, 풀 포기 하나는 부처의 모발이 된다. 법흥사 적멸보궁이 전하고 있는 뜻은 바로 이것이다. 그 좁쌀만한 사리를 왜 찾으려 하는가? 온 산이, 온 세상이 부처인데.

진신사리 뒷산에 묻어
돌·풀 한포기도 곧 부처

"민족문화·생태계의 寶庫
지리산 댐건설 중지하라"

전국 생태기행지도자 실상사 워크숍

불교 NGO 運動 불자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최근 들어 환경·종교·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명 '생태 기행'이 유행병처럼 확산되고 있다. 날이 갈수록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 되는 시점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위기 의식이 그만큼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생태기행 전문가들은 생태기행을 '시민들이 자연생태계 탐방을 통해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고, 생태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환경문제 해법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는 작은 규모의 교육여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도 이를 반증한다.

생태기행은 흔히 대자연을 교실로 하는 열린 교육이며, 교실 밖의 교육으로 불리운다. 자연을 즐기는 것보다 배우고 보전하는 쪽에 초점을 맞춘 지적이며 비판적인 환경운동의 한 방편이 되고 있다. 생태기행은 동·식물 관찰을 통해 자연과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길러주는 체험학습과 심신수련의 방편이자 자연과 산업, 보전과 개발의 심각한 갈등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모색인 것이다.

지난 16~17일 1박2일간 남원 실상사 및 지리산 일대에서 두레생태기행(회장 김재일)과 실상사(주지 도법)가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 후원으로 개최한 '생태적 시각으로 지리산 돌아보기'란 주제의 제2회 전국 생태기행 지도자 워크숍은 그 동안의 생태기행 사례와 정보를 나누고, 지속가능한 방안으로 생태기행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120명 지리산 탐사 '생명존중' 재인식
야생화·곤충 등 분야별 탐사지침 발표



◇지리산 댐 예정지의 한 곳인 함양군 문정면 용유담 계곡에서 탐사활동을 벌이는 생태기행 지도자들.

생태기행 주요 지침

- 참가자들은 자연을 대할 때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
- 생물 분류학적 호기심보다 생명에 대한 존중이 우선돼야 한다.
- 함부로 동물을 방생하거나 식물의 씨앗을 파뜨려서는 안된다.
- 곤충이나 물고기를 손으로 자주 만지면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유념한다.
- 귀화 동·식물이라고 해서 업신여겨서는 안된다.
- 독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죽이거나 미워해서는 안된다.
- 사찰 주변에서는 스님들의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서 화장을 오염시켜서는 안된다.
- 생태계를 교란시키거나 동식물에 위협을 가하는 놀이를 해서는 안된다.
- 어떤 종은 채집하는 것만으로도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사찰은 성지이므로 호ももの을 휘둘러서는 안된다.
- 새들에게 너무 가까이 접근하지 말고 망원경을 사용하여 탐조한다.
- 상수원보호지역에서의 탐사활동은 삼가야 한다.
- 동굴 출입 때는 미생물이나 오염물질이 유입되므로 신발의 흙을 털고 들어가야 한다.
- 함부로 내가의 돌을 뒤집어 놓아서는 안된다.
- 도토리·더덕·도라지·산나물·두릅순 등 먹거리를 함부로 채취해서는 안된다.

이번 워크숍에서 전국에서 모인 120명의 생태기행 지도자들은 토론과 지리산 탐사활동을 벌이고, '생물 분류학적 호기심보다 생명에 대한 존중이 우선돼야 한다'는 등 야생화·나무·숲·물고기·곤충·조류·해양 등 분야별로 생태기행 '탐사지침'(표)을 마련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지리산댐 건설 예정지를 찾아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자연생태·역사문화·지역정서적 측면에서 댐 건설 백지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후 '생태계와 문화유산의 보고를 파괴하는 지리산댐 건설계획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지리산이 가지고 있는 생태·역사·문화·종교 등 저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총체적 조사작업을 거치지 않고, 정치논리와 단기적인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한 지리산댐 건설계획을 즉각 백지화 하라"고 주장하고, 지리산댐 백지화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이틀간 실상사와 댐 건설 예정지인 함양군 문정면 일대에서 7개 분과별로 탐사활동을 벌인 참가자들은 '지리산의 넓고(약 1억3000만평) 울창한 숲에는 연간 500만명의 탐방객이 몰리지만 인간보다는 야생 동·식물의 땅'임을 재확인했다. 탐사팀은 우리나라 생물종의 30%가 서식할 정도로 생태계의 보고인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의 생태계가 더 이상 파괴되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올벚나무·사향나무·하늘다람쥐·반달가슴곰·수달·새매·재두루미 등 천연기념물과 나무발발이·삵꼬치려도룡뇽 등 세계적인 희귀동물들을 비롯 식물 824종·포유류 39종·조류 89종·양서류 9종·파충류 11종·어류 21종·곤충류 1813종이 서식하는 지리산 기슭에 대규모 댐을 만들 경우 중산리 계곡과 달궁계곡 등 수려한 계곡이 자취를 감추는 것은 물론 안개 일수의 증가와 일조량 감소 등 이상기후를 초래해 지리산 생태계가 크게 파괴될 것이란 분석이다.

두레생태기행 김재일 회장은 "지리산은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 등 유수의 강을 거느리면서 한반도 남부의 비옥한 곡창지대를 연출해 내고 있는 민족의 젖무덤"이라면서 "민족문화·생태계의 보고요, 우리 역사의 산 현장을 댐으로 수몰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남원=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스님" 이젠 바꾸세요
"불자님" 절에 갈땐 "바랑"을 메세요



▲B-1001 ₩40.000 ▲B-1002 ₩35.000 ◀B-1003(大) ₩35.000 ◀B-1004(大) ₩32.000

■벙거지



<팔각> <타원형> <조리개, 끈>

▲B-1005 ₩20.000 ▲B-1006 ₩20.000 ▲B-1007 ₩20.000

※본 바랑 및 벙거지는 小白山 金剛寺 노스님 선방 건립을 후원합니다.

금강사 ☎(054)636-6546/632-6546

입금계좌 외환은행 : 223-22-03071-5
농 협 : 061-17-001230
우 체 국 : 013805-01-001737

제조·판매원 천화무역(주) TEL. 02)449-8844,449-9100

■취급점 모집중 (가까운 곳에서 구입하십시오)

서울	건지불교사	02)739-3032	건성불사	02)735-3543	해성불교사	02)732-7375
	제일불교사	02)73500918	대복건	02)737-0989	이화불교사	02)720-1700
경기	화계사	02)997-7517	도선사매점	02)906-2279	구룡사	02)575-7766
	봉녕사	031)258-4127	포교원	031)263-1055	양평불교사	031)771-4747
부산	구리민물	031)563-7554				
경주	부다가야	051)885-4383	고려불교예술원	051)807-6842	산사의 뜰	051)508-6300
대구	금성상회	062)369-1937	해동불교박화점	062)224-6696		
대전	삼영출판사	053)426-4097	동화불교사	053)255-0784	봉은불교사	053)424-3462
강원	보문불교서점	042)257-0161	용복불교미술원	042)274-3727	대구승복사	042)254-8772
	원주금강불교사	033)743-7442	강릉은음불교사	033)642-8880	홍천아뢰불교사	033)434-8446
경남	춘천동해불교사	033)256-584	치악산구룡사팔각원	033)732-1316		
	진주경음불교사	055)743-4655	진주제일불교사	055)742-8174	마산불교용품전시관	055)256-6878
충남	김해일광불교사	055)325-0780	합동경남불교전시관	055)295-8811		
전북	천안불교백화점	041)551-4765	동양불교사	041)865-4544	백제불교사	041)855-5621
	이리유기	063)855-3883	상문각	063)274-8639	기북불교사	063)532-2986
	남원불교사	063)625-0234				

법회중 휴대폰 소음, 이제는 사라진다!



공공장소 전파차단기
래디오캡슐
SRC-300

법회 중 휴대전화 소음에 짜증 나신적이 있읍니까?

법회 중 시끄럽게 울리는 휴대폰소리, "래디오 캡슐"이 반경 40M 내의 모든 휴대전화 통신을 차단하여 정숙한 부처님의 도량인 법당 안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래디오 캡슐"이 정숙함을 지켜드리겠읍니다.

품질보증마크인 Q마크를 획득, 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보증하며, 어떠한 조건에서도 법당안의 정숙함을 보장할 것입니다.

상담 및 구입문의 02)408-2313
주식회사 자사(JASACORPORATION)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2동 155-2

우체국 계좌번호
014241-02-118536
예금주 : 한 경구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 (031)470-3116

법공양 페이지

놓으면 '자유' 붙들고 있으면 '업'

돌아가신 어머니 위한 효도

문 며칠 전은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3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니 어머님 살아생전에 잘해 드린 것 하나 없이 불효만을 했다는 생각에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스님, 그런데 지금은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 돌아가신 어머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 드릴 수 있을지 말씀해주시길 청하옵니다.

답 사랑이라고 하는 건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위한 마음이 지극하다면, 본래 공심(共心)이기 때문에 천리 만리 떨어져 있어도,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다 할지라도 언제나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를 키우는데 주인이 어디를 갔다가 들어오기 전에는 개가 밥도 먹지 않고 주인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어느 날 주인이 집에 들어와 밥도 먹지 않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개를 보는 순간 '아, 나의 어머니도 살아 생전에 내가 밖에 나가서 들어올 때까지 밥도 안 드시고 나를 기다리셨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그 개가 어머니로 화하더니 '내가 너의 엄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개를 안고서 마음속으로 '어머니!' 하고 하염없이 울었대요. 그리고는 그 어머니를 지게에 앉히고 살아생전에 구경시켜드리지 못했던 곳을 모시고 다니며 구경시켜 드렸대요. 그러던 어느 날 개가 끙끙 앓더니만 아들이 나오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기 위해 개의 몸을 받아서 이렇게 나왔는데 네가 이 도리를 알게 됐으니 이제 그만 가련다' 하고 그냥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어머니의 마음은 육신이 있든 없든 언제나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자식을 이끌어주는 자비한 마음입니다. 그러니 내가 밥 한 숟가락 떠먹을 때도 공심으로, 일체와 둘 아닌 다음으로 공양(供養)을 한다면 그게 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건 생각하기에 달렸습니다. 조상이 모습만 없어졌다 뿐이지 영혼은 있으니깐요. 그리고 근본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또 재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그렇게만 공심으로 할 수 있다면 내가 밥 먹을 때에 조상뿐만 아니라 모두가 같이 공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생·공심·공체·공용·공식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마음이 일어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머니 마음과 더불어 공심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문 사람들은 살면서 가끔 '나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고 합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을 어떻게 알 것입니까? 스님! 내가 누구입니까? 저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했다가 기독교 신자로부터 경멸의 눈초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식이지 누군 누구야' 하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 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답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모습은, 마치 다섯 개의 손가락이 모두 각각 다른 이름과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독립된 개체라고 할 수 없이 한 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누구 한 사람 빠짐없이 제각기 생겼고, 제각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거대한 한 뿌리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공심·공용·공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늘 말을 합니다만, 우리 육신을 끌고 다니는 장본인은 나무 뿌리와 같습니다. 나무 뿌리에서 수분, 철분을 흡수해서 올려 보내고 위에서는 공기력과 태양력을 흡수해서 내려보내는 것이 정맥 동맥이 돌아가듯 나무를 성장시킵니다. 푸르르게 살도록 말입니다.

또 비유컨대 콩을 심어서 콩나무가 됐다면 콩씨로 있던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겠죠? 콩씨가 콩나무로 화했으니까요. 여러분 모습이 콩싹이라면 그 콩싹은 또 콩씨를 열리게 합니다.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도 과거로 돌아가서 콩씨를 찾는다면 아마 백년이 걸려도 못 찾을 겁니다. 그래서 콩나무가 없어도 콩이 없고, 콩이 없어도 콩나무가 없는 것입니다.

거사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질 않았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상대성 원리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도 있고 종교도 있고 또 불교도 있다고 하는 거지, 내가 없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태어나 살면서 고정되게 보고만 있으면 목석이라고 하고 고정되게 듣고만 있으면 귀머거리라고 할 겁니다. 모든 것이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 그대로 내가 한 바가 없이 여여하구나 하는 거죠. 윗눈썹과 아랫눈썹이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함께 작용을 하는 것과 같은데 너무 가까워서 그런지 자기를 못 보는 겁니다. 그대로 여여하게 살면서도 마음으로는 집착과 관습과 모든 얽힘을 붙들고 부자연스럽게 만들어 놓는 거죠. 사방이 다 터졌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 그렇게 '내가 누구인가?' 하고 생각나게 하는 그 놈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알게 할 수 있다고 밀어 넣으세요. 어느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를 수 억겁에 걸쳐서 이끌어 온 장본인, 주인공만이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지를 알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항상 내 마음안에서 들고 나는 모든 생각들을 주인공이라는 용광로에 다 집어넣으시고 마음 편안하게 살아가세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수억겁 이끌어 온 주인공이 압니다
모든 생각 주인공에 놓으세요

조상 천도재 지내고 싶어요

문 스님, 조상님 천도재를 지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한다면 기도를 올려서 천도가 되는지 알고 싶고요. 어떻게 관(觀)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답 그것도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모르는 시람이 그냥 천도식을 하는 겁니다. 흉내를 내는 거지요. 그 자체 내용이 어떤지도 모르고 '이렇게라도 해라' 하고 말씀해 놓으신 것을 말로만 따라 외우면서 해주는 천도재가 있습니다.

또 한 단계는 마음 도리를 공부하면서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처음 오신 분들도 그렇고, 재를 지내는 스님네들이 마음의 도리를 알아서 떡 한 그릇 차려놓고라도 함이 없이 했을 때 비로소 영령들이 그 마음 안에 들어옵니다. 전체가 내 아님이 없는 도리에 들어 온 것입니다.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갖고 어떤 것을 할 게 없이, 전체가 자기 것이니까, 즉 스님네들의 마음내는 능력에 따라서 영령들도 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신도님들은 조상님들의 은혜도 갚을 수 있고 자손들도 잘 된다는 생각으로 천도재를 지내려 합니다. 모든 걸 주인공에 맡겨놓고서 천도할 때, 일체 제불의 마음과 조상님들의 자식 위하는 마음이 한데 합쳐집니다. 마음과 마음이 합쳐짐으로써 아주 큰 밝은 불이 되었을 때, '아이구, 내가 여기가 추웠는데, 저기 큰 밝은 불이 있으니 가서 따뜻하게 살아야겠다' 하고 가는 것이 천도인 것입니다.

부모가 마음도리를 알지도 못하고 끄달리면서 살다가 돌아가시면 그 차원의 그릇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사발이나 종지나 천차만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의 큰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면 개미 지나가는 것도 볼 수 있는 밝음을 그대로 맛볼 수 있고, 모든 게 내 아님이 없고 내 먹을 것 아닌 게 없으니 그렇게 해서 한 찰나에 천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단계는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정말이지 당당하고 원력이 있게 되었을 때, '아하, 일체 제불의 마음과 모든 조상들의 마음이 둘이 아닌 까닭에, 한자리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나고 드는 것이니 여러 가지 차려놓고 빌고 하는 것만이 아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한다면, 촛불 하나 안 켜놔도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밝은 인등을 켜니까 그 인등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마음 속에서 온누리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으니 그 온누리에 통신이 아니 됨이 없고, 온 누리에 바로 한마음으로 공심으로 돌아갈 때, 그 조상의 마음도 거기 한 자리하는 거죠. 그러니 뭘 또 따로 지내고 자시고 할 게 없지 않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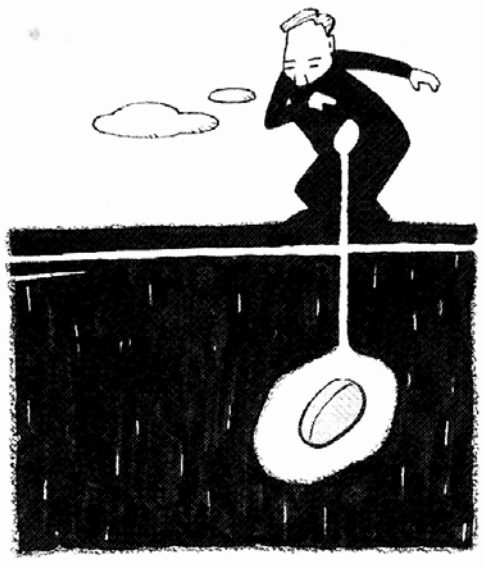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래서 지극한 마음으로 부모를 위해서 천도재를 지낸다면,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다시 나올 때 가지고 나오는 무심의 통장이 됩니다. 깨우치질 못해서 참 공덕은 받지 못하나 자식의 공덕으로 부모가 무의 세계에서 통장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 출현하게 되는 것이죠. 자식들로 인해 공덕을 받았으니 무지한 사람 안되고 당당한 사람으로서 나온다는 겁니다. 살면서 지은 죄는 어쩔 수 없지만, 자식의 공덕으로 천도된 분들은 복주머니 안 가지고 나오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신 · 구 · 의 삼업 궁금합니다

문 업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신 · 구 · 의 삼업 중에 가장 많은 업을 짓는 것이 입으로 짓는 업이라고 하는데 그럼 가장 크게 짓는 업은 무엇인지요?

답 나는 업에 대해서 묻는 분들에게 "업은 본래 공한 것이다"라고 말해 줍니다. 한번은 어떤 신도님이 나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오늘 아침 큰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십니까?"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서서 절에 오는 중에 논둑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우연히 두꺼비 한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놀랐던지 저는 저도 모르게 돌덩이를 하나 주워서 던지고는 부리나케 도망쳤습니다. 얼핏 보니까 제가 던진 돌맹이가 두꺼비에게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오면서 내내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자꾸만 피투성이가 된 두꺼비 생각이 나고, 큰 죄를 지었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선생님은 여기에 오셨는데, 오신 발자국을 내게 보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요?" "선생님께서는 분명히 걸어서 여기에 오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랬다면 한걸음 한걸음 걸어오신 발자국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걸 내게 보여달라는 말입니다." "발자국을 어디 가지고 다니거나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나는 말했습니다. "바로 맞혔습니다. 선생님께서 걸어오신 그 발자국은 지금의 선생님에게는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죄도 선생님에게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일체법은 다 공한 것이며, 따라서 당신의 죄도 공한 것입니다.

놓으면 자유요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으니 업이 됩니다. 그래서 죄가 많으니 적으면 하고 따지기 이전에 나에게 다가오는 일체의 경계를 그 자리에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원한 조상이자 스승인 나의 근본 주인공이 분명히 있다는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명의 허준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한
TV 동의보감



KBS-2 TV 전국은 지금에 방영된 《동의보감》의 내용 소개
동양 최고를 자랑하는 명의(名醫) 허준(許浚) 선생의 《동의보감(東醫寶鑑)》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가정한방 필독서이다. KBS-2 TV 〈전국은 지금〉을 통해 300회 넘게 전국에 방영 소개된 내용을 프로그램 연출자였던 저자가 한 권으로 엮었다. 또한 기타 종합한방의서의 비방도 수록했다. 각종 질환별로 나누어 상세한 치료법이 담겨 있다.
황인형 엮음 / A5신 / 334면 / 10,000원

사찰음식을 대중건강식으로 한
한국사찰음식



우리나라 최초로 사찰음식을 대중건강식으로 한 요리법과 사진 수록
깊은 산중 절에서나 맛볼 수 있는 사찰음식을 가정의 식탁에서도 맛볼 수 있게 되었다.
사찰음식을 대중건강식으로 소개한 최초의 책으로
솔향 풍기는 사찰음식의 상세한 요리법과 맛깔스러운 컬러 요리사진을 수록했다.
명산 고찰의 유명한 사찰음식 총망라
유서깊은 산사에 전하는 독특하고 유명한 사찰음식을 총망라했다.
김연식 지음 / 4 · 6변형 / 올컬러 / 156면 / 13,000원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전통사찰음식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장 적문 스님의
4인 기준 요리법
적문 지음 / 4 · 6변형 / 올컬러 / 176면 / 13,000원



과도한 육식과 기호식품에 탐닉한 나머지 예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요즘, 오신채(마늘, 파, 달래, 부추, 홍거)를 넣지 않은
담백하고 정갈하며 맛과 영양이 우수한 사찰음식이 최근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전통 사찰에서의 조리과정은 일반인들이 그대로 따라하기에
다소 어렵고 생소하다.
《전통사찰음식》은 옛부터 전승해 온 맛갈스러운 사찰음식을 사계절로 나누고,
4인 기준 정량을 표기하여 요리에 자신이 없는 초보자들도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게 하였다.
우리출판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 전화 (02)313-5047, 5056 팩스 (02)393-9696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 (031)470-3116

부처는 항상 내가 있는 곳에 있어

☞ 15면에서 계속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나고 드는 모든 생각을 나의 근본자리에 되돌려 놓으십시오. 오직 그 길만이 내 안의 모든 의식들에 감겨져 있는 습과 업을 녹일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실천으로 옮길 때 비로소 어떤 죄도 짓지 않을 것입니다.

불교권 국가는 왜 후진국인지

문 어째서 불교권 국가들은 후진국이고 서방 기독교 국가들은 잘사는 선진국일까요? 전에 교회에 갔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나라는 잘 살고 다른 우상숭배하는 나라들은 못살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듣고 보니 그런 것도 같고 해서 여쭤봅니다. 그런데 정말 티벳, 태국 등은 못살고 국력도 너무 약해서 국제 사회에서 제대로 발언도 못합니다. 지금 시대는 약육강식의 세상인데 이왕이면 모두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신문명도 탁월하고 물질문명도 발달한 모습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답 어떤 일에서건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하죠. 그것은 좋다 나쁘다를 판가름하기 이전에 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의 속성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질계에만 치우쳐 판단을 한다면 폭넓은 눈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국가에 관한 문제도 개인의 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만이 늘 행복하고 가난한 사람은 늘 불행하다고만 할 수 없는 인생의 그 미묘함이 바로 진리에 관한 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한 버스라고 가정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한 버스 안에 타고 있는 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버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네 종교·내 종교, 네 종파·내 종파, 내 나라·네 나라하고 찾아야 할 이유도 없고 또 그럴 사이도 없다고 봅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다시 한번 생각하여 네 종교 내 종교 찾기 이전에, 진리를 탐구해야 되는 것이고,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먼저 나로부터 나를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알아야만이 비로소 상대를 알고, 내 가정과 사회를 알고, 국가와 세계를 알고, 그리고 우주를 알게 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다잡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역사를 잘 가져오고 잘못 가져오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개인의 일생이나, 국가 민족의 역사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보물을 다 너를 줄테니 가지려느냐, 아니면 금광석 같은 네 안의 진짜 보배를 가지려느냐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진다고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면서 부자라고 으시대고 싶다면 아마 세상의 보물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철인 겉요, 한철. 욕심 많은 사람은 한철 동안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대로 눈을 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철 지나고 나면 그냥 다 없어질 것을, 자기 몸뚱이까지도 없어지고 말 것을 왜 그걸 택하겠습니까. 영원히 내가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먹을 수 있고 영원히 줄 수 있고 영원히 갖출 수 있고 영원히 자유스러울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하지, 왜 무엇 때문에 한철 잘 먹고 잘 지내면 그만인 것을 택하겠습니까?

깊이 깊이 생각해 보세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데만 우리가 있는 거 아니라 안보이는 데도 우리가 있습니다. 항상 들이고 낼 때 보이는 것은 대치를 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 다가오는 거는 어떻게 대치를 못해나갑니다. 안보이는 데서 나를 죽인다 해도 대치를 못해나가고 어떠한 막중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대치를 못합니다. 뭘 봐야 어떻게 하죠. 알아야 어떻게 하죠. 그래서 자신의 근본을 알아야 보이는 거든 보이지 않는 거든 전체를 대치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개종했더니 배신한 느낌 들어

문 스님, 저는 남편이 다니자고 해서 절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낯설어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갔는데 절에 와서 스님의 법문을 들으니 좋기는 한데 함께 교회를 다녔던 분들에게 꼭 배신을 한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바랍니다.

답 항상 차를 타고 다니는데, 버스로 비유하자면 시발점에서만 버스를 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탈 때 내리는 사람도 있고 내가 내릴 때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시에 내리고 타고 하는 것이, 내리는 데 걸리지 않으면 타는 데 걸리고, 타는 데 걸리지 않으면 내리는 데 걸린다고들 하는데 모두 자동적이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내리고 타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상대성 원리라고도 하고요. 정맥, 동맥이 없으면 이어서 돌아갈 수가 없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동적으로 내리고 타고 하는 그 가운데에 내리고 타고 할 수 있는 자유로운 마음을 가졌느냐는 얘깁니다. 그 마음은 어디까지나 자유스럽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했고, 자유를 자유대로 행하고 삶을 살 수 있기에 사람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라고 했던 것은 바로 체가 없는 마음을 맘대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자기 마음을 가지고도 자유스럽게 못쓰고 있습니다. 관습에 매달리고 안된다는 데 매달리니 괴롭습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차를 타는데도 끄달리고 내리는 데도 습관적으로 끄달리는 겁니다. 왜 끄달립니까? 내가 갈 때가 있으면 묵묵히 차를 타는 거고 또 내려야 할 때 묵묵히 내리면 되는 거지, 남이 내리는 거 오르는 거 다 참견하면서 온통 걸리고 돌아가니 그 노릇을 어떡하겠습니까. 내 육체를 여래의 집으로 삼고 흔들림 없이 도는 한마음의 그 심봉은 자유스런 겁니다. 그런데도 생각하는 대로 여기 매달리고 저기 끄달립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끄달리는 겁니다.

그러니 내 안에서 나오는 일체의 생각을 나의 근본자리에 되돌려 놓으십시오. 나의 관습과 사량으로 '이건 맞다 그르다, 이건 부족하다 적합하다.' 하고 판단하고 따지다가 보면은 마음의 길을 한 발자욱도 떼어 놓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양심에 걸린다, 배신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건 마음씀씀이와 올바른 행동 그런 겁니다. 마음을 잘 써야 행동을 잘하고, 행동을 잘해야 진실한 말을 잘하고, 조건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있고, 여여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나게 하면 화가 나게 하는 것도 그 자리요, 화가 안 나게 하는 것도 그 자리이니 그 자리에다가 즉시 돌려서 화가 안 나게끔 하는 도리를 아셔야 합니다. 화나는 거 하나로 표현을 했지만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구정물을 새 물로 갈아서 먹고 써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일체의 모든 것을 근본에 진실로 맡길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림 · 최주현

일체를 나와같이 생각하십시오
내모습 내마음 같이 생각하고
위로 보지도 내려 보지도 마세요

단 수련중 더이상 진전 안돼

문 저는 단전호흡을 수련하는 수행자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식사와 수련을 합니다. 수련과정중 제가 겪었던 일을 몇 자 적고 저의 의문점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부디 좋은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수련을 하러 가는데 온몸에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이 느껴왔습니다.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책에서나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변화가 더 있고 나서 저는 온몸이 저의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양 엄지손가락으로 반듯이 엎드린 상태에서 물구나무서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서 수련을 하면 몸이 떠 앞으로 3~4 미터를 가곤 하였습니다. 정신적인 변화는, 수련을 하려고 눈을 감으면 제가 우주의 핵에 서서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더욱더 정신을 집중하여 단전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아니, 발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앞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때론 지금이다 하고 더 집중을 하여 수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진전이 없는 듯 싶습니다. 저는 온몸에서 사랑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저의 몸에서 밝은 빛이 느껴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어두운 곳에서 무엇이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부디 알려주십시오. 저는 교만하지 않고 찾고자 합니다. 어렵사리 이 글을 띄웁니다.

답 단전이라는 것은, 몸이 변해서, 돌아가는 몸뚱이에 기를 한데 모으면 피가 맑아지고 그런다고 해요. 그런데 마음 깨우침에 있어서는 일체 만법을 다 카바하고 증득하고 물리가 터져야 하는 공부인데, 이 몸 하나 어떻게 해보자고 하다보면 잘못되는 수가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는 마음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수련이 없이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마음먹기에 달린 거죠. 예를 들어서 마음으로, 내가 노곤하고 기운이 없어서 일어날 기력도 없을 때에 '의욕이 나지 않고 왜 이렇게 기가 뚝 떨어지게 만들어?' 하고선 벌떡 일어난다면 그냥 의욕이 생기고 기가 생기는 거죠. 기라는 것은 이름입니다. 기운이라고 해도 되고 그런거죠.

정맥 동맥이 잘 돌아간다면은 그대로 그냥 기가 잘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달렸다 이 소립니다. 그것도, 전후사가 다 마음에 달린 겁니다. 차를 하나 운행을 하려면 바퀴를 꿴 그 중심과 엔진이 없으면 아예 그건 차라고 할 수도 없죠? 차가 굴러가는 것도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기름 떨어지지 않게 하면 되고 말이죠. 우리가 한 마음이라는 거를 믿고 진짜로 내 뿌리를 믿는다면은 그 믿는 마음이 즉, 태양력과 공기력을 내려보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정맥 동맥이 돌아가듯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라는 이름을 누누이 생각 안해도 그냥 저절로 기운이 생긴다 이 소립니다.

이 마음 공부가 엄청난 공부입니다. 몸만 단련시켜서는 이 통속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몸 떨어지면 모든 것이 다 떨어질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이 수레바퀴를 벗어나서, 공기주머니를 벗어나서, 공기가 없어도 모든 거를 다 볼 수 있고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벗어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것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는 놈이 누구인가, 이런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놈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잡아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몸을 단련시키고자 하는 그 '나'부터 알아야 그 모든 물리가 터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말을 허술히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 모른다는 나로부터 알게 되고, 또 그렇게 가게 되면 진짜로 자유스럽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소한 질문 삼갔으면…

문 마음공부를 오래 하지는 않은 신도입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은 신행생활 속에서도 마음공부의 소중함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혹 많은 대중을 위해서 법문을 하실 때 이 공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방에서 새벽 차를 타고 올라오신 신도님들도 많은데 자신의 사소한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문제를 법회 중에 스님께 질문드리는 분들을 보면 마음에서 '저런 질문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생각을 돌려야 할지 가르침 주십시오.

답 일체가 나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으니 어떤 것을 남이라고 밀쳐 내겠습니까? 그러니 나와 같이만 생각해라, 내 모습같이 생각하고 내 마음같이 생각하고 불쌍함도 나 같이만 생각해라, 높다고 위로 생각하지도 말고 낮다고 내려서 생각하지도 말라, 그리고 남을 섭섭하게 하지 말고 아프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뜻을 받아서 그대로 이행한다면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공한 것이며 생명이 있는 일체 만물만생이 다 불(佛)이니 이미 그 속에 포함돼 있죠. 그리고 물 안에서 고기들이 사는 것도 교(敎)이며 우리들이 사는 것도 교이며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나가는 게 전부 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교는 어느 한 군데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무(無)의 세계나 유(有)의 세계나, 즉 말하자면 둘 아니게 수레바퀴 돌아가듯 돌아가는 이 진리가 바로 불교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진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보이는 자기를 자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보이는 자기는 심부름꾼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기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못났든 잘났든 거지든 부자든 지위가 낮든 높든 반드시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수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자기를 형성시키고 진화시켜서 내려온 거죠. 그러니 얼마나 유능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조금 안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조금 편안하다고 남의 고통을 외면해서도 아니 되고, 항상 겸손하게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어떠한 걸 봐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길을 가다 나무 한 그루 돌 하나를 봐도, '허허, 저런 모든 생명들이 아니고 저런 모습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배웠을까, 어떻게 저런 게 있는 줄 알까, 저런 것들이 어디서 나온 줄 어떻게 알았을까.' 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감사하게 생각하다보면 절로 고개가 숙여지게 되고 남도 헤아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진실한 도리를 앎으로써 진실한 행을 하고 진실한 말을 하고 진실한 뜻을 가지며, 그 진실한 뜻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익게 되고, 익게 되면 고개가 숙여지고, 고개가 숙여지면 언제나 나 아님이 없이 전부 둘이 아니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그런 도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높은 뜻을 올바르게 알아 실천궁행하는 것이 우리 불자님들이 해야할 일 아니겠습니까?

집안에 종교가 둘 이상인데…

문 저는 무엇을 믿든지간에 자신이 믿는 종교를 통해서 올바르게 살아가기만 하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집 안에서 종교를 하나로 믿지 않으면 좋지 않다고 그러면서 한 종교를 믿어야 한다고 자꾸 개종하기를 강요하는데, 과연 한 집 안에 종교가 둘 이상이면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지요?

답 지금 내가 그릇이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마음을 넓혀서 살아보자, 그럼 내가 얼마만큼 넓어지나. 이 세상에는 나무도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고 아주 미끈하게 보기 좋은 게 있고, 구부러지고 비틀어진 게 있고, 벌레가 먹어서 썩은 게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이라고 이름을 붙힌 거죠. 푸른 산이 조화롭다구요.

그리고 사람도 못났든 잘났든, 주님을 찾든지 성모마리아를 찾든지 부처님을 찾든지 그 이름은 상관이 없어요. 다만 자기 자신 안으로 찾으라는 거죠. 안으로 믿고 안으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불교다 가톨릭이다 기독교다 하고 나누지만 이름이 종교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어떤 종교나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불교는 그 자체가 종교가 아니라 진리인 것입니다. 종교라는 이름을 만들어놓은 것이지 근본은 아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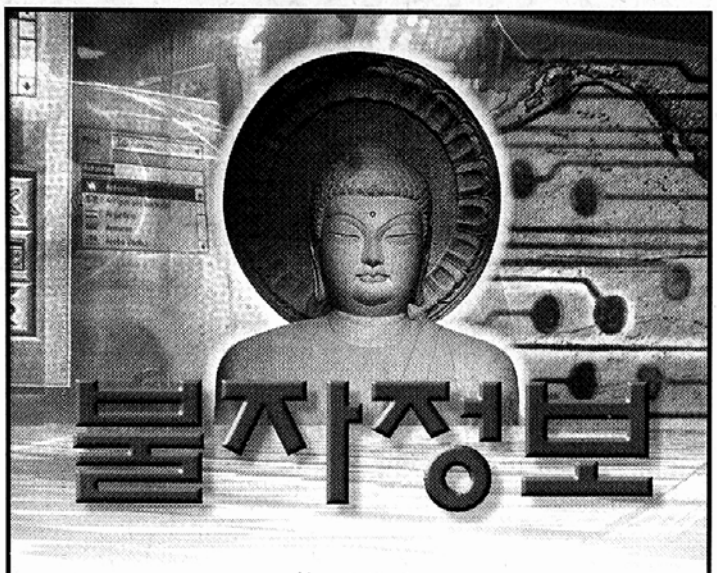
우리들은 제각기 주처를 다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편리합니까. 길을 걸을 때나 잠을 잘 때나 변소에 갈 때나 항상 내가 있는 곳에 부처는 있으니까요. 변소에 가서 '주인공' 해도 좋고 '주님' 해도 좋아요. 이건 자기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니까요.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어.' '오늘 하루 종일 다녀도 사고가 없이 다니게 할 수 있어.' '오늘 회사에서 회의를 하는데 모든 것이 잘되게끔 하는 것은 너밖엔 없어.' 이렇게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늘 하는 말입니다만 자식들이 나가서 안 들어오거나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속상하다고 해서 자식의 몸뚱이를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마음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욕을 하면서 '나가지 말고 있으라'고 그래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집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붙드세요. 마음은 마음으로써 해결이 되는 거지 모습이나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관하시라는 겁니다. 관해서 입력이 됐다면 둘이 아닌 까닭에 불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종교라는 이름에 끄달리지 마시고, 불교니 기독교니 하는 것은 다 상표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름에 걸리거나 속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좀 더 지혜를 얻고, 알고, 나라는 존재를 안다면은 모두가 다 부처님 법 아님이 없음을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끔은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4cm (1회 4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당뇨 · 간질 · 관질염 완치
한국불교 태고종 **서산사**
주지 진성
061)762-2204(fax겸용)
761-5799
011)696-4848
전남 광양읍 칠성리

강좌

견성체험지도 책 · 테프 판매!!
1.생물 = 생명(?+업) + 육체(원소)
(1).?; 자유자율성, 不生不滅, 능동, 無形, 무념, 무주처, 무게부피無
(2).업(기록물); 경향(습관)성, 有生不滅, 有形, 유념, 유주처, 무게부피無
(3).육체(물질, 무생물); 법칙성, 부자유, 수동타율, 生滅, 有形, 무게부피有
2.견성 : 본래아볼 수없는 ?을 ? 이 보는경지.
3.깨달음 : ?이 나다 라는 확신이 서는 경지
4.성불 : 자신의 의지로 밝고 청정한 본연의 ?의 상태를 유지하는 대원경지
박민수 참선 교육원 02)2601-9486
http://minsoo zen.pe.kr 017)609-9068

전통범패 불교의식 모집
◈기초반, 중급반
◈강의내용 : 예불, 아침쇳송, 저녁쇳송, 상단축원, 중단작법 태공, 도량석, 도량계, 복청게, 천수바라 태징 찍는법, 북치는 법, 관음의식, 현자계 개인지도 가능
031)865-4893
011)661-9119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 내려온 비술
▶ 손하나만으로도 몇년전, 몇월, 몇일의 운세 점검 몇년후, 몇십년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 내림굿을 받았어도 점괘가 시원치 않는 분
인연있는 분에게 전수합니다.
02)918-5554 / 017)317-1597

구인구직

노적사 행자 모집
입산 수행할 행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노적사
02)353-5016(종무소)
353-4924(주지실)

수양, 기도하실 분
공부할 학생
기도하시기 좋은
최적의 도량
합천호부근 **청강사**
· 가액 : 월30만원
(약간명 모집)
055)932-5706

환자 한두분을 모십니다
■ 병원 치료 끝난, 대 · 소변 처리등 간병인이 필요한 환자 · 가벼운 요양환자
· 강원도 산골 토암같은 가정집
· 텃밭 무공해 야채
· 200m 암반수
· 건강한방차 등으로 식이요법시도
※단 여성환자에 한하며, 치매환자는 불가
간병에 대한 제반 비용은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 본인 소개
· 서울시내 대형병원 근무 10년
· 직십자사 및 조계종 총무원 복지재단 간병사 교육이수
· 엄불수행을 위해 서울에서 이주한 50대 여성 불자로 佛心으로 환자를 간병하여 쾌차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녹전3리 유전리골
033)378-5022 정 무생화 합장

신심있는
공양주 구함
(울산)
052)211-1009
011)9027-8207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정릉
(50세이상)
02)917-3363

불교용품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화엄경 (80권) -1,400,000원
● 법화경 (7권) - 170,000원
● 사 교 (7권) - 22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5)932-7252 김 창 본
011)545-7252 처 사

기타

명당(음 · 양) 氣 탐지기
특허
※ 전국의 명당 기 측정기
강화도 마니산 → 65회전
해인사 독성각 → 46회전
팔공산 갓바위 → 16회전
P대통령 생가 → 50회전
K대통령 생가 → 50회전
세계 최초로 공개
특별 보급가 35만원
※ 추석때 집터, 묘터 한번만 사용하셔도 본전을 뽑을수 있다
TEL:053)982-4976/011)813-3679

뉴질랜드 유학
▶ 초 · 중 · 고등학교 유학및 랭귀지 스쿨, 단기 어학연수
▶ 대학입학목표
(AUT,UNITEC--대학부설 어학원 추천)
▶ 홈스테이및 가디언쉽제공
(불자가정 및 현지인)
▶ 골프유학 및 연수
우등불유학원 Email:rafaga@world-net.co.nz
HP:64-9-021-2132666/FAX: 64-9-416-4252(뉴질랜드연락처)
PH:64-9-416-4252~3

새천년 새인연 팔공산 약사정사
(천도도량)신비한 맥반석약수
절 지을 시주자를 모십니다.
땅 400평, 180평
병고자는 기적같은 성취
051)244-3360
053)985-5669
011)9554-6900

21세기 포교문화 지식정보화시대 시급한
인터넷 포교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웹호스팅 각종 프로그램개발
[CGI, PHP, ASP, JAVA]특별써비스 상담전화
02)2242-0331/485-3998
http : //www.cmhouse.net
E-mail : cm@cmhouse.net
한국불교예술문화원 후원
※ 인터넷사용인구가 2000만을 육박하고 있읍니다. 현재 이교들이 불교단체 사찰 포교원등 고유 영칭을 도메인주소로 불법등록을 하고있는 사례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읍니다. 도메인주소는 상표등록과도 같습니다.

사찰 · 한옥 석공사
사찰 · 한옥 · 석불 · 석탑 · 석축 조경
단청, 다집, 불단, 요사채
설계 시공 (전문업체)
전국 출장 양택 음택 현지답사
상담하여 드립니다
042)242-9990~3/011)209-3688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36-3번지
연화종합토건 (주)

목조 건축물 보수
사찰 한옥, 통나무, 목조, 보수공사전문
1. 방염성, 방부제
2. 흰개미 해충 박멸제 · 곰팡이 제거제
3. 목조, 석재 세척제
4. 강력 접착제
02)3474-6232
(주) 동화특수 산업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月 숙식비 : 30만원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5)883-2935
055)883-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 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0호
전 화 : 02-778-5345
팩 스 : 02-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사찰안내

사찰 안내
◆위치 : 남해바다(전남고흥)
◆부지 : 3330평(종교부지 임야)
종교부지는 1천평 토목공사 완공
◆건평 : 16평 2동
◆특징 : 정동향 남해바다와 100m 근접, 암반수 절도량까지 차량출입가능, 기도도량 연수원 고시원 적지
◆가액 : 1억 8천만원
(답사상담후 결정)
02)488-0077/011)9058-7000

토굴터및 사찰용도 안내
◆위치 : 경남 하동군 하계면 소재
◆대지 : 220평
◆건평 : 30평
◆건물 : 신축, 전통한옥2채 황토로 지음, 준농림지 605평
055)246-4929
011)566-5882

사찰(급) 안내
◆ 위치 : 충남 온양시 신인동
◆ 법당, 목조단청12평, 요사채13평 (수세식 화장실 2개), 산신각4평 약수有
◆ 가격 : 5천만원 (절충가능)
017)705-6531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통영시내
◆평수 : 2,000평
◆건물 : 법당1개, 요사채2개
◆특징 : 시내속에 산사, 바다보임
◆가격 : 권리금1천만원 (월 20만원)
055)646-2766

사 찰 안 내
◆위치 : 서울특별시내(지하철역 근접)
◆대지 : 60평
◆법당 : 2층 40평-기와지붕및 단청완료
◆요사 : 1층 40평 도심포교 사찰로 최적지 법당내부는 최고 시설임.
◆가격 : 3억 5천 (융지있음) 보증금5천, 월700,000 전세가능
◆위치 : 포천군 소재
◆대지 : 600평
◆법당 : 30평
◆요사 : 60평
◆가격 : 3억 3천
산세 수려한 기도 참선도량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561-7791
018)273-9390
※전국소재 사찰양도, 양수하실 스님께서는 전화상담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사찰운영하실 분
◇위치 : 포천
◇법당 : 40평
◇요사 : 80평
◇부지 : 1,200평
◇가액 : 5억 5천
※ 전국 사찰 다량 보유
양도 · 양수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서울) 0502)999-1133
청송기획 011)713-5634

포교원(급) 안내
◆위치 : 서울 강동구 상가지역3층 건물 3층
◆건물 : 실평수 50평, 법당1(시설특급), 스님방1, 신도방1, 조리장1 화장실 및 샤워장1, (현재운영중의 집기물일체무료)
◆가격 : 보증금1천만원 (10년전시행금액임) 월55만원
시설권리금액 2천만원
011)458-2955

포교당 안내
◆위치 : 경기도 구리시내
◆평수 : 법당50평, 요사50평 5층 건물4,5층 옥상 사용가능, 현대식 시설 완벽함
◆가액 : 권리금8천만원, 보증금 2천만원, 월 134만원
◆이유 : 스님유학 관계로 급함
011)751-7960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강원 경계지역 서울에서 1시간 40분 거리
◆ 부지 : 2만 7천평
◆ 건물 : 대웅전, 무량수전 지장전, 산신각, 용왕각, 선방 요사3동(전체 단청완료)
◆ 산세가 수려하며 맑은 계곡물이 흐름
◆ 가격 : 답사후 절충
(중간 [illegible] 직접당사자임)
017)373-5998

사찰 및 포교원 안내
◆위치 : 경기도 군포시
◆대지 : 120평(25×10×8m)코너
◆건평 : 120평 붙기구 5천만 무상 제공(포교원 최적)
◆가격 : 융자 포함 매5억2천만원 (사정상 급매)
031)454-1133
011)386-6467

사찰(급) 안내
◆ 위치 : 충남 서천군 마산면 210번지 영주암
서천에서 차로 5분거리
◆ 대지 : 100평
◆ 건물 : 5평짜리 방2개, 목욕실 주방, 태양열, 법당, 산신각4평, 요사채10평, 홍평화
◆ 가격 : 4천 5백만원
041)953-3478/951-3308
011)453-4618

사찰 안내
◆위치 : 서대문구 북가좌동 145-101호
◆평수 : 법당20평 방3칸 부엌
◆특징 : 시유지, 복지사업할 여건이 되어 있음
◆가액 : 보증금 4천만원
월20만원
031)868-0516
02)303-9788
016)335-8257

사찰 안내
선착순 한분스님에게 시설비 · 관리금 않받습니다.
◆위치 : 중랑구 상봉2동 107-60호
◆건물 : 2층 58평, 법당35평, 방3칸, 입식, 주방1칸, 에어컨 설치, 목욕실, 각방기름보일러
◆특징 : 개금삼존불, 신중전, 칠성전, 산신전 및 법당일체 조성, 즉시법회가능
◆가격 : 보증금 5천만원 월 60만원만 있으면 모든 시설 무료로 줍니다.
이유 : 스님의 몸이 안좋은 관계로
02)439-9409 / 011)712-8533

지리산 명당터 안내
◆위치 : 경남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천왕봉 좌청룡 주령
◆평수 : 1488mm(약450평) 지목 야전임야 (현재 대밭)
◆특징 : 남향 산과 계곡 좋음 큰도로에서 300m 위치하여 조용함
◆가액 : 5500 만원
011)9943-4561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사천시 와룡산내 165번지
◆부지 : 500평, 법당1채 요사채2개, 목조건물
◆가격 : 2억 (가격 절충)
055)834-3282

사찰 안내
◆위치 : 부산 동구 수정동
◆대지 : 61평
◆건물 : 1층 33평 요사 2층 26평 법당
※ 4m 도로인접, 50여년의 역사를 가진 도심기도. 포교의 정법도량 운영불편 없음.
◆가액 : 답사후 결정
011)234-5967

사찰 안내
◆위치 : 경북
◆부지 : 5800평중 대지600평 전 5,200평(준농림)
◆법당22평, 산신각4평, 요사채30평 (2동), 공양실 12평
◆특징 : 주변산세, 경관 뛰어나며 기도도량임. 납골당 최적지
◆가격 : 답사후 가격 결정
054)954-0391/011)501-2219

사찰 · 요양원 · 수양원 · 콘도 · 별장
◆ 소공원 하실 분, 국립공원 입구
◆ 남 덕유산 맑은 물 계곡이 휘감아 흐르는 연화봉으로
◆ 둘러싼 가운데 3,000 여평의 땅이 있읍니다.
◆ 진입로 포장 · 계곡 교량공사 중이니 귀하가 하신다면 5억원이 소요되는 공사비를 절감하는 이익을 보시게 됩니다.
◆ 가격 : 답사후 절충 ①2,590㎡, ②1,625㎡, ③5,024㎡ 필지별 분할 매입 가능
055)944-7049/016)750-7049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남해
◆ 평수 : 1,200평
법당, 요사, 용왕당
◆ 특징 : 산세수려, 기도도량
◆ 가액 : 8천만원
055)862-6199
017)856-3617

사찰(급) 안내
◆위치 : 충남 청양
◆부지 : 300평, 법당2층 30평, 요사채 80평
◆특징 : 포교당 적합, 읍내소재지 터미널에서 5분정도
◆가격 : 3억 5천만원
041)943-8454

포교당 안내
◆ 위치 : 광명시 새마을시장 3층
◆ 평수 : 35평, 10년되었음
◆ 가격 : 5천만원
02)2618-0767
02)687-5544
02)683-8444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전
◆ 삼존불, 신중탱화, 실상탱화, 산신탱화 40평, 방2개 부엌1개
◆ 가격 : 전세 2천 5백만원 (시설비 약간 포함)
019)211-8533

사찰 안내
◆위치 : 부산시내 적요지
◆대지 : 250평이상(국유지포함)
◆건물 : 법당40평 요사채70평 주택4가구
◆특징 : 교통편리(지하철 5분거리) 포교최적, 산세수려(青山) 신도1000세대(현재)
◆가액 : 답사후 결정
051)208-1122
※ 부산시내 사찰신축, 실버타운적지 부지3000평 있음

수양원 · 기도처
◆위치 : 충북 단양군(구인사 근처)
◆부지 : 1160평
◆건물 : 절로 지은 것이 아니고, 전통 한옥으로 "ㄱ"자로 꺾어 지은 집 30평 한채. 열댓평 토굴 한채 (나무와 흙으로 지음)
※평생 살려고 지은 집입니다 (2년됐음)
※소백산 줄기로 산세가 수려합니다
◆가액 : 1억 3천 만원
· 서울 근교 암자 및 부동산과 교환가능
02)3216-2573/016)852-5255

사찰 안내
◆위치 : 전북 정읍
◆평수 : 1600평(종교융지300평, 대지300평) 2500평 추가 매입할 수 있음(복지시설 가능)
◆건물 : 현대식 법당 40평, 요사 23평 부속건물 30평 조경완비
◆특징 : 천불불사 할수 있음. 시내10분거리 버스종점
◆가액 : 1억 8천 8백만원
011)671-0987

사이버 공간, 말의 쓰레기장인가

욕지거리·황당한 조어 '난무' … "청소년 인터넷언어 위험수위"

19일 인기가수 그룹 베이비복스 한 멤버의 개인 홈페이지.

"야 이 미친 골빈 것들아. 지랄들 한다. 얼굴 뜯어먹고 살아라. 미친년 로즈도 영어로 못쓰는 년이 대학을 가? 참 병신 삽질하고 있구나"

"이 베북년들아. 울이 지오디 오빠덜한테 꼬리치지마! 존나 대가리는 커가지고. 얼굴도 족가치 생겨가지구 그게 얼굴이냐?"

10대들의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이 그룹을 비난하는 네티즌의 욕설은 차라리 '저주'에 가깝다. 다른 팬클럽의 회원들이 무차별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웬만한 인기 연예인이라면 이정도 욕설과 비방을 듣지 않는 사람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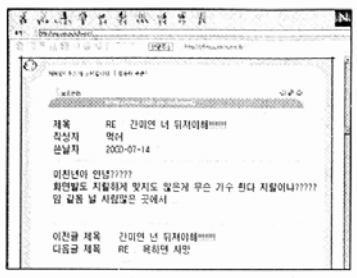
최근 경기도 한 중학교 학생들이 개설한 대화방.

"우리반 달덩이 그 씨발년 졌나 짱나. 대갈빡도 드럽게 큰 게…그 족 같은 엠병할 년…. 썩 꺼져버려. 이 화냥년아."

인터넷 공간이 무차별적인 언어폭력 공간이 돼가고 있다. 우리 인구의 3분의1 이상인 1400만명이 인터넷 인구로 성장했지만 익명성을 악용한 저질 욕설과 저주의 목소리들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상대방이 누구든 상관하지 않는다. 마음에 안들면 무조건 저주의 대상이 된다.

문제는 또 있다. "안냐세요. 넘넘 궁그매요. 갈쳐쥬스…생일 추카추카. 고롬 20000 안냐게세요."

이것은 암호가 아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너무 궁금해요. 가르쳐 주세요…생일 축하 축하. 그럼 이만 안녕히 계세요"라는 표현이다. 청소년 네티즌들의 대화는 이렇게 황당한 조어와 편법적인 언어들로 채워지고 있다. 심지어는 이런 표현들을 모르면 채팅에서 왕따를 당하기까지 한다. 웬만한 초등학생들도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같은 현상은 바른 언어습관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인터넷이 이처럼 말의 쓰레기장이 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익명성과 비대면성(非對面性)을 주된 이유로 지적한다.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고 상대방 또한 보지 않으니 무슨 짓인들 못하겠느냐는 식이라는 것이다. 물론 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처럼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한다. 자발적인 언어정화운동이 인터넷 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잡아함경〉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바람을 거슬러 냄새를 풍길 수 있는 향기는 어떤 것이냐"는 아난다의 질문에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다.

"어느 마을에 착한 남자와 여자가 있었다. 그들은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않고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으며, 음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 사람에게서 나는 향기다. 이 향기는 바람을 따라서도 풍기고 거슬러서도 풍기며, 바람이 불거나 불지 않거나 관계없이 풍기는 것이다."

말은 곧 인격이다. "일체중생의 불행은 그 입에서 생기나니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칼이다"는 〈법구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자. 인터넷에서 악취를 제거하고 향기를 풍기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

※인터넷 상의 욕설 실태를 고발하는 의미에서 가급적 원문을 그대로 싣습니다. 독자들의 양해 바랍니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人災공화국

또…또…어이없는 대형사고

부산 부일외고 수학여행 참사는 우리나라가 구제불능의 인재공화국이 아닌가를 의심케 한다. 삼풍백화점·성수대교·씨랜드·인천호프집 참사 등 어이없는 대형사고들을 떠올리면 이 말이 틀리지는 않는 것 같다.

이들 사고는 모두 개인이든 집단이든 사회의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은 데서 발생한 것이다. 아예 목숨을 '팔자소관'에 맡겨 버리고는 될대로 되라는 식의 사고방식에서 빚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과속에 있기는 하지만 당국의 무신경과 무성의도 사고유발에 일조했다. 워낙 사고가 많은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카메라조차 설치돼 있지 않았다. 아직도 선진국이 되려면 멀었다는 반증이다. 선진국은 경제적 여유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의식과 이성이 선진사회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이번에 철저히 깨달아야 한다.

이번 사고로 모두 14명의 꽃다운 젊은이들이 뜨거운 불길 속에서 아우성치다 참혹하게 숨져갔다. 그 와중에서도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의 탈출을 돕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했음이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어른들에겐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증일아함경〉에 다음과 같은 부처님 말씀이 있다. "어떤 사람은 한적한 곳에서 욕심으로 악행을 하다가 문득 부끄러워하고 스스로 뉘우쳐 제가 한 일을 남에게 말한다. 마치 까마귀가 더러운 것을 먹고 주둥이를 씻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은 한적한 곳에서 스스로 악행을 하고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뉘우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뽐내고 자랑하는 것이 마치 돼지가 항상 더러운 것을 먹고 더러운 곳에 누워 있으면서 다른 돼지 앞에서 뽐내는 것과 같으니라."

뉘우칠 줄 모르는 돼지는 바로 우리 사회, 우리 어른들의 모습이다.



◇부산 부일외고 1학년 교실에 추모의 글과 국화가 숨진 학생의 책상위에 올려져 있다.

법 무시하는 사회지도층 '눈총'

이른바 '사회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뒤 국회 회기를 핑계로 재판에 나오지 않거나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됐는데도 1년반이 넘도록 재판을 끌고 있는 국회의원. 건강이 나쁘다는 핑계로 판결선고일에도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전직 기업총수.

〈구잡비유경〉에 이런 설화가 있다. 한 구도자가 왕에게 구걸하러 갔다. 마침 사냥을 나가던 왕은 구도자에게 기다리라고 하고는 사냥을 하다가 길을 잃고 귀신을 만나 잡아먹히게 되었다. 그때 왕은 귀신에게 "오늘 아침 한 도인과 만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잠깐 돌아가 그를 만나고 온 뒤 너에게 먹히겠다"고 했고, 귀신은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받아들여 왕을 놓아주었다. 왕은 궁중으로 돌아가 도인에게 보시한 뒤 귀신에게 돌아갔고, 귀신은 왕의 신의에 감동해 예로써 사과하고 감히 해치지 못하였다.

사회지도층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사회의 구심점 역할은 물론 솔선수범을 통해 일반의 귀감이 되어야만 한다. 하물며 법을 입안하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왕이 귀신에게 돌아간 것은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법을 준수하고 신의를 지킨다면 국민들도 마땅히 존경하고 따를 것이다.

래프팅 인파로 '동강 몸살'

동강이 래프팅(급류타기) 인파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다. 현지의 주민들은 흔하던 물고기를 구경할 수 없고 물 색깔도 달라졌을만큼 동강이 오염돼 가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몰려드는 보트들로 인해 물고기들이 아예 수면 근처로 나오지 못하면서 산란은 물론 치어들의 성장 환경이 완전히 파괴하고 있고, 주말이면 몰려드는 5천여 관광객들이 버리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결국 사람이 최고의 오염원인 것이다.

"맑고 깨끗한 불국토를 원하거든 마땅히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마음이 맑고 깨끗해짐에 따라 불국토는 깨끗해지는 것이다"는 〈유마경〉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다.

시론

애타게 기다린 상봉

10년전쯤의 일로 기억된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소련이 붕괴되기 직전이 아니었던가 싶다. 미화 2만달러(당시 약 1천6백만원)만 있으면 실향민이 북한의 가족을 제3국에서 얼마든지 만난다는 소문이 있었다.

작은 이익 따질 때 아니다

그중 실향민 기업가가 인생 만년에 북에 두고 온 처자를 북경에서 만났다. 물론 몇몇 경로와 몇차례의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북의 가족을 만난 것이다. 한참 신혼살림 재미를 보면서 어린 딸을 기르다가 전쟁을 만나 잠깐 피신한다는 것이 어언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흘렀고, 그리고 남편이자 아버지는 70 고희의 나이로 북의 처자식을 만나게 된 것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리움은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켜켜이 쌓인다는 것을 그는 몸소 체득했을 것이다. 특히 남쪽에서 새가정을 꾸미고 지금은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자식들이 남한사회에서 사회적 성취를 이룬 대표적인 가정이 되었지만, 그럴수록 그는 가슴이 허해지는 것을 어쩌지 못했다.



이계홍 〈대한매일 논설위원〉

그런데 북경에서 딸을 만났다. 어머니는 결혼한 딸을 의지한 채 여태껏 수절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당국의 불허조치로 같이 나오지 못했다. 아버지는 이때 생각한다. 혹시라도 남편의 남쪽 처자가 함께 오면 북의 아내 입장이 어떨까 해서 딸만 내보낸 것으로 이해를 하며 마음속으로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더 진한 슬픔을 느꼈다. 그러나 남쪽의 가족들은 북의 어머니가 오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고 역사의 피해자로서 서로 상처를 씻어주고 감싸안고자 했던 것이 정작 오지를 못하니 가슴이 더 아팠다는 이야기.

반면 최근 어느 신문에서 읽은 내용 하나. 나이 80줄의 할아버지가 북에 두고 온 처자를 만나고자 중국 연변에서 이산가족 접촉사업을 하는 조선족과 선이 닿았다. 할아버지는 어떻게든 북의 처자를 만나보고 죽는 것이 소원이었고, 그리고 다행히도 북의 처자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상봉 전까지 생활비로 쓰라고 저축한 돈에서 일부를 빼내 보내주곤 했다.

그러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을 의심한 할머니가 뒤를 캐보니 조선족이 드나들면서 할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가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조선족을 간첩용의자로 경찰에 신고했고, 할아버지 역시 실정법에 저촉되어 불구속기소되었다.

심부름을 해온 조선족 동포는 한국의 보안법이나 반공법에 대한 지식이 있을 리 없고, 할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더군다나 북한의 가족들과 접촉을 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로 양해되고 이해되는 사안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 사회분위기다. 다만 할아버지가 가족 몰래 돈을 빼내 북의 처자를 도왔다는 것이 그 가족에게 미안하다면 미안할 뿐, 따지고 보면 그런 마음씨를 가진 뜻이 오히려 좋은 덕목으로 비쳐질 수 있는 것이었다.

이제 이런 소모적인 일들이 종식되는 듯하다. 6·15 남북정상회담과 그 후속조치로 남북 고향방문단의 상호방문이 8·15를 기해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동안 북의 가족을 애타게 찾다가 속이 타버린 이런 비극들은 이제 제도적으로 막아지게 된 것이다.

어느 누군들 장편소설보다 더한 사연이 없겠는가. 못난 조상들을 만난 죄로 우리는 지난 100년 사를 치욕과 좌절과 적대와 대립으로 살아왔다. 그통에 민족의 파편화 형해(形骸)화는 말할 수 없이 짙었다.

이산의 아픔, 민족의 고통

이제 못난 민족이 되어서는 안된다. 지금 기득권 보수 수구세력은 남북의 화해나 협력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역사의 눈물, 이산가족의 눈물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조그만 이익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역사의 죄인일 수 있다. 저 100년전 앞을 내다볼 줄 모르고 하찮은 이익에 사로잡혀서 쓸모없는 붕당과 파쟁과 심술을 일삼던 수구세력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기서 몇 보 차이이겠는가.

지난 세기엔 우리가 외세 열강에 의해 눈물을 흘렸다면, 이젠 자칫 내부 기득권 수구세력에 의해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걱정과 조바심이 드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공연한 해코지가 아니라 보다 큰 눈으로 세계를 보며 민족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북 토종 오가피농장

"한줌의 오가피는 한마차의 금옥을 갖는 것보다 낫다"
- 본초강목(P 1732)

· 유기농법에 의한 생명력이 가득찬 오가피 ·

KBS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MBC 9시뉴스, 조선일보 등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어 화제가 된 오가피 제품을 생산농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판매합니다. 99년 1월 9일자 일간스포츠에 보도("오가피 알아봤더니 숲가피") 에 따르면 이종범, 선동렬, 이봉주 등의 유명 운동 선수들을 비롯한 대표선수 68명이 오가피를 상복하여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서북황토 토종오가피 농장에서는 유기농법으로 오가피 5천여그루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산자의 양심을 걸고 정직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 전화문의 및 농장방문을 환영합니다.
♣ 복용사례와 오가피의 효능에 관한 자료도 보내드립니다.
♣ 제 품 오가피추출액, 묘목분양
♣ 전화문의시 전국 택배 배달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운정3리 9-5
서북오가피직판장
♣ 전 화 : 0333)682-5033, 682-4965
FAX : 0333)682-5034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myhome.netsgo.com/baeghj/

남여 정토불교 수강생 모집

▣ 기본과정 (3개월)

불교학교리(반야심경, 불교성전)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불교예절(교양 상식 계행 언행) 사미율리 초발심 자경의 해설
· 신도5계 득도수계 입실건당 보살계 비구비구니계 해설 및 수계
· 시달림법(망출 위패 작성 독경 염불) 반혼1재~6재 천도 발인 화장 매장
· 49재(시련 대령 관욕 지장청 시식 봉송 소대)
· 법당 불상 탱화 연단 및 불기구 배치법
· 목탁석 종성 예불기도 축원법 좌선법(간화선 묵조선 선학역사)
· 불공 기도 축원법(삼보통청 관음지장신중 산신 칠성 독성 발원)
· 목탁 요령 죽비 징종 사용법 신중작법 구병시식 관음시식 상요영반
· 화엄시식 종사 영반 점안식 삼재풀이 화혼식 원에 따라 수계식 봉행
· 불교교리 및 불교 역사 증요골자 발취 강의 납골 개설 사업 운영등

◈모집인원 : 27명(선착순) ①교리반 9명 ②사물반 9명 ③포교반 9명
◈원서접수 : 현재 접수중
◈개강일시 : 매월 1일 11일 21일 개강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서방정토극락세계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 승니, 재가, 불교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월 회 비 : 백미한가마(숙식제공)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26-27(나드리프라자 4층)
한국불교 정토종 불교대학
전화 032) 543-2693~5

살아있는 法語, 살아있는 佛敎史料
이천만 불자의 참대변지, 수행의 길잡이 …

현대불교신문 '99년도 합본집 (10부 한정판매)

'94 ~ '99년 디지털 합본집 CD도 함께드립니다.

94년 창간호부터 1999년도 송년호까지 모든 기사와 보도사진이 수록되어 있는 '디지털 합본집 CD-ROM'을 증정합니다.

1999년도 한해 동안 발행된 현대불교신문의 '합본집' 잔여분을 판매합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시사불교와 이해하기 쉬운 교리, 큰스님 법문, 한국문화의 중추가 되는 불교문화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자님들에게는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사찰의 스님들께는 참다운 수행의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수록내용 : 1999년도 (201호~251호)
판 형 : 신문원형 그대로
가 격 : 1권 60,000원 (발송비 별도/지역별 실비 - 직접 구입시 발송비 제외)
입금구좌 :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023-25-0007-617 농협 053-01-227471 우체국 010041-0255243
문 의 :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보람 얻고 점수도 따요"

문화부 17개 자원봉사센터 운영

농촌활동·교통조사·긴급구조 등 다양
공동체의식 기르고 이웃사랑 효과도

◇방학중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하면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사진은 청소년들이 농촌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장면.

철저한 준비로 보람있는 자원봉사를 하자.

여름방학 동안에 양로원과 고아원에 가보면 자원봉사활동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 온 중고생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상급학교 진학시 점수로 환산돼 내신성적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들이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 봉사활동 시간은 1년에 20시간. 장소에 관계 없이 하루 7시간씩 3일이면 금방 시간을 채울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 상당수는 관공서나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양로원 같은 곳을 기웃거리며 형식적으로 자원봉사를 마치곤 한다. 학교 또한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와 준비 부족으로 형식적으로 실시하기는 마찬가지다. 교내 청소 같은 졸속 봉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생들을 동원한 것도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봉사를 통한 보람은 커녕 시간 채우기에 급급한 형편이다.

자원봉사는 원래 청소년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길러주고 봉사를 통한 이웃 사랑과 지역사회의 관심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하지만 철저한 계획이나 교육 없이 진행되다 보니 봉사자나 봉사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부담만 되고 있다.

비교적 시간이 여유로운 여름방학 동안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한다면 특색있고 보람있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 혼자 계획하기 어렵다면 문화관광부에서 운영하는 전국 17개 자원봉사센터의 문을 두드려 보자. 이곳에서는 각 지역 복지관과 연계해 다양한 봉사활동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자원봉사 활동을 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안내해 주고 있다. 또 이곳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 축제와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한다. 이중 대전과 충남지역은 교계 단체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다. 특히 대전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는 농촌봉사활동, 쓰레기 분리수거, 문화재보호활동, 교통실태조사 등 1백여개에 달하는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자원봉사 센터도 홈페이지(www.sy0404)를 통해 수시로 봉사단원 모집 공고를 내고 봉사동아리 회원을 모집중이다. 이달 말까지 서울지역 남자 중고생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응급처치 활동을 벌일 구조단원을 찾고 있다. 이외에도 강원자원봉사센터는 소쩍새마을 자원봉사를 비롯해 독거노인 말벗돼 주기, 원주천 환경정화 등 50여개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한편 한국중등교장협의회와 문광부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는 '전국중고생 자원봉사대회'를 열어 모범 자원봉사자로 뽑힌 청소년 3백여명을 시상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봉사활동 경험을 적어서 9월 20일까지 대회 사무국으로 보내면 된다. (02)528-3788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전국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지역	주소	전화번호
중앙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02)578-4104
서울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02)849-0404
부산	부산시 진구 양정2동	(051)852-3461
대구	대구시 달서구 송현1동	(053)623-4083
인천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032)833-8057
광주	광주시 동구 수기동	(062)234-0755
대전	대전시 서구 만년동	(042)488-0732
울산	울산시 남구 옥동	(052)227-0606
경기	경기도 수원시 화서2동	(031)297-0880
강원	강원도 원주시 인동	(033)763-3004
충북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043)256-4504
충남	충남 논산시 취암동	(041)736-9003
전북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063)282-4104
전남	전남 목포시 무안동	(061)243-1450
경북	경북 안동시 신안동	(054)857-4445
경남	경남 창원시 두대동	(055)264-2311
제주	제주도 제주시 일도2동	(064)726-4101

건강백과

요통

척추에 가해지는 역학적 부하와 노화에 따른 퇴행, 잘못된 자세, 심리적인 원인 등으로 요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장마철과 같이 비가 많이 내리고 습기가 많은 날이 지속되면 몸이 무거워지며 허리의 통증은 더욱 심해진다. 이런 요통은 일생을 통해 대개 60~80% 정도가 한번 이상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요통의 예방법

1. 수면방법

인생의 1/3 이상을 수면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 때 척추와 맞닿는 매트는 요통 방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딱딱한 매트는 척추의 지지가 불안정해지고 휘어진 매트는 척추의 균형을 잡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편평하며 쿠션감각이 좋게 조정된 매트는 척추를 편안하게 지탱해 주고 안정감을 준다. 또한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으려면 매트나 요 위에 무릎과 고관절(엉덩이 관절)을 구부린 상태에서 바로 눕거나 옆으로 누워 수면을 취해야 한다.

물건 옮길때 몸쪽 가까이 당겨
윗몸 일으키기 · 무릎펴기 효과

2. 바른 자세

물건을 들 때 될 수 있으면 몸에 밀착시켜야 한다. 물체를 몸과 떨어뜨려 놓고 서 있는 것은 허리의 과중한 스트레스를 주게 되므로, 허리를 구부리지 말고 편 채로 물건을 들어 올리도록 한다. 그리고 하루종일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학생들이 의자에 앉을 때, 또는 자동차 운전을 할 때에는 엉덩이를 의자 등받이에 바짝 대고 앉아서 엉덩이 관절과 몸통, 무릎의 구부린 각도를 모두 90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3.운동요법

▲누워서 무릎을 번갈아 굽혔다가 펴기를 10회 반복한다. (수축:10~15초, 이완:3~5초)

▲윗몸 일으키기 동작을 45도 정도까지만 가볍게 10회 반복한다.

▲바로 선 자세에서 무릎만 굽혀 쪼그려 앉고, 무릎을 펴고 서는 동작을 10회 반복한다.

가정·평화등 6개 상임위 구성

불교여성개발원 정관·사업안 확정

10월 말 창립을 앞두고 있는 불교여성개발원이 11일 포교원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정관 및 기초 사업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조직기구표를 살펴보면 포교원장을 당연직 이사장으로 했으며, 기구 대표격인 원장과 예·결산 및 임원의 임면제청권 등을 갖는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 운영위원회, 사무처 등으로 구성했다. 실무부서인 사무처내에는 총무부, 조직부, 출판홍보부를 두며 운영위원회 산하에는 연구·가정·평화·환경·복지·대외협력 등 6개 상임위원회를 편성했다. 이 가운데 연구교육위원회는 불교여성학 연구와 함께 불교여성 운동의 이념과 정책을 연구하며, 가정위원회는 청소년문제 상담 및 가족 수련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

또 평화통일·인권위원회는 매춘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 운동을 펼치며, 여성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독거노인 및 여성 실직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을 담당한다.

불교여성개발원 한주영 간사는 "불자의 대다수가 여성이지만 그동안 기복불교에 빠져 여성불자들의 사회 참여가 미약했다"면서 "여성불자들의 잠재적인 역량을 개발해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 전반에 걸쳐 관심을 갖고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교여성개발원은 창립에 앞서 9월 말경 '새로운 흐름을 여는 여성불자'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청소년 단신

21세기 화랑 주제 특강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8월 3일부터 3박 4일간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제19차 한국불교 1600년 대회'를 연다.

'21세기 화랑선언'이란 주제로 마련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신라 화랑을 주제로 한 특강을 비롯해 불국사와 석굴암을 답사하는 시간도 갖는다. (02)732-0239

사찰·복지시설 체험수련

강화 선원사는 27일부터 3박 4일간 선원사와 소쩍새마을에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여름수련회'를 갖는다.

사찰과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 체험을 함께 경험할 이번 수련회에서는 △108배 참회 정진 △도자기 실습 △1자 3배 사경 △캠프 파이어 △소쩍새마을 자원봉사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032)933-8234

청소년 지도자 수련회

청소년교화연합회 하동지회는 28일부터 30일까지 약천사 청소년수련원에서 '청소년지도자 여름수련회'를 마련한다. 이번 수련회는 △서예교육 △불교의식 강의 및 실습 △108배 정진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055)883-5310

청소년 여름캠프 진행

파랑새 자원봉사단은 27일부터 2박 3일간 강원도 영월 청소년 수련의 집에서 '청소년 여름캠프'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영월 불교유적 답사 △등강 레프팅 및 트레킹 △극기훈련 △상황게임 등의 순서로 열린다. (031)962-5940

사찰 편액을 찾아서

⑭ 이광의 화엄사·송광사 편액



◇화엄사 대웅전 편액



◇송광사 대웅전 편액

의창군 이광(義昌君 李珖·1589~1645)은 조선 제14대 임금인 선조의 여덟번째 서자로 호를 기천(杞泉)이라 했으며 시호는 경헌(敬憲)이다. 그는 판서를 지낸 허성(許筬)의 딸과 혼인했는데 1618년(광해군 10) 처족 허균(許筠)이 모반죄로 주살되자 그에 연루돼 훈작을 삭탈 당하고 유배되는 비운을 겪었다. 그러나 그는 1623년 인조반정으로 유배에서 풀려나 인조의 총애를 받기도 했다.

구례 화엄사 〈대웅전〉 편액에는 '숭정구년 세사병자중추 의창군 광서'(崇禎九年 歲舍丙子仲秋 義昌君 珖書)라는 관지가 있어 의창군이 1636년에 쓴 글씨임을 알 수 있다. 서울 조계사, 예산 수덕사 대웅전 편액 등이 이를 번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전(殿)'자의 경우 화엄사 〈대웅전〉 편액은 '尸'(주검 시) 아래에 '共'(함께 공)자인데, 다른 두 종류는 모두 '尸' 아래에 '只'로 되어 있고, '웅(雄)'자의 경우도 좌우변의 여백처리에 차이가 있는 다른 글씨이다. 편액의 글씨는 결구와 필획 모두 전아(典雅)한 품격을 지닌 해서이다.

화엄사 대웅전 바르고 우아한 품격 지닌 해서

송광사 대웅전 한석봉체 닮은 조선 중기 작품

의창군은 글씨에 능해 당대의 명필로 이름이 높았는데 그 중에서도 부친인 선조가 즐겨 썼다고 하는 석봉 한호(石峰 韓濩)체의 글씨를 잘 썼으며, 특히 해서 대자(大字)에 뛰어났다고 한다. 그가 쓴 사찰 편액으로는 구례 화엄사 〈대웅전〉 〈지리산 화엄사〉 전주 송광사 〈대웅전〉 편액 등이 전하며, 이외에도 전에 걸렸던 수덕사 〈대웅전〉 편액이 그의 글씨였다. 또한 글씨가 수려해 서울 조계사, 정읍 내장사, 하동 쌍계사, 서울 진관사, 서울 선학원 등에도 번각된 그의 글씨가 걸려 있다.

안병인〈대한불교진흥원〉

아·태 잼버리대회서 불교관 운영

불교스카우트 지도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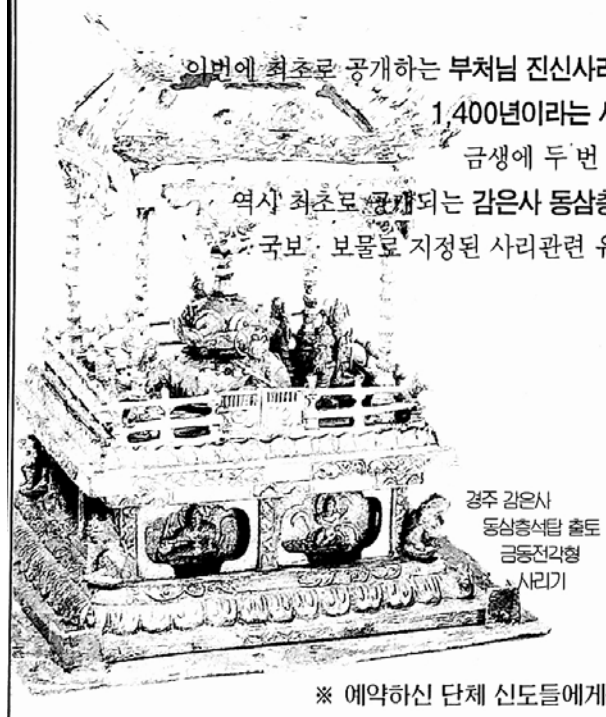
전국불교스카우트지도자회(회장 권영일)는 8월 6일부터 14일까지 고성 잼버리 교육장에서 열리는 '아·태 잼버리 대회'에서 불교관을 개설하고, 포교활동을 전개한다.

불교관에는 불국사 및 석굴암, 해인사 장경각 팔만대장경 등과 같은 불교문화재 자료와 불교관련 서적들이 전시되며, 참관하는 청소년들에게 기념품으로 단주도 나누어 준다.

불교스카우트 최병수 사무국장은 "불교관에서는 전시외에도 청소년들을 위한 다도와 불교강좌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며 "불자청소년뿐 아니라 타종교의 청소년들에게 불교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불교관 운영의 의의를 밝혔다. 김주일 기자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및 불사리장엄구 특별전

금생에 다시없는 기회가 이제 한달 남았습니다



경주 감은사 동삼층석탑 출토 금동전각형 사리기

이번에 최초로 공개하는 **부처님 진신사리는 통도사 창건주이신 자장율사께서 중국 당나라에서 모셔온 것**입니다.
1,4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우리 앞에 현신한 부처님 진신사리는
금생에 두 번 다시 없는 마지막 친견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역시 최초로 공개되는 **감은사 동삼층석탑 사리장엄구**를 비롯하여 전국의 50여 기 불탑에서 발견되어
국보, 보물로 지정된 사리관련 유물 200여 점을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 사리 친견 안내 ◆

· 전시기간 : 2000년 6월 2일(금) ~ 7월 31일(월)
· 친견시간 : 매일 오전 8시~ 오후 7시(사리친견 기간 중 휴관 없음)
· 입 장 료 : 개인 3,000원 / 단체 2,000원
(사찰이나 신도단체에서 미리 예약하시면 특별요금 1,000원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예약안내 : 전화 055) 384-0010 (담당자 : 이승현)
(방문일시, 사찰이름, 예상인원, 인솔스님을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하신 단체 신도들에게는 부처님 진신사리가 담긴 기념 카드를 드립니다
※ 특별전 10만 번째 입장객에게는 본 박물관 평생무료입장권과 정성껏 마련한 특별 선물을 증정합니다



1,400여 년 전 자장율사께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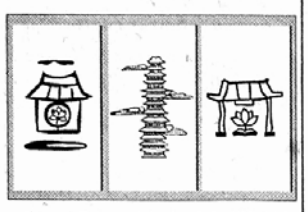
◆ 감사의 말씀 ◆

저희 통도사성보박물관 신축개관 1주년을 기념하여 열리고 있는 진신사리 친견 및 불사리장엄구 특별전이 한달 간 6만 여 명이 동참하는 대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참하신 모든 스님과 불자님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장율사가 모시고 온 부처님 진신사리와 국보·보물로 지정된 사리장엄구가 함께 공개되는 금생(今生)에 다시없는 기회가 이제 한달 여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신 여러 사찰과 신행단체의 불자님들이 모두 함께 하시어 무량공덕을 쌓기를 기원합니다.

통도사성보박물관장 梵河 합장

기도포



기장 84cm×폭 39cm/ 재질- 면 가격:₩1,600

참선명상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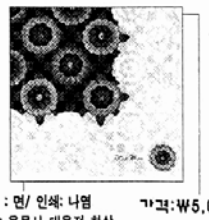


일 반 ₩30,000
숲기반 ₩35,000
황토반 ₩35,000

- 실용신안1998-025039
- 의장등록14397
-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보호

■규격: 39×43cm

불교전통창살문양손수건



재질 : 면/ 인쇄: 나염
문양: 용문사 대웅전 창살
가격:₩5,000

신세대 불자들의 신행수첩



- 지갑기능도 겸해 휴대가 간편
- 예불, 헌공, 법회, 의례, 찬불가까지
- 신행생활과 성지참배기를 요약기록
- 개인이 원하는 내용만 임의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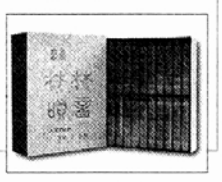
가격
일반형(인조피혁)
₩25,000

수암 만다라 옥침



■가격 : 30,000원
■재질 : 천연옥, 무독성ABS수지, 황동, 24K순금도금테, 헤라이트 반영구자석 12007가우스 X 4개

문구암스님 범음범패 테잎



■ 가격: 6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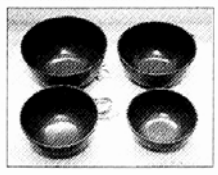
신상품 및 추천상품

발마사지 헬스기구



다양한 기능의 최단고급 재료로 제작
가격: ₩39,000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와 발 우



가격: 4합 ₩60,000 / 무게 : 2.7kg
2합 ₩30,000 / 무게 : 1kg

죠온열 건강벨트



원하는 온도조정(36.5℃에서 70℃까지) 가능
가격: ₩10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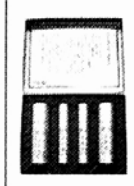
황토 냉온 찜질팩



용도
- 냉온 찜질용
- 노인성 통증완화에 찜질
- 아간 근무자나 추운곳에서 근무시 보온용
- 건강과 미용에 좋다

가격 : ₩28,000

석씨향방 오분향,생기향세트



규격 4개 1세트
효능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효능이 있음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 할 때
- 제사를 지낼 때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 하고 싶을때
- 공포를 느낄 때
- 조상의 명복을 빌때

가격 : ₩60,000

대나무 숯 염색천



■크기 : 44인치 X 5.50야드 ■가격 : 60,000원
■색상 : 진회색/회색

눈안마기



눈의 피로 감소! 가격:₩49,000

옥베게



편안한 수면은 어떤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가격: 1개 ₩30,000(셋트₩56,000)

보원향 선물셋트

보원+만복침향+한방향+항꽃이



가격: ₩60,000

오동나무 목침



크기
가로 30cm
폭 13.5cm
높이 9.5cm

가격
개 폐 형 :₩20,000원
무개폐형 :₩15,000

불자반지



재질 : 금 · 큐빅(1.5돈)
※싸이즈는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가격:18k₩130,000/ 14k ₩120,000

순금도금 은 한란양메달



- 용도및효능 남녀공용 브로치형 배당
- 재질 : 천영자수정大부착 은메달순금도금, 루비 세팅
- 효능 : 정화치유에너지가 발생, 가슴(차크라) 심장에 에너지를 공급

지름 : 4.5cm 가격 :₩4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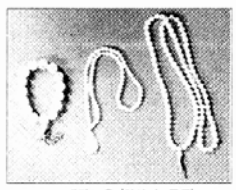
경 상



전통적 경상을 현실에 맞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 규격: 72×34×32cm · 재질: 느름원목
■가격:₩85,000

수암옥 염주세트



재질 : 옥 (원산지- 중국)
가격:₩98,000

장군죽염분말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가 용이하도록 가루형태로 만든 제품

용량 : 200g
가격 :₩36,000

삼보죽염 낱개 1통



황토가마에서 아홉번 구워낸 삼보죽염 !!
전통죽염 제조장이시며, 인간문화재이신 효산스님께서 기술고문으로 제조합니다.

용량 : 200g 가격 :₩36,000

여름용 연꽃 순면티셔츠



▶ 자비소리



▶ 자비연꽃

자비 법음이 온누리에 울려퍼져
희망찬 미래를 염원합니다.

■재질 : 순면 100%(20수) ■색상 : 순백색
■칼라 : 9도칼라 나염인쇄 ■크기 : XXL, XL, L
■20장이상 구매시 10%로 할인
■100장이상 구매시 20%로 할인 단체명 인쇄
가격 : 6,000원

마하몰 미니정보

마하몰에서는 불교상품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마하몰 미니 정보란」을 운영합니다..

다 구 (茶具)

다구라 함은 차를 맛있고 향기롭게 마시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필요한 그릇 및도구이다. 각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다관 (茶罐 :차주전자)**
물과 일차를 넣어 우려내는 도자기 주전자. 보통 주전자와 같이 손잡이가 위에 돌출게 붙은 것과 물 따르는 주둥이의 반대편에 붙은 것이 있다. 주구의 안쪽은 거름망이 있어서 차의 찌꺼기가 주둥이를 타고 나오지 않게 한다. 주로 도자기로 만들어졌으며, 금,은으로 만든 것도 있다.

■**다완 (茶碗 :찻잔)**
찻잔(다완)은 다관에서 우려난 차를 따라 마시는 작은 잔을 말하며, 시대와 모양에 따라 여러 이름이 전한다. 구는 천통형의 통잔, 완은 사발형의 가루차용, 종은 작은 반구형의 일차용을 이른 것 같다. 찻잔은 약간 두툼하여 쉬 뜨겁거나 쉬 식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일 찻물의 색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잔의 안쪽은 백색이 좋다. 일찻잔은 보통 5개(5인기)와 3개(3인기)로 손잡이가 없다.

■**차시 (차숟가락)**
마른 차 일을 다관에 일정량 떠낼을 때 사용하는 숟가락. 주로 대나무나 먹감나무로 만들어 사용하며, 차측, 차살피라고도 한다.

■**차탁 (차반, 잔 받침)**
찻잔의 굽흐름을 받쳐주는 받침 찻잔 받침은 원형, 타원형, 사각형, 매모양 등으로 주로 도자기나 나무재료이다.

■**숙우 (熟盂 : 물식힘사발)**
다관에 물을 붓기 전에 끓인 물을 적당량 부어 알맞은 온도로 식히는 사발이다. 물을 붓기 좋도록 귀가 있어 귀사발또는 물식힘 사발이라고도 한다.

■**다포 (茶佈 : 찻상포)**
찻상 바닥의 깔개 혹은 찻상 위에 덮는 것으로 삼베나 무명을 사용하여 물기가 흡수되어 정갈해 보인다.

■**차통**
차통은 차의 변질을 막고 차를 보관하기 위한 것으로, 주석, 양철 등으로 만든 것에서부터 나무, 대나무로 만든 것도 있다. 모양은 통형, 기둥형, 단지형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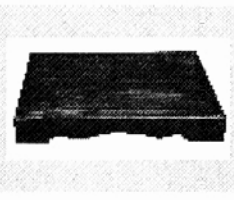
■**다선 (차솔)**
대나무 껍질을 잘게 쪼개어 만든 것으로 찻사발에 가루차와 끓인 물을 붓고 휘저어서 융합 시키는 기구이다. 차선은 보통 80본,10본, 120본의 세 종류가 있으며 차의 양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보통 차선(80본)으로 100회 정도젓는다.

■**찻상**
다구들을 올려서 형다를 하는 목재로 만든 상. 사각. 육각. 팔각. 원형,서랍형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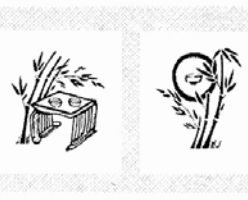
■**개인다기**
편리함을 위해 고안된 잔과 거름망, 잔 투껑으로 구성된 다기.
망잔 (湯罐 : 물 끓이는 솥) 물 끓이는 그릇으로, 신라 때에는 돌 솥도 있었다. 지금은 의식 다례가 아니면 화로나 탕관은 사용하지 않고, 주로 주전자나 전기포트를 사용한다.
죄수기 개수그릇이라고도 불리우며 처음에 다관과 잔을 데운 물을 버리거나 차를 우려낸 다음 숙우나 찻잔에 남은 찌꺼기를 버리는데 이용한다.

■**여행기**
여행을 위해 부피를 줄인 작은 개인용, 다인용 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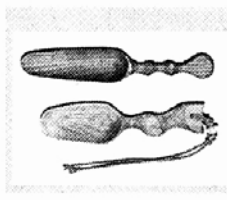
끝으로 다기를 선택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다기는 진열용이 아니다. 다른 도자기 제품처럼 예술성과 골동품적 가치만을 따질 수 없는 생활 자기임으로 유명도에가의 고가품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둘째, 실용적이어야 한다. 매일 사용하려면 편리한 기능과 도자기 제품으로 안정감이 있어야 한다.
셋째, 아름다워야 하고 쉬 실증을 느끼지 않을 만한 것이 좋다.



찻 상
재질 : 소나무 원목
가 격 :₩54,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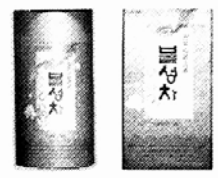


다 포
기장 50cm×폭 29cm/ 재질- 면
가격:₩800



차 시
제품에 따라 모양이 다름
가격 :₩15,000

불 성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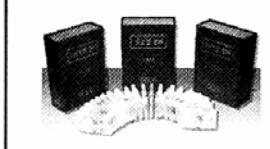
가격 : 우전 ₩ 90,000 / 세작 ₩ 50,000
중작 ₩ 30,000 / 대작 ₩ 20,000

날개 CD



가격: ₩10,000

무비스님 특강테잎



금강경강의/ 지장경강의/ 진심직설강의
가격: 각 ₩45,000

영인스님 예불천수경 CD



가격:₩9,500

향적원... 고향의 맛을 선물로

본 제품은 순창군 복흥면(해발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무농약,무방무제,무조미료 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5도 이하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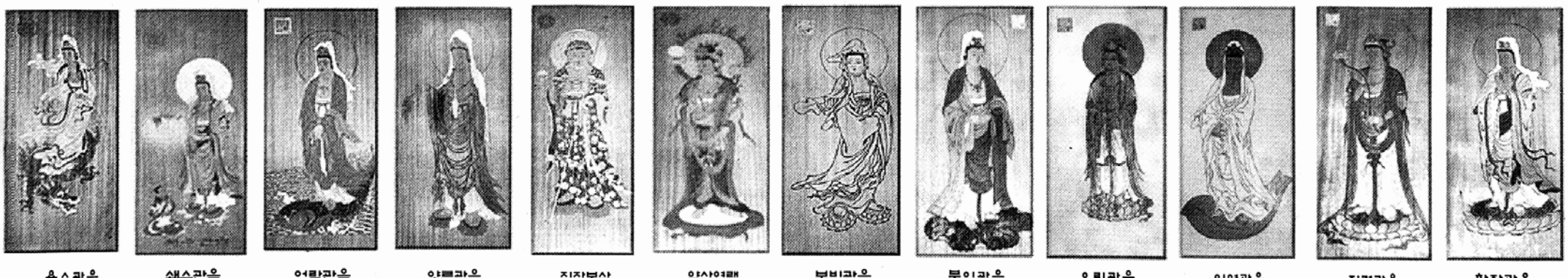
판매가 (본 제품은 1kg 기준임)

· 고추장	12,000원
· 무우 장아찌	12,000원
· 된장	8,000원
· 마늘쫑 장아	12,000원
· 쌈장	8,000원
· 된장 콩잎	12,000원
· 더덕 장아찌	30,000원
· 된장 깻잎	12,000원
· 오이 장아찌	12,000원
· 산초 장아찌	30,000원
· 감 장아찌	12,000원
· 을외 장아찌	12,000원
· 나나스키	12,000원
· 간장(1.8L)	8,000원

백동훈 판각 작품

■규격 : 두께 - 3Cm, 가로- 45Cm, 세로-

■ 상품설명 판각이란 글씨나 그림 등을 나무에 새기는 작업이다. 평면에 표현된 묵필 또는 그림 등의 예술작품을 3차원의 공간으로 재해석하여 표현하는 예술세계를 말한다. 목판에 글,그림을 판각한 판각본은 원고 자체를 판목 위에 뒤집어 붙이고 한 자, 한 자 정성껏 새겨서 인출(印出)해 내는 것입니다. 판목(板木) 또한 매우 잘 다루어야 하며, 먼저 글자나 그림을 새기기에 적합한 나무를 배어 적당한 크기와 부피를 판목 시킨후, 짠물 또는 민물 응덩이에 오래 담구어 결을 삭혔다가 밀폐된 곳에 넣고 쪄서 살충과 동시에 진을 빼냅니다. 그리고 충분히 건조시켜 뒤틀리거나 빠개지지 않게하여 판면을 곱게 대패질 한 후 간행할 내용을 종이에 써서 붙여 새기는 것입니다. 이렇듯 판각은 목재에서 서예, 그림 그리고 조각적인 부분까지 종합 문화 예술인 것입니다.



	용수관음	쇄수관음	여람관음	양류관음	지장보살	약사여래	보비관음	불이관음	유리관음	일엽관음	지련관음	합장관음
나 왕	₩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250,000	₩250,000	₩ 250,000	₩250,000	₩ 250,000	₩250,000
알마사카	₩ 330,000	₩ 330,000	₩330,000	₩ 330,000	₩ 330,000	₩ 330,000	₩ 280,000	₩ 280,000	₩ 280,000	₩ 280,000	₩ 280,000	₩280,000

산업자원부 추천 우수사이버몰

마 하 몰

(http://www.mahamall.co.kr)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은 불교인의 정서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마하몰에서 만나십시오.

인터넷 마하몰에 오시면 더욱 많은 불교상품과 작품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주문전화 02-732-1522 (직통)
02-737-8881 (대표)



농장직판 -
신비의 버섯
동충하초

150g
1개월 복용분

가격 70,000원

백의 관음입상 도자기



감로수와 함께 하는 백의 관음 입상 도자기

가격 : 150,000원

정사각틀 에밀레종



신비한 검작품, 사이버 사운드, 완벽한 종소리의 재현

규격: 20×31cm
재질 - 청동

가격:₩210,000

이렇게 들었다 — 재난 예방

110여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부일외고의 교통사고와 수원 권선고 학생을 태운 관광버스의 교통사고는 빗길 과속 및 안전거리 미확보와 중앙선을 넘어 무모한 앞지르기를 하려다 발생한 사고로 잠정 결론이 났다. 기성세대들의 안전불감증이 빚은 어처구니없는 사고였다.

지난해 전국을 강타해 12만명이 넘는 이재민을 발생시켰던 수해도 재난 예방에 대한 철저한 준비없는 우리 모두의 무관심이 한 몫한 인재(人災)였다. 올 여름 기상재해와 휴가지에서 발생할 갖가지 안전사고를 비롯 조심하지 않으면 안될 돌발적인 상황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재난 예방을 위해서는 그저 미리미리 조심하는 것이 최고다. 재난 예방에 대한 경전의 말씀을 듣는다.

작은 악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 행하지 않으면서 말만 하는 것, 지혜로운 이는 그 잘못을 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서도 했다고 말하는 것은, 도적의 허물과 같다. 〈잡아함경〉

▨ 소 치는 다니야가 말했다. "나는 이미 밥도 짓고 우유도 짜 놓았습니다. 마히강 기슭에서 나는 처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내 움막은 지붕이 덮여 있고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이여, 만일 비를 내리시려거든 비를 내리시옵소서." 〈숫타니파타〉

▨ 보살은 마땅히 온갖 중생을 위해 큰 불이 날 때와 큰 물에 떠내려 갈 때와 폭풍이 불 때, 배나 강물·바다·나찰의 환난에도 마땅히 이 경률을 독송하고 강설해야 한다. 〈범망경〉

▨ 미래세에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이 경을 듣거나 독송하고 향 꽃 등을 가져다 보시 공양하고 찬탄하여 우러러 예배하면 위난을 당할 때에 신들의 보호를 받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질병에 걸리지 않으며, 홍수나 화재의 재앙이 근접치 못하고, 도적으로부터 액난을 당하지 않으리라. 〈지장보살본원경〉

▨ 사람을 미혹해서 괴롭히는 근본적인 번뇌가 있는데, 그것을 이겨내는 길은 위험을 직시하고 피하는 것이다. 마치 현명한 사람이 사나운 말이나 미친 개를 멀리 하듯이, 사악한 자를 벗으로 삼지 말고 현명한 사람이 피하는 곳에 가지 말아야 한다. 행동을 이렇게 조심해서 신중하게 하면 마음 속에서 타오르는 속된 번뇌의 불이 꺼진다. 〈일체류경〉

▨ 아무도 제가 벌어 들인 것을 다 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그 중의 얼마쯤은 아껴서 비상시에 대비하고, 또 얼마쯤은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하고, 또 얼마쯤은 성직자에게 바쳐야 한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확실하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저와 인연이 맞아서 제게 오는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잘 보관하되, 제멋대로 낭비하거나 무가치하게 쓰면 안된다. 〈육방예경〉

▨ 보살은 보리도를 수행할 때 길을 잃은 중생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며, 길의 와석(瓦石)과 가시덤불을 제거하며, 건너야 할 물이나 험한 곳에 다리를 놓으며, 어두운 곳을 위해 등불을 단다. 〈대집경〉

▨ 미래세에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이 경을 듣거나 독송하고 향, 꽃, 음식, 의복, 보배 등을 가져다 보시 공양하고 찬탄하여 우러러 예배하면 위난을 당할 때에 신들의 보호를 받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질병에 걸리지 않으며, 홍수나 화재의 재앙이 근접치 못하고, 도적으로부터 액난을 당하지 않으리라. 〈지장보살본원경〉

▨ 방종한 마음으로 사업에만 집착하여 오욕에 빠져 정신이 혼미해진 사람은 물고기가 그물에 들어가 괴로움을 당하듯이 자신의 과보있음을 의면하고 교만하다가 그 업이 다하면 눈물지으며 큰 고통 받으리라. 〈별역잡아함경〉

▨ 작은 악을 대단치 않게 알아 재앙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물방울은 작지만 시간이 흐르면 차츰 큰 그릇을 채우고 만다. 〈열반경〉

▨ 선정을 얻은 사람은 다시는 마음이 동요하지 않을 것이니, 마치 물을 아끼는 집에서 둑을 잘 쌓아 놓은 것과 같다. 수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여서 지혜의 물을 간직하려는 까닭에 선정을 잘 닦아 그 누실을 막는 것이다. 〈유교경〉

▨ 복이 화를 낳는다는 것은 편안하고 느긋할때 사치와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게으름이 극도에 달하기 때문에 재앙이 생긴다는 것이다. 〈선림보훈〉

신행 캘린더

도심속 나를 찾는 수행공간
대원회 토요 철야참선교실 열어

한국불교대원회가 남산 대원정사 불교회관 2층에 선방을 개원하고 8월5일 오후6시 토요철야 참선수련교실을 연다.

'이제는 대중수행 운동을 전개하자'라는 캐치플레이즈 아래 선보이는 대원회의 참선수련 교실은 지도법사로부터 매주 공부의 진척정도를 점검받을 수 있다는데 특징이 있다. 금강선원 주지 혜거스님이 매주 수련생들과 함께 철야정진하면서 일대일로 지도하고, 공부를 점검해 준다.

수련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오후6시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발우공양을 한 뒤 묵언과 참선수행을 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대원회 이기풍 부장은 "서울 도심인 남산 기슭에서 한 주에 한번 철저한 수행자로 돌아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진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활력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회비는 매회 1만원이며 저녁식사가 제공된다. (02)773-9171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7월26일 (수)

■ **보현도량 가족수련회**=태고종 보현도량은 3박4일간(26~29일) 선암사에서 '우리 모두 하나됨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여름불교 가족수련회를 개최한다. (02)745-1614

■ **천태종 합창단 하계수련**=천태종 교육부는 총본산 구인사에서 전국 합창단 하계 수련회를 개최한다. (02)3463-5321

7월27일 (목)

■ **옥수복지관 졸음퇴치 발지압 특강**=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무더운 여름, 수험생들의 학습에 최대 강적인 졸음을 퇴치할 수 있는 발지압 무료 특강을 실시한다. 시간은 오후2시~3시30분. (02)2282-1100

■ **종교인 자전거 국토대장정**=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각 종교인들이 양일간(27~28일) 서울에서 임진각까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자전거 국토대장정 순례를 전개한다. (02)725-4277

7월28일 (금)

■ **동국대 총동림동문회 회장 이취임식 및 임시총회**=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총동림동문회는 오후5시 타워호텔 신관1층에서 회장이·취임법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031)498-7700

■ **청교련 청소년지도자 수련회**=청소년교화연합회 하동지회는 30일까지 약천사 청소년수련원에서 '청소년지도자 여름수련회'를 마련한다. (055)883-5310

7월29일 (토)

■ **KBS 불교硏 정기법회**=KBS불교연구회는 정오 여의도불교문화원에서 7월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02)781-5713 이태영

7월30일 (일)

■ **송광사 무차천도법회 회향식**=순천 송광사는 오전10시 지난 24일부터 진행해 온 무차천도법회를 회향한다. (061)755-0107

■ **논산훈련장병 수계대법회**=광주 향림사는 오전 10시 호국연무사에서 논산 훈련 장병 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수계법회에는 향림사 조실 천운스님이 증명법사로 참석한다. (062)375-7600



◇부모님 품을 떠나 힘든 군생활을 시작하는 군장병들에게는 아무리 작은 불교계의 관심과 정성이라도 큰 힘이 될 수 있다.

8월1일 (화)

■ **천태종 신도 하안거**=천태종은 8월30일까지 경진년 하안거 기도 주간으로 선포하고 총본사 구인사와 각 말사별로 기도법회를 봉행한다. (02)573-7645

■ **터사랑 자연학습체험 캠프**=터사랑은 3일까지 2박3일의 일정으로 월악산 국립공원 내에서 민속놀이와 자연학습체험 캠프를 개최한다. 자연속에서 짚가리, 전쟁놀이, 닭싸움, 굴렁쇠굴리기, 염소몰이, 긴줄넘기, 돌탑쌓기, 물지게로 물건 나르기 등의 민속놀이를 한껏 즐길 수 있다. (02)725-1284

■ **이전 점안법회**=성불사는 오후1시 경기도 광명시 뉴월드스포츠센터 4층에서 법당 이전 확장불사 점안대법회를 봉행한다. (02)2614-1900

법회안내

'참되게 사는길' 특강



암도 전 조계종 교육원장 스님은 31일 전북불교회관의 화엄불교대학에서 '참되게 사는 길'을 주제로 특강 한다. (063)277-3497

'생활불교' 설법



원광 삼장불교문서포교원 원장 스님은 30일 오전 10시 서울 성북구 정릉동 삼보정사에서 '생활불교'를 주제로 법문한다. (02)913-2859

'선가귀감' 강의



일초 전 동학사 승가대학장 스님은 8월1일 오후7시30분 한국불교연구원 대전구도회 법당에서 〈선가귀감〉에 대해 법문한다. (042)527-0559

'기초교리' 강좌



화평 무우사 주지 스님은 4일 오후6시30분 경기경찰청 법당에서 경찰불자들에게 '불교기초교리'를 중심으로 법문한다. (031)258-5248

게시판

알림

▲**백옥 삼존불 봉안**=대원사는 8월14일 오후1시 천불전에서 백옥 삼존불 봉안법회를 봉행한다. 이에 앞서 오전10시에는 우란분절 백일기도 회향법회를 갖는다. (061)852-1755

▲**심리치료캠프**=강북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은 8월2일 오전10시부터 다음날 오후1시까지 강화도 외포리 자연갯벌과 강화 유스호스텔에서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캠프를 실시한다. (02)989-4215

▲**천연염색 강좌**=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27일까지 남원 실상사 람천에서 '제3차 천연염색 강좌'를 연다. 이번 강좌에서는 이론 교육과 실기교육이 함께 이루어진다. (02)733-1884

▲**무료직업소개소 개소**=자양사회복지관은 과출, 식당 주방, 간병, 산후조리의 일손을 필요로 하는 구인처와 구직자를 찾는다. 구인처는 전화접수 가능하며, 구직자는 복지관으로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한다. (02)458-1664

▲**여름 탐방학교**=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가정 자녀와 장애아를 대상으로 27일 충북 제천 박달재 휴양림에서 여름탐방학교를 연다. 또 8월10일에는 청주 고인쇄박물관을 관람하고, 8월24일에는 산업현장을 견학한다. (043)652-0900

▲**네팔·티베트 순례**=용진신행회는 8월18~29일 11박12일의 일정으로 네팔과 티베트 순례를 떠난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30명. (02)2279-1191

▲**자연체험 어울마당**=월곡청소년센터는 8월10~11일 영월 동강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및 결손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연체험 및 어울마당을 개최한다. 참가비는 무료. (02)918-3543

모집

▲**방과후 교실 자원봉사자**=용호복지관은 지체장애아동 방과 후 교실의 집단활동 및 프로그램 보조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51)628-6737

▲**독거노인 후원자**=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관내 무의탁 독거노인들과 1:1 결연을 맺어 정서적,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후원자를 모집한다. (02)2203-3677

▲**자원봉사자**=연꽃마을은 무의탁 독거노인들의 가정방문을 통해 가사지원 서비스를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2203-3677

▲**도시락 공양 후원자**=자비신행회는 영세독거노인 110명에게 저녁 식사로 도시락을 보내고 있다. 월 2만원으로 독거노인의 한달 공양을 지원해 줄 후원자를 기다린다. (062)222-1165]

▲**주간탁노소 이용자**=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낮동안 돌 볼 보호자가 없는 경증치매 및 중풍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탁노소 이용자를 모집한다. 탁노소 운영시간은 오전8시~오후5시. (02)385-1351

▲**어린이 율동 자원봉사자**=한솔종합사회복지관은 여름방학 기간동안 매일 오전12시30분부터 1시간동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율동을 지도해 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31)716-4215

▲**불교대학 신입생**=동산불교대학은 2년과정의 제17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원서 접수는 31일까지이며, 8월5일 오후5시 개강한다. (02)732-1206

강좌

▲**종이접기**=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2시20분, 3시20분 두차례에 걸쳐 6~7세 아동을 대상으로 엄마와 함께하는 종이접기 강좌를 마련한다. (02)421-6077

▲**스포츠댄스**=부산 용호복지관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2시30분 중고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스포츠댄스 교실을 연다. 초보자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지도한다. (051)628-6737

구인

▲**재가연대 상근활동가**=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는 8월5일까지 조직, 홍보, 교육, 국제사업 영역에 종사할 간사(1~2명)를 모집한다. 이력서 혹은 자기소개서 제출후 면접. (02)725~6231~2

스님께서 직접 만든 명가의 명향

釋氏香方 五分香·生氣香

석씨향방은 순수한 향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

- 효능: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례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지신·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요마·귀신·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 목욕 재개항
· 관불의식, 관욕에 사용
· 어떠한 의식 전후에 목욕함
· 상기집, 영안실 왕래후에 목욕하면 상문살이 침범하지 않는다.

生氣香 …



-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당뇨·중풍·폐·간·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hyangbang.com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59-24-0341-970
농 협 071-02-257470 예 금 주: 김정순

▶ 전화주문도 가능
▶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

☎ 02)3446-8148, 3446-5889 공급자: 석씨향방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인간의 명운(命運)을 좌우하는 지리학(地理學)을 현실 생활에 합리화 시켜 생활해 나가면 내일의 안정과 희망의 행복으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 나갈 것이다.

저자는 생기론(땅기운)을 한국최초로 발견하였다. 국내 제일의 풍수지리서이다!

새 천년 새 풍수를 잡아라.

◈땅의 비밀(秘密)을 소개(紹介)한다.

1. 땅은 길지(吉地)와 흉지(凶地)로 나누어져 있다.
2. 집터(陽宅)와 묘터(陰宅)는 좋은(吉地)터와 나쁜터(凶地) 땅기운이 흙어진다.
4. 나쁜 집(凶宅)터에서 살면 각종 질병(各種疾病)이 발생한다.
5. 그러므로 땅에는 명가(名家)와 흉가(凶家)가 있다.
6. 우리는 땅에서 나온 식물(植物)의 열매를 먹고 산다.
7. 그러므로 땅은 만물(萬物)의 어머니이다.



대도 김용식 지음
신국판 양장본
값 30,000원

화제의 신간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쨌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
여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A5신/양장본
값 40,000원

사주학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해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 전국 서점 판매중



송월스님 저
신국판 양장본 값 25,000원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15,000원(大)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10,000원(小)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12,000원(大)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 김용식 저/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신국판/이선일,전호일 공저/정가 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양장본/申坪 /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법學博士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법學博士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백광 지음 /정가 8,000원
12. 사주임상록
신국판/양장본 이상욱 지음 /정가 25,000원
13. 전통풍수지리 웹계관
신국판/양장본 진상백 저 /정가 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 김윤중 편저/정가 15,000원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일주일이면
나도 사주를 볼 수 있다.

지식의 유무·어떠한 직종이 나의 적성이며, 어느 길로 가야 적합하며 언제 운이 열리는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주 명리학이다.



김윤중 저
신국판 값 15,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5광성B/D 3층T.921-8434 F.929-3470

원효탄생지 제석사 붕괴위기

대웅전·칠성전 비 새고 벽 허물어져
종단 무관심…당국 뒤늦게 보수나서

'해동초조(海東初祖)로 일컬어지는 원효성사 탄생지에 세워진 제석사(주지 적연)가 빗물이 새고 벽이 허물어지고 있으나 정부와 종단의 무관심으로 방치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경북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말사인 제석사내 대웅전과 칠성전에는 3년 전부터 천장에서 빗물이 떨어져 지붕에 비닐을 덮어두고 있으며, 벽의 흙이 떨어져나가는등 붕괴 일보 직전이다.

특히 40여년간 번와(飜瓦)를 하지 않아 지붕에도 올라갈 수 없는 대웅전에서는 붕괴위험을 무릅쓰고 예불을 보고 있으며, 비가 오면 물통을 준비해야할 정도. 제석사는 9년째 붕행해 온 원효성사 탄생 다례제(예산 1300만원 소요)의 맥을 잇는데도 힘에 겨워 도량정화는 불자들과 종단, 정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처럼 제석사가 폐사 일보직전임에도 불구하고 본사인 은해사와 조계종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보수 관리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경북도와 경산시 역시 전통사찰임에도 불구하고 지정문화재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 지원 대상에서 항상 소외시켜 왔다. 몇년전 은해사가 제석사와 설총의 탄생지인 용성 반룡사, 일연스님이 〈삼국유사〉를 집필한 인각사 등 3대 사찰을 성역화하는 불사를 추진하기도 했으나, 이 역시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제석사 신도들은 "해동초조인 원효성사의 탄생지를 이토록 방치한 조계종이 도의국사를 종조라고 떠받들려 한다면 할아버지를 고려장 시키고, 아비를 호강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며 안타까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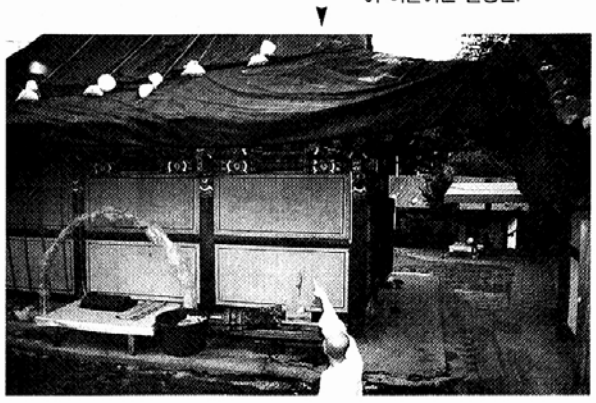
이와 관련 조계종 기획실장 일철스님은 "본사인 은해사가 제석사를 성역화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총무원에 지원을 요청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석사의 붕괴위험이 알려지자 경북도와 경산시는 최근 잇달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다. 경북도 관계자는 19일 "전통사찰보전법에 의거해 긴급 보수비 1억8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 경산시가 빠른 시일내 현장 실측을 통해 설계도를 확정하고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제석사의 복원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석사는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출가한 후 생가 곁에 지어졌던 사라사가 폐사됐다가 600여년 전 발갈이하던 농부가 불상과 탑신을 발견하고 사찰을 복원했다는 설화가 있으며, 〈한국사찰전서〉에는 1625(인조 3년)년 유찬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일부에서는 확실한 유물이 없다는 이유로 원효스님의 탄생지가 아니라는 이견도 있으나, 주민들과 향토사학자들은 밤골(栗谷里) 아래에 위치한 제석사를 불땅절(佛地寺)로 부르며 원효스님의 탄생지로 믿고 있다. 향토사학자인 故이종대씨는 천주교신자이면서도 〈자인의 맥〉이라는 저서를 통해 원효스님 탄생지인 제석사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의 '사천왕사 왔소' 답사팀이 9년전 제석사를 방문해 원효성사 탄생 다례재를 올릴 정도로 일본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경산=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제석사 총무 성인스님이 붕괴직전인 대웅전 지붕을 가리키고 있다. 오른쪽은 한쪽 벽이 허물어진 칠성전.



◇전국 염불만일회는 2025년 12월 21일까지 만일염불 결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대원사 성지대회 입제식 장면.

"육염불 생활화로 정토나자"

염불만일회 대원사 법회
호마의식·대동제등 행사

제6차 전국염불만일회(공동대표 해장 보광 김재일) 2000년도 성지대회가 5백여 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6~17일 전남 보성 대원사에서 열렸다. 이번 성지대회는 제6차 전국 염불만일회가 1998년 8월 강원도 건봉사에서 결성된 이래 처음으로 타지역 사찰에서 열린 염불 결사다. 전국염불만일회는 근본도량인 건봉사 외에 불국사, 은해사, 미황사, 백련사 등 아미타 10대 성지를 선정, 1년에 1차례 10대 성지순례 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대원사 성지대회는 16일 오후 2시 대원사 주지 현장스님과 염불만일회 공동대표 김재일 법사의 타종으로 시작됐다.

김재일 법사는 인사말에서 "10대 성지에서 뿐 아니라 북한에서도 아미타불 염불결사가 성사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어 현장스님의 지도로 무량수불 관정의식을 가진 염불만일회는 대북과 징 등 사물을 치면서 아미타여래 48대원을 독송하는 '저녁 장엄염불', '아미타촘 대동제', '촛불의식', 아미타불 1만번 염송 철야정진 법회를 봉행했다. 특히 자정에 진행된 호마의식은 눈길을 끌었다. 호마의식에서는 참석자들이 미리 기름종이에 베껴둔 아미타부처님의 모습과 글씨를 불에 던지며 극락정토왕생을 발원했다.

3보 1배의 새벽예불로 시작된 둘째날 성지대회는 현장스님의 지도로 염불체조와 아미타춤을 헌공하고, 염불만일다짐대회, 염불보살 수기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전남 보성=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재일교포불자 50년만에 첫 합동법회

"동포간 화합 발원"

재일동포 불자들이 남북으로 갈라선지 반세기만에 함께 합장했다.

재일한민족불교도총연합회(한불연·회장 김태연)와 재일조선불교도협회(조불협·회장 홍보월)는 16일 오사카(大阪) 도코쿠지(統國寺·주지 무애·조불협소속)에서 합동 법요를 가졌다.

동포 불교계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고 등포간 화합을 기원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마련한 행사이다. 법요엔 양측 스님 20명과 민단 및 총련 소속 동포 신도 3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양측 스님들은 1시간여동안 이어진 합동법요를 통해 분단이 빚은 대립의 앙금을 털고 조국의 평화통일이 하루 빨리 이뤄지길 간절히 기원했다.

법요를 마친 후 양측 스님들은 일본에 방치된 선조 유골을 봉환해 비무장지대(DMZ)에 안치하고 고국합동방문단을 구성해 남북사찰을 순례하는 등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협의했다.

김재경 기자

한국땅 1000㎞ 걸으며
일제 악행 사죄 염불

일본 신텐(神泉)시 산묘뵵사(山妙法寺) 이와타 루조(岩田隆造)는 12일 도쿄(東京)역을 출발, 시모노세키(下關)에서 부관페리호를 타고 14일 부산에 도착해 '한국 일주 사죄 순례'길에 올랐다.

"과거 일본이 범한 많은 죄를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죄하기 위해 한국 일주 순례에 나섰다"는 스님은 부산~경남 마산~전남 광양~광주~전북 전주~충남 부여~서울까지 간 뒤 다시 서울~대전~대구를 거쳐 부산으로 되돌아가는 1000㎞ 구간을 두 달간 걸을 예정이다.

일본 정통 승복에 노란 천을 두른 채 '謝罪(사죄)' '謝恩(사은)'이라고 적힌 천을 부착한 응급약품 가방 두개를 양어깨에 걸치고 '한국민에게 죄송하다'는 염불을 하며 순례에 나선 스님은 자신의 뜻을 방방곡곡에 전한 뒤 9월12일경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용성스님 생가복원 상량

'백용성조사 기념사업회'와 '백용성조사 유훈실현후원회'는 용성스님 입멸 60주기를 맞아 18일 탄생지인 전북 장수군 번암면 죽림리 252번지에서 용성스님 생가 복원 상량식을 거행했다. 용성스님 생가는 국비 5억원을 지원받아 복원된다.

김상두 장수군수, 기념사업회 유종혁 이사장, 유흥수 전 광복회 사무총장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죽림정사 조실 도문스님(대각회 이사장)은 "용성스님의 유훈십사목(遺訓十事目) 실현을 위해 헌신할 것을 발원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동국대 의료봉사대
미얀마서 자비인술

동국대 경주캠퍼스(부총장 최규철)의 참사랑봉사대(단장 홍광표교수)가 미얀마에서 보살행을 펼치고 최근 귀국했다.

의사와 한의사, 의대생 등 모두 23명으로 구성된 참사랑봉사대는 지난달 26일부터 보름간 교육과 의료시설이 낙후된 미얀마에서 해외의료봉사활동을 펴 미얀마 정부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참사랑봉사대는 이 기간동안 200여명에게 컴퓨터 교육을 시키고, 1천300여명을 진료했다.

김재경 기자

종단소식

조계종

총무원 표어 공모

총무원 기획실은 종단의 안정과 화합, 사회적 역할, 환경·통일 등 제30대 총무원의 운영방침을 잘 담아낸 표어를 공모한다. 8월7일까지 이메일, 우편, 직접전달 등의 방법으로 응모하면 된다. 제29대 총무원 표어는 '자비의 대중화-이웃과 더불어 자연과 함께'였다.

(02)732-9342

실상사 대안학교 열어

남원 실상사(주지 도법) 작은(대안)학교 준비모임은 7월30일~8월4일, 8월 13~18일 전국의 초등학교 어린이 40명을 대상으로 '지리산 선돌마을 어린이 여름학교'를 연다. 또 7월23~28일, 8월 6~11일 중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여름학교를 연다. 불교문화·생태기행·농장체험, 심성훈련 등 대안학교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실상사 작은학교 준비팀은 학생들에게 중등 3년의 과정이 '지식기능인으로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통과의례'가 아닌 '성숙한 인간'으로서 자기 발견의 기회를 주기 위해 내년 3월 중학교 과정의 비인가 대안학교를 개교한다. (063)636-3369

태고종

승려 교임 연수 교육

제27회 전국 승려 및 교임 연수교육이 8월 17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동안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열린다. 이번 교육은 3차에 걸쳐 진행되며 1차(8.17~19)는 합동득도 6기부터 13기, 2차(8.19~21)는 합동득도 14기부터 20기, 3차(8.21~23)는 21기부터 23기까지의 스님들과 교임이 참가한다.

교육내용은 △태고종지 종승의 확립 △21세기를 선도할 수 있는 선진 포교 방법과 실제 △각종 법회의식의 통일방안 등이며 종단 발전을 위한 분임토의와 종합토론의 시간도 마련된다.

태고회 새회장 도운스님



중진스님들의 수행단체인 태고회 새 회장에 이도운스님(내자사 주지·사진), 부회장에 정대은스님(인천종무원장)과 송종연스님(성주암 회주)이 각각 선출됐다.

태고회는 지난달 26일 홍연사에서 임시총회를 개최, 새 집행부를 탄생시켰으며 동방불교대에 2학기 장학금 2백만원을 기증했다. 총무를 비롯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총무=법우(홍연사 주지) △교무=지족(대흥사 주지) △재무=설산(백련사) △사회=혜암(안정사) △감사=지성(총무부장) 청봉(용천사 주지)

참나찾기 청소년 팔관재

한국불교청년회와 마음의 전화(회장 도각)는 8월 2~4일 태고총림 선암사와 금둔사 향림사, 낙안민속마을, 낙안해수욕장에서 '참나찾기 청소년 및 지도자 팔관재 큰 모임'을 갖는다. 청소년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모임에서는 청소년들의 순수하고 청결한 마음과 순결지키기의 고귀함을 일깨워주고 올바른 삶을 제시해 주는 팔관재계 지키기를 서원하며 선 심리치료와 전통 다도 등의 강의를 받을 수 있다.

(02)326-0248

자비종

추풍령 윤화희생자 천도재

총무원장 삼중스님(자비사 주지)은 14일 경부고속도로 추풍령 구간에서 발생한 수학여행단 버스 연쇄추돌사건의 희생자를 위한 위령천도재를 22일 참사현장 인근에서 봉행했다. 삼중스님이 집전한 이날 천도재는 범패와 추도법문, 전체 사망자 18명 중 13명의 희생자를 낸 부일외국어고 교가 합창 등으로 진행됐다.

아봐타 코스는 자기 자신이 온전한 주인이 되어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아봐타 코스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선택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삶 전반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봐타 센터
마스터/위저드 김희군

· 아봐타 코스는 7~9일이 걸리며 비용은 180만원입니다.
·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 bukba@kornet.net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 396-2736 H·P 016)228-2358
FAX 02) 396-2735

天蓼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 흉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0047

연등 배선의 혁신

법당 기도등 · 영가등 전기배선



T형 일체식 케이블

■ 견고성
전선과 소켓이 일체이므로 튼튼합니다.
■ 편리성
연등 고리가 있어 연등 설치가 용이합니다.
■ 일체성
접촉불량이 없습니다.

※ 설치시 조광기를 기설해 드립니다

▶불자기업 : 마크를 각인하여 전선을 생산합니다.
▶안 정 성 : 내선이 기존제품보다 굵어서 화재의 위험이 없습니다.
▶다 양 성 : 사찰과 법당의 규모 및 환경에 따라 최적의 전선을 사용합니다.
▶내 구 성 : 3종 피복전선으로 날씨 변화에 영향이 없습니다.
▶경 제 성 :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깔끔하게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백중을 맞아 신성기획에서는 등배선에 관하여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등전선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바랍니다.

규격 · 내부용 - 30cm, 35cm, 40cm, 50cm, 기타
· 외부용 - 1M, 1.5M, 2M, 3M, 기타
※ 주문시 간격을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신성만의 축적된 기술로 안전하게 제작·시공 및 확실한 A/S를 해드리겠습니다.

생각하는 기업 S2 신성
TEL: 02)993-8903~4 / H.P: 011)367-3786
FAX: 02)993-8905 서울시 도봉구 창1동 667-117호

뿌리내리는 '지역법회'

도반끼리 신행…경조사도 챙기고
사찰 신도관리 장점 조직화 앞장



◇도심의 대형 사찰들은 사찰 신도조직을 체계화 하고 신도들의 신행을 일상화 하는 포교방법으로 지역법회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사진은 강서구 화곡1동 무루회의 가정법회 장면.

신도들의 동일 생활권별로 봉행되는 지역법회가 사찰 신도조직을 확대하고 체계화하는 포교방법으로 정착되고 있다. 최근 봉은사가 강남권역 중심으로 운영하던 지역법회를 종로·강서·강북지역 등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것은 물론 조계사도 신도조직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법회 운용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등 도심 대형사찰을 중심으로 지역법회 운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역법회는 보통 구단위 또는 동 단위로 봉행되는게 일반적으로, 한달에 한두번 같은 지역의 불자들이 한 가정에 모여 법회를 봉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같은 지역법회는 사찰의 신도관리 및 조직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사찰을 중심으로 한 신도들의 결속력과 유대를 강화하고, 절에 처음 와서 낯설어 하는 불자들을 쉽게 아우르는 잇점이 있어 지역법회를 운영하는 사찰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사찰별로 '구역법회', '법등법회', '가정법회'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 지역법회는 재일(齋日)기도에 그치기 쉬운 신도들의 신행을 일상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지역법회를 처음 도입한 사찰은 서울 송파구의 불광사. 25년전 신도조직을 체계화하기 위해 송파구내 불자들을 중심으로 지역법회를 운영하던 것을 지금은 서울·인천·경기지역을 포괄하는 42개 법등법회를 꾸려가고 있다.

서초구의 능인선원은 최대 규모의 지역법회가 운영되고 있는 사찰이다. 강남 1·2, 강북, 수도권 등 신도들의 거주지역을 크게 4권역으로 나누고 그 하부조직으로 1천개의 동단위 가정법회를 운영하고 있다. 매달 가정법회용 교재를 발간하고 있는 이례적인 사찰이기도 하다. 능인선원 가정법회는 주지 지광스님이 직접 쓰고 녹음한 〈능인등불〉과 교육 테입을 중심으로 한달에 두 번 봉행된다.

가정법회 간사장 노행명등 보살은 "가정법회는 사찰을 중심으로 하나의 거대한 피라미드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사찰, 법회장, 일반신도 등 3각 구도로 짜여져 있어 사찰의 특별한 관리없이도 신도조직을 일사분란하게 가동하는 방법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천수법등, 관음법등 등 7개의 지역법등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법장사 주지 퇴휴스님은 "지역법회는 사찰이 미처 신경쓰지 못하는 신도 개개인의 신행과 경조사를 신도들 스스로 챙기며 유대를 맺는 지역신앙공동체로써도 한몫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마음선원, 금강정사, 구룡사, 관문사 등 서울·경기지역 포교1번지로 자리잡은 사찰에서도 지역법회를 통해 자율적인 신도활동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복지·문화·환경활동 참여에도 크게 한 몫을 하고 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효창동 원효사 앞 고층아파트 강행 '물의'

조동종 총무원이 있는 서울 원효사(효창동 5-152 소재, 주지 학봉) 바로 앞에 10·13층짜리 대형아파트가 들어서게 돼 수행 및 신앙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 원효사에서 6m 거리에 삼안공영(대표 김정국)이 6층 8층 10층 13층의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원효사의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되고 사찰의 내부가 들여다보여 기도 등 신도들의 종교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원효사 주지 학봉스님은 "사찰 환경을 지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숙 기자

"아들 만날수 있다니…부처님 은덕"

조주경 김일성大 교수와 '8·15 상봉' 수도화 보살



"부처님, 감사합니다. 주지 스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17일 북한의 아들이 자신을 찾는다는 소식을 접한 수도화 보살(88·부산 내원정사)은 그저 감사할 뿐이다. 북측 이산가족 방문단에 포함된 조주경(68) 김일성대학 교수가 바로 그의 아들. 50년 동안 가슴에 품어 오며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자식 한번 만나게 해달라'는 수도화 보살의 기도가 실현된 것이다. 아들의 모습이 눈 앞에 환하다는 수도화 보살은 "아들을 만나면 눈물밖에 무슨 다른 말을 하겠느냐"며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고인다.

수도화 보살이 22살에 남편을 잃고 애지중지 길러오던 아들 조씨와 생이별한 것은 6.25전쟁 통에 아들이 인민군에 끌려가면서부터. 밥을 거르며 공부에만 열중하던 아들이 대구 사범대를 졸업하고 장학금을 받으며 서울대 문리대 수학과에 다니고 있을 때였다. 졸지에 아들을 잃은 보살은 백일동안을 서울을 못 떠나고 울며 아들을 찾아 헤맸으나 허사.

부산과 경북 영양의 친척집에 함께 살아오다 20년 전부터 내원정사에 머물며 아들을 위한 기도로 여생을 보내고 있다. 수도화라는 불명도 지금은 돌아가신 석암큰스님이 주신 것.

"밥이라도 제대로 먹으며 살아 있기만을 기도했는데 대학 교수가 되었다니 오로지 부처님의 덕"이라고 연신 눈물을 훔친다. 오늘도 3시간 동안 법당에서 기도를 마친 수도화 보살은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2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금강경, 천수경을 독송하고 법당에서 자식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

"막상 아들을 만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들뜨고 이상해 더욱 기도에 전념하게 된다"는 수도화 보살은 주경씨 대신 친아들처럼 수도화 보살을 보살피며 주위의 칭찬을 받고 있는 조카 주찬(67·서울)씨와 함께 8월 15일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부산=천미희 기자

국보법 폐지 국민운동 결성

실천승가회·불교인권위 등 8개 단체 동참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불교인권위원회 전국불교운동연합 등 8개 불교단체는 21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총 240여개 단체와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공동대표 청화·진관스님 외 33명) 결성식을 개최했다.

22일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국민대회를 개최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는 선언문을 통해 "통일된 조국, 민주주의와 인권이 넘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대는 앞으로 3당 대표 면담(7월중), 국가보안법 사문화 선언운동, 6·15공동선언 이행 촉구 양심수 전원석방, 정치수배 해제 캠페인 등을 펼칠 계획이다.

이 단체는 고은시인(본지 논설고문)과 불교인권위 공동대표 한상법교수가 고문을, 실천승가회 의장 청화스님과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스님이 공동대표를, 실천승가회 부의장 효림스님이 운영지도위원을 각각 맡았다.

김재경 기자

뉴스 & 뉴스

약수암, 파주 납골공원 조성

태고종 약수암(주지 혜각)은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3리 347-1 4천5백여평 부지에 납골공원을 조성하고 분양에 들어갔다. 1기에 1구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개인탑과 부부의 유골을 함께 안치할 수 있는 부부탑, 1기에 16구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가족 선산탑, 1기에 여러 가족의 유골을 공동으로 안치할 수 있는 합동탑 등이다. (031)952-4801 이경숙 기자

복지관 인터넷 환경 만들자

조계종 복지재단은 19일 복지재단 회의실에서 교계 복지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계 복지관 인터넷환경조성을 위한 모임'을 가졌다. 이날 복지관 인터넷 환경조성방법, 복지재단 서버이용 방안, 불교계 복지관 전산망 연대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인터넷 활용'에 대한 벤처기업가 초청강의도 진행됐다. 한명우 기자

일붕선교종 법통수호대회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혜운·무공·혜천·법성 스님 등 종단 스님들과 법사, 신도 등 5백여명은 18일 종로구 신영동 일붕선원 법당에서 '종단법통수호와 일붕존자 유지보존을 위한 전국 승려 및 법사 종도대회'를 봉행했다. 이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재단법인 재건 △1999년 12월 23일 이전 청송 총무원장 체제 환원 △현기홍 종정 불신임 △무공스님 복권 등 10가지 사항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종단법통수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무공스님을 비상대책위원장에 선출했다.

이경숙 기자

기도하면 장수 — 종교가진 노인 사망률 50% 낮아

기도나 명상 등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산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듀크대 메디컬센터의 해롤드 쾨니그 교수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더햄 지역의 노인 4000명을 대상으로 6년간 입상관찰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유에스에이투데이지가 18일 보도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종교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노인들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기도나 명상을 하는 노인들보다 사망 확률이 50%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 이유에 대해 쾨니히 교수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이며, 어떤 종교의 기도나 명상도 모두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명우 기자

동국대 경주캠 불교문화대학원 생긴다

내년 2개학과 운영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2001년부터 불교예술, 영상제작, 네트워크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특수·전문대학원을 신설한다. 동국대는 20일 교육부로부터 불교문화대학원과 영상정보대학원 설립을 인가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경주캠퍼스에 신설되는 특수대학원인 불교문화대학원은 불교학과와 불교예술학과 등 2개 학과를 운영하며, 경상도 지역의 스님과 재가자의 재교육 기관으로 활용된다.

또한 서울캠퍼스에 개설되는 영상정보통신대학원은 전문대학원으로 영상제작학과·멀티미디어공학과·네트워크학과 등 3개 학과를 개설한다. 이 대학원은 영상 및 정보통신 기업체와 산학협의체를 구성, 인턴쉽과 같은 현장중심의 교육 체계로 운영한다.

동국대는 95년부터 영상정보통신 분야를 대학의 특성화 영역으로 설정하고, 지금까지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다. 오종욱 기자

정혜사·통신원불자회 화천서 호국위령재

서울 정혜사(주지 도현)와 BBS 교통통신원불자회(회장 이상희)는 23일 강원도 화천 승리부대에서 호국위령재와 신병교육대 장병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승리전망대에서 남북통일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 참가한 정혜사 신도와 교통통신원불자회 회원들은 중부전선 내 군법당 장병들을 위문하고 승리전망대에서 '북한동포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낭독하기도 했다. 김재경 기자

목탁소리

김 주 일 〈취재2부 기자〉

교계, 위성방송 무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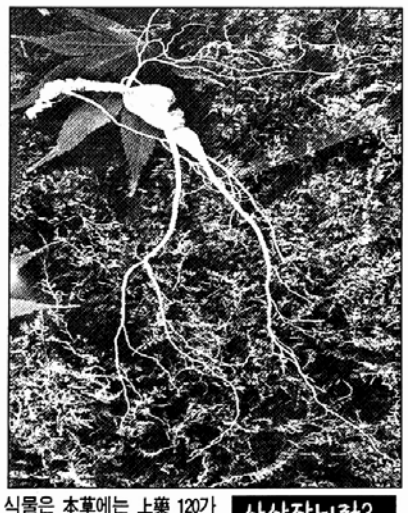
21세기 정보사회를 이끌어 갈 첨단 방송 매체인 위성방송이 올 9월이면 사업자 선정을 마친 후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안방 시청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하지만 개신교는 한발 앞서 특정 지역 유선방송을 통해 선교 위성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통합방송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방송 서비스는 '특정한 이익을 가진 집단이나 신념 또는 사상을 지지·옹호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은 송신을 금지한다'는 유선방송관리법에 저촉돼 법으로 제한할 수 있었다. 그러나 통합방송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는 선교 위성방송을 막을 아무런 법조항이 없어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타종교의 위성방송을 막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계에 위성 포교방송을 할 방송국이 없다는데 있다. 개신교는 현재 3~4개의 위성방송이 전국 각지역 유선방송을 통해 안방을 파고들고 있다. 하지만 교계에서는 위성방송 사업에 대한 필요성만 느끼고 있지 구체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단체는 전혀 없다. 올해 초 모종단에서 사업계획을 마련한 적은 있지만 최소 30억원~40억원이나 드는 초기 투자비용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케이블TV인 불교TV도 아직 정상화시키지 못하는데 무슨 위성방송이냐는 비아냥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타종교가 급변하고 있는 방송 환경에 대처하며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선교하고 있는데 불교계만 강건너 불구경할 수는 없다. 영상 컨텐츠만 많이 확보한다면 투자 비용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불교TV나 불교인터넷TV가 확보하고 있는 기존의 많은 영상 컨텐츠를 잘 활용해 컨소시엄 형식을 취한다면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위성방송이 출범하기도 전에 방송을 송신하고 있는 타종교 방송을 막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를 것이 아니라 위성방송 포교의 구체적인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jikim@buddhapia.com)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사업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주부신행담 나를 향해 마주앉아 ㊤

내가 무슨 수행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이런 제목으로 글감을 삼는지 스스로도 가당찮아서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다만 초심자로서 수행이란 승가의 스님들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 불자들도 하고, 또 살다가 보면 사는 것 자체가 수행이라는 생각에서 조심스럽게 나의 신행담을 펼쳐 보이고자 한다.

나는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 집안에서 태어나 오십년이 넘게 그 종교 울타리 속에서 살던 사람이다. 불교는 종교가 아닌 문화사적으로만 느끼고 생각해 왔기에 그야말로 불교에는 문외한으로 지내왔다. 그렇게 영영 불교를 모르고 세상을 끝낼 수도 있었던 나에게 둘째 사위가 생기면서 불교와의 인연이 시작됐다. 둘째 사위의 인도로 불교공부를 하게 된 것이다.

신접살림을 우리집에 두고 가는 바람에 사위가 읽던 수많은 서적들도 함께 남아 있게 되었다. 원래 읽는 것이라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나인지라 한 권씩 골라 읽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날 〈법구경〉이란 책을 손에 들게 되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우리 민족에게 정신적 지주로서 삼국,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전 국토를 다 덮고 면면히 내려온 불교지만 나는 내가 믿는 종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그동안 아예 알려고 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고보니 정식 불교서적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법구경〉은 보석이 가득 찬 보석 상자에 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책이었다.

그 한 권의 책 때문에 불교에 대한 나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던 것이다. 나이가 들어 아이들이 모두 결혼하거나 공부하러 멀리 가 버리고 혼자 남게 되서인지 안 그래도 수행서적들, 그것이 일반인의 것이든 종교인의 것이든 가리지 않고 읽고있던 나는 그 후 불교책으로만 내 독서의 방향을 바꿨다.

마치 갈증 난 사람처럼 불교관련 서적들, 엄밀히 말하면 한국 불교, 외국 불교 구별없이 스님들께서 지으신 책들을 굶주린 사람처럼 찾아 읽었다.

그래도 그때는 종교로서 보다는 수행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대하며 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더 관심이 많았을 때였다.

그렇게 한 일년이 지났을 무렵 한 선배가 내가 불교서적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여러 권의 책을 빌려 주었다. 그 가운데에는 〈한마음요전〉도 들어있었다.

나는 그때의 흥분을 잊을 수가 없다. 이때까지 내 모든 의식들을 모조리 흔들어 버리고 놀랍게 다가오는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행복! 물론 이 행복은 세속 잣대에서의 행복은 아니다. 그 후 일년간 〈한마음요전〉을 손에서 놓지 않고 살았다. 이때까지 그처럼 아끼며 읽은 책은 없었다. 그러나 불교에 한발 한발 들어 가면서 처음과는 달리 풀이 죽는 일이 생겼다.

올 새해를 맞으며 한암 큰스님과 탄허 큰스님 두 분의 출가원과 승낙하시는 말씀의 편지글을 현대불교신문에서 읽었다.

"숙세의 선근이 있지 않고서야."

'숙세의 선근' 요사이는 이런 말들을 불가의 말씀으로서 자주 접하지만 당시는 이런 구절의 말도 몰랐다. 신비하면서 일면 무섭기도 한 그 말씀을 혼자 새겨 보노라니 나는 숙세의 선근을 심은 것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느껴졌다. 스님들의 말씀이나 책에서 나오는 말들을 삼가게 되고, 방금 한 내 행위들도 자주 반추하게 된다.

나는 피해 의식이 있는 사람이다. 어떤 문제 때문에 상대를 오해하고 나쁜 눈을 뜨고 그를 본다. 그러나 그것이 나 혼자 만의 미루어 짐작한 나쁜 생각임을 알게 될 때 "네가 더 나쁘다" 고 큰 소리로 자신을 꾸짖는다. 선업을 지을 때는 의식없이 하려고 하고, 악업을 지을라치면 재빨리 나를 찾는다.

"이제 알고는 나쁜 일 하지 말자. 그것이 크든 작든, 보이지 않는 의식이든 행이든 결단코."

나도 모르는 순간 개종의 길로 들어서 버렸다.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나였다. 그렇기에 수십년 다니던 그 곳을 아무 갈등 없이 그야말로 자연스레 떠날 수 있었다.

무상 밖에 안된 혈기 방장한 청년이 자신을 천출로 그처럼 낮추며 엎드리는 모습. 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다시 한 번 숙세에 선근을 심지 않은 사람으로서 지금 고개를 번쩍 들고 남을 탓하고 나를 저만치 높이 올리고 남을 끌어 내리기를 번갈아 하며 살아온 자신이 참으로 부끄러웠다.

일부러 하는 겸손은 해봐야 오히려 그 작위만 더 드러나지 끝까지 겸손하게 되지는 않는 법이다. 부모의 사상이 자식들에게 비처럼 몸에 스며들어서 자식들의 가치관이 부모의 상에서 표출되듯이, 숙세의 심은 것들이 현생의 내 모습임을 그때서야 깨닫고 땅바닥에 무너져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으로는 불법을 아예 모르고 생을 마쳤으면 두 번 다시 되풀이 하고 싶지 않은 이런 생을 또다시 할 뻔 했다고 느꼈다. 그 뒤부터는

'법구경'은 보물 가득한 보석상자였다
나는 그 한권의 책을 읽고 나서
불교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었다



그림 · 이준석

때 맞추듯 나온 현각스님의 책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는 아이들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나를 이해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나에게 어떤 분이 아프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나는 아프지 않다, 아플 여유가 없다. 물론 백팔배를 처음 할 때는 어지럽고 구토증이 날 것 같았다. 그러나 좀 쉬면 곧 괜찮아진다. 그것을 무릅쓰고 막무가내로 할 때, 마음과 몸과 의지가 일치가 되지 않을 때 병이 생길 수밖에 없다.

불교는 사람에게 여유를 가져다 준다. 마치 종이의 여백처럼, 그 점이 참으로 좋다.

오매불망 키운 자식들이 멀리 있으면서 오랫동안 전화 한 통 해 주지 않을 때 용도 폐기 처분된 기분을 느끼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젠 그렇지 않다. "오직 자식들을 위하여" 이렇던 삶도 이제는 아니다. 내 할 일 다 했으니 그것으로 다행이라 생각하며 잘 지낼 것이라 마음을 느긋하게 가진다. 어질고 선업을 행하며 살기를 바랄 뿐 나도 전화하지 않는다.

그래도 때로는 책을 보는 것도 심드렁하고 혼자 유난히 쓸쓸하여 무언가 따뜻한 위로를 꼭 받고 싶을 때가 있다. "엄마" 하고 부르는 자식들의 목소리로 내 태두리를 두르고 싶을 때 전화기로 손이 내밀어 지면 "아니지" 하고는 손을 거두어 들인다.

부소의 물처럼 혼자서 가자, 또 대행 큰스님은 말씀하신다, "인연은 끊지 말고 집착은 버려라"라던 큰스님의 그 말씀은 나를 홀로 서게 하는데 잡고 일어서는 밧줄이었다.

불교서적을 읽기 시작한지 삼년, 사찰로 가서 기도한지 일년된 아직은 초심불자다. 가게에서 집에서 수행자들의 책들을 못내 좋아하며 또 테이프에 담겨진 스님들의 염불과 진언염송을 듣고 큰 소리로 따라 하면서 혼자 환희심이 나서 신나한다. 하도 신이 나고 기뻐하는 것이 내가 경망스러워 그런가 싶기도 했다. 그러나 아니었다. 염불과 진언의 내용을 나중에 책으로 살펴보았더니 환희심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또 내가 좋아하는 '나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뜻은 모르는데 부드럽게 다가오며 울 것 같은 그 달콤한 마음도 못난 중생이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뜻이 있으니 어찌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최순옥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4가〉

히란야는 우리 몸에 건강과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단전 건강운동기
· 오래된 숙변이 힘차게 쏟아집니다.
· 장속에 독소가 빠져 피로가 없어집니다.
· 잠이 잘오고 단전에 힘이 솟아납니다.
₩ 240,000


氣의 신비감 피라미드(KBS2-TV 체험사례)
· 피라미드내에서 명상효과(박병윤박사)
· 식물성장과 병충해 방지효과(인병성씨)
· 저혈압으로 수십년 고생하다 좋아짐(주부 장양심씨)
· 뇌막염아기 건강이 호전(이효준씨)
₩ 350,000


순금도금으로 효과가 더욱 좋아진 파워봉
(침21개 순금도금)
₩ 80,000



※ 萬事亨通 氣 달마도

앞면 뒷면
정가 ₩ 20,000
萬事亨通 달마카드 무료증정
제품을 주문하시는 모든분에게 氣발생 달마도 카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금박)
지갑속에 간직하시면 氣·運 건강이 좋아집니다.

· 전화를 주시면 氣를 Check 해 드립니다. · 카다로그 氣측정기 무료우송 · 성인병에 대한 최신정보 (고혈압, 당뇨, 간, 장, 비만) 책자우송

韓國氣研究院 ☎ 02)455-6944, 02)453-5851 /Fax 02)454-0646 우체국 014092-06-011003(예금주 : 김 전순)

갈월사 영탑(靈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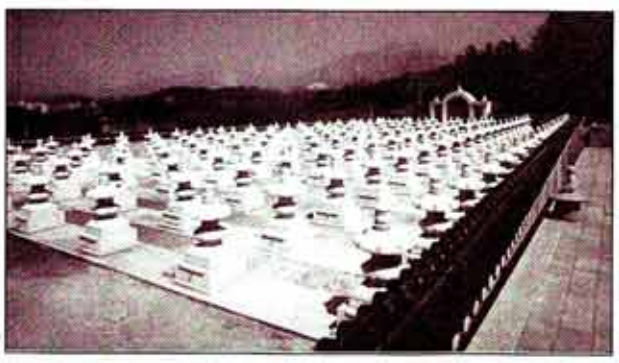
영탑허가번호
양평군 제2000-3호

후손들을 편하게 하고 근본 이체에 순응하며
자신의 육신에 대한 애착을 놓아 버리기 위해 생전에 자신의 영탑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입니다.

탑공원 설립의 의의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혼백을 자손과 모두 한마음안에 평안히 영생케하고자 하는 원리를 담고 갈월사영탑은 1999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경내에 주지 홍인스님께서 조성하신 가족영탑 입니다.
묘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 매장제도를 개선할수 있는 최상의 모델로 향후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조성된 영탑▶



갈월사 영탑 조성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직접땅에서 출토된 미륵부처님의 도량에 사방이 우거진 웅장한 숲속에 평화롭게 안치될 영탑은
영탑1기에 16구의 영가를 안치해 5대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으며
영탑을 이용 하시는 모든 회원과 불자님에게는 영가를 모셔오는 **시다림의 초제부터 7.7재와 49제까지의 모든 제례행사**를
무료로 주관해드리는 특전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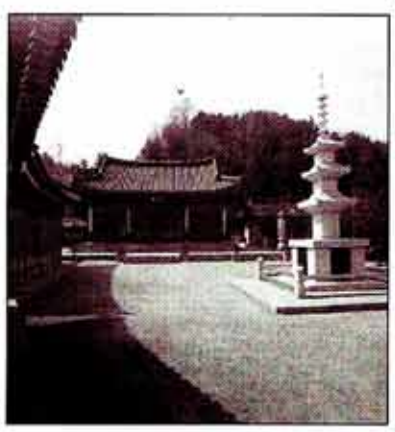
영탑의 특장

▶ 탑 하나만 세우면 **가족 대대로 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기존 묘지는 조상에 소홀하고 제사 지내기에 불편하나 탑안에 조상을 모두 모시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정성껏 모실 수 있습니다.
▶ 갈월사에서 **직접1년에 4회 합동천도제**를 올립니다.
▶ **내 조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관리합니다.**
▶ **사통팔단한 교통망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오실수 있습니다.

참다운 효도

물질이 원소로 구성된 이 몸은 본래 영원한 참 생명이 잠시 입고 벗어 버리는 옷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하면 썩어 들어가 결국 지수화풍사대로 화하여 소멸하고 마는 이 육신을 모시는 것은 참으로 허망하며 한낱 애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상의 참 생명을 인도하고 모시는 것이 참다운 효도이며 공덕임을 알아야 합니다.

갈월사 경내▶





◀정문

탑은 영구히 사용합니다

영탑에는 조상분들을 화장하여 위패를 모시게 됩니다.
탑에는 3대까지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대를 모실때는 1대를 꺼내어 소(燒 - 절에서 처리)하고 2대부터 4대를 모십니다.
다음은 2대를 소하고 3대로부터 5대를 모시게 됩니다. 3대가 지나면 조상들은 이미 몸을 받기때문에 안모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 의: 031)774-7374, 771-9577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 월 사**
▶홈페이지: http://galwolsa.bz.co.kr

· 모시고 싶은곳, 자주자주 찾아뵙고 싶은곳 · 영원한 쉼터입니다. · 가신분을 위한 경건하고 엄숙한 안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 모시는 분을위한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